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책임연구원
김형주

IN

Y

P

II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윤경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1. 모집단 정의 및 분석	3
2. 조사 설계	3
3. 응답자 특성	4
II. 조사결과	5
1. 북한에 대한 생각	7
2. 통일에 대한 생각	53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73
4.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125
5. 정서적 공감	143

표 목 차

<표 I-1> 응답자 특성	4
<표 II-1> 북한에 대한 생각	8
<표 II-2>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10
<표 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12
<표 II-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14
<표 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16
<표 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18
<표 II-7>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20
<표 II-8>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22
<표 II-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24
<표 II-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26
<표 II-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28
<표 II-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30
<표 II-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32
<표 II-14>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34
<표 II-15>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36
<표 II-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38
<표 II-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40
<표 II-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42
<표 II-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44
<표 II-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46
<표 II-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48
<표 II-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50
<표 II-2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52

<표 II-24> 통일에 대한 생각	53
<표 II-25>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56
<표 II-26> 통일이 필요한 이유	58
<표 II-27>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60
<표 II-28>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62
<표 II-29>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64
<표 II-30>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66
<표 II-31>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68
<표 II-32>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70
<표 II-33>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72
<표 II-34>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73
<표 II-35>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76
<표 II-36>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78
<표 II-37>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80
<표 II-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82
<표 II-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84
<표 II-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86
<표 II-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88
<표 II-42>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90
<표 II-4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92
<표 II-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94
<표 II-4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96
<표 II-4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98
<표 II-4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100
<표 II-48>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102

<표 II-49>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104
<표 II-50>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06
<표 II-51>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08
<표 II-52>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0
<표 II-53>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2
<표 II-54>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4
<표 II-55>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16
<표 II-56>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18
<표 II-57>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0
<표 II-58>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2
<표 II-5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4
<표 II-60>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125
<표 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128
<표 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130
<표 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132
<표 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134
<표 II-65>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36
<표 II-66>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138
<표 II-67>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140
<표 II-6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142
<표 II-69> 정서적 공감	143
<표 II-70>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146
<표 II-71>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148
<표 II-72>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150
<표 II-73>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152

그림 목 차

【그림 II-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9
【그림 II-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11
【그림 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13
【그림 II-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15
【그림 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17
【그림 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19
【그림 II-7】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21
【그림 II-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23
【그림 II-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25
【그림 II-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27
【그림 II-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29
【그림 II-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31
【그림 II-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33
【그림 II-14】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35
【그림 II-1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37
【그림 II-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39
【그림 II-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41
【그림 II-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43
【그림 II-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45
【그림 II-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47
【그림 II-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49
【그림 II-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51
【그림 II-2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55
【그림 II-24】 통일이 필요한 이유	57
【그림 II-2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59

【그림 II-26】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61
【그림 II-2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63
【그림 II-2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65
【그림 II-29】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67
【그림 II-3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69
【그림 II-31】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71
【그림 II-32】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75
【그림 II-33】 탈북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77
【그림 II-34】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79
【그림 II-3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81
【그림 II-3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83
【그림 II-3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85
【그림 II-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87
【그림 II-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가정환경	89
【그림 II-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91
【그림 II-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93
【그림 II-4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95
【그림 II-4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97
【그림 II-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99
【그림 II-4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101
【그림 II-4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103
【그림 II-4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05
【그림 II-4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07
【그림 II-49】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09
【그림 II-50】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1
【그림 II-5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13

【그림 II-52】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15
【그림 II-53】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17
【그림 II-54】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19
【그림 II-55】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1
【그림 II-5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123
【그림 II-57】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127
【그림 II-5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129
【그림 II-5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131
【그림 II-60】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133
【그림 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35
【그림 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137
【그림 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139
【그림 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141
【그림 II-65】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145
【그림 II-66】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147
【그림 II-67】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149
【그림 II-68】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151
【그림 II-69】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	153
【그림 II-70】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55
【그림 II-71】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157
【그림 II-72】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 같다	159
【그림 II-73】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호뭇하다	161

【그림 II-74】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	163
【그림 II-75】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	165
【그림 II-76】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167
【그림 II-77】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169
【그림 II-78】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171
【그림 II-79】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173
【그림 II-80】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175
【그림 II-81】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177
【그림 II-82】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179
【그림 II-83】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181
【그림 II-84】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	183

제 1 장



조사개요

1. 모집단의 정의 및 분석
2. 조사 설계
3. 응답자 특성

제 1 장 조사개요

1. 모집단의 정의 및 분석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4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의 전국 학생 현황 DB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당시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비일반고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표본 배분은 17개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서 지역과 학교급 등이 주요 변수에 해당되어, 이들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층화과정은 크게 2단계로 하며 1단계로 17개 시도를 구분하여 층화하고, 2단계로 학교급 별로 구분해 층화하였다.

2.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표 본 수 : 총 2,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2\%$ Point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등
- 조사기간 : 2014년 7월 7일 ~ 8월 11일

3. 응답자 특성

표 I -1 응답자 특성

단위[%]		사례수[명]	%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926	46.3%
	여성	1,074	53.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2%
	중학교	705	35.3%
	고등학교	731	36.6%
종교	기독교	535	26.8%
	불교	200	10.0%
	가톨릭	153	7.7%
	무교	1,098	54.9%
	기타	14	0.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4.3%
	보통	552	27.6%
	불만	162	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1%
	중	1,177	58.9%
	하	661	33.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중	1,053	52.7%
	하	870	4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9%
	중	1,709	85.5%
	하	154	7.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2%
	없다	1,897	94.9%

제 2 장



조사결과

1. 북한에 대한 생각
2. 통일에 대한 생각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4.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5. 정서적 공감

제 2 장 조사결과

1.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청취경로로는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수업에서, 인터넷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로는 부모, 학교선생님, 친구,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는 '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협대상'이라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로는 가난하다, 허약하다, 우울하다, 공격적이다, 믿을 수 없다, 조용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편이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북한의 생활수준(48.4%), 정치(38.6%), 경제수준(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북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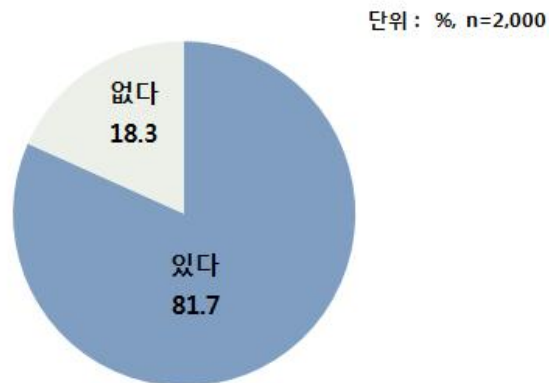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본 경험	81.7	
북한에 대한 이야기 청취 경로	TV뉴스	57.6
	학교수업에서	21.8
	인터넷	9.2
	부모님에게서	4.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 [하는 편이다 =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부모	36.9
	학교선생님	29.6
	친구	28.8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15.7
북한에 대한 생각	서로 도와야 할 대상	40.1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대상	21.9
북한 청소년 이미지	조용하다	25.6
	우울하다	39.3
	가난하다	69.0
	허약하다	54.1
	공격적이다	37.7
	믿을 수 없다	30.4
북한에 대한 관심	없는 편이다	35.3
	그저 그렇다	36.9
	있는 편이다	27.8
항목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 [* 알고 있다(다소알고 있다 + 많이 알고 있다) 기준]	언어	26.5
	정치	38.6
	북한사회 특성	33.8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견해	18.9
	북한생활 수준	48.4
	문화 수준	16.7
	경제 수준	36.5
	교육 수준	20.3

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있다 81.7% > 없다 18.3%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3.3%)이 높고, 종교별로는 불교(85.5%)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88.3%)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90.5%), 이산가족이 있을 때 높게(91.3%) 나타났다.



【그림 II-1】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표 II-2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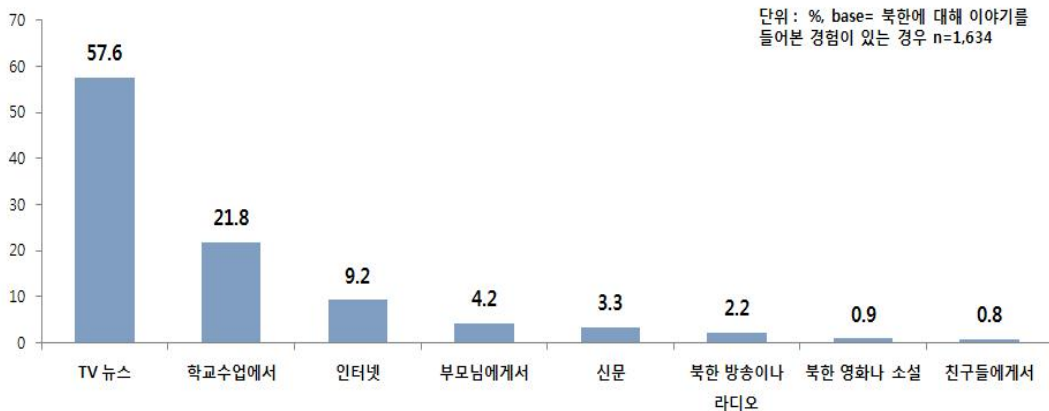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81.7	18.3
성별	남성	926	81.3	18.7
	여성	1,074	82.0	18.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3.3	16.7
	중학교	705	81.8	18.2
	고등학교	731	80.3	19.7
종교	기독교	535	84.9	15.1
	불교	200	85.5	14.5
	가톨릭	153	77.8	22.2
	무교	1,098	79.8	20.2
	기타	14	10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2.6	17.4
	보통	552	80.1	19.9
	불만	162	80.2	19.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8.3	11.7
	중	1,177	79.9	20.1
	하	661	83.2	16.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80.5	19.5
	중	1,053	82.1	17.9
	하	870	81.4	18.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90.5	9.5
	중	1,709	81.0	19.0
	하	154	81.8	18.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1.2	18.8

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TV 뉴스 57.6% > 학교수업 21.8%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로는, 'TV 뉴스'가 가장 높고(57.6%) '학교수업'(21.8%), '인터넷'(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1.6%)이 여성(54.1%)보다 'TV 뉴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61.1%)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58.7%) TV 뉴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표 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

단위[%]		사례수 (명)	TV 뉴스	학교수업 에서	인터넷	부모님 에게서	신문	북한 방송이나 라디오	북한 영화나 소설	친구들 에게서
전체		1,634	57.6	21.8	9.2	4.2	3.3	2.2	0.9	0.8
성별	남성	753	61.6	18.6	7.6	5.3	3.2	2.1	1.1	0.5
	여성	881	54.1	24.5	10.6	3.3	3.4	2.3	0.8	1.0
학교급	초등학교	470	61.1	24.0	4.0	6.6	1.9	1.5	0.6	0.3
	중학교	577	56.3	25.0	5.9	5.5	2.8	3.3	0.3	0.9
	고등학교	587	56.0	16.9	16.5	1.0	4.9	1.7	1.7	1.3
종교	기독교	454	56.2	20.9	8.8	4.4	4.0	2.9	1.5	1.3
	불교	171	61.4	21.6	7.6	4.1	2.3	1.2	1.2	0.6
	가톨릭	119	52.1	28.6	3.4	7.6	4.2	2.5	0.8	0.8
	무교	876	58.3	21.6	10.6	3.7	3.1	1.7	0.6	0.4
	기타	14	57.1	7.1	0.0	7.1	0.0	21.4	0.0	7.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60.0	20.5	7.6	4.8	3.5	2.2	0.8	0.6
	보통	442	55.7	23.3	11.3	3.2	2.7	2.5	0.7	0.6
	불만	130	44.6	26.9	14.6	3.1	3.8	1.5	3.1	2.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46.9	28.7	4.9	7.0	7.7	2.8	1.4	0.6
	중	941	60.8	20.4	7.3	4.8	3.3	1.7	0.9	0.8
	하	550	54.9	22.4	13.5	2.5	2.2	2.9	0.9	0.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53.2	27.4	0.0	9.7	3.2	6.5	0.0	0.0
	중	864	59.7	21.5	7.1	4.9	3.7	1.6	0.7	0.8
	하	708	55.4	21.6	12.6	3.0	2.8	2.5	1.3	0.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50.8	23.4	11.3	4.8	6.5	3.2	0.0	0.0
	중	1,384	58.1	22.0	8.5	4.3	3.3	2.1	0.9	0.8
	하	126	58.7	17.5	14.3	3.2	0.8	2.4	1.6	1.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47.9	18.1	8.5	10.6	3.2	8.5	2.1	1.1
	없다	1,540	58.2	22.0	9.2	3.8	3.3	1.8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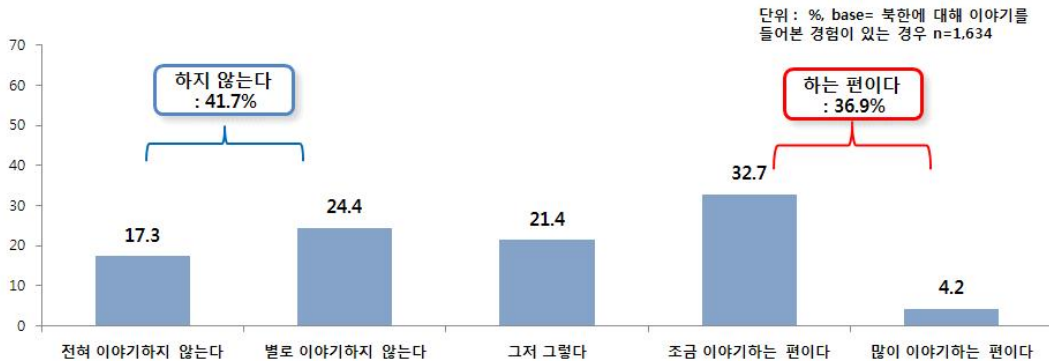
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

(1) 부모

하지 않는다 41.7% > 하는 편이다 36.9%

부모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7%(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7.3%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4.4%)로 가장 높고, ‘하는 편이다’ 36.9%(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32.7%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4.2%), ‘그저 그렇다’ 2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39.4%)이 여성(43.7%)보다 낮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4.8%), 종교별로는 무교(43.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58.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3.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63.5%),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42.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표 II-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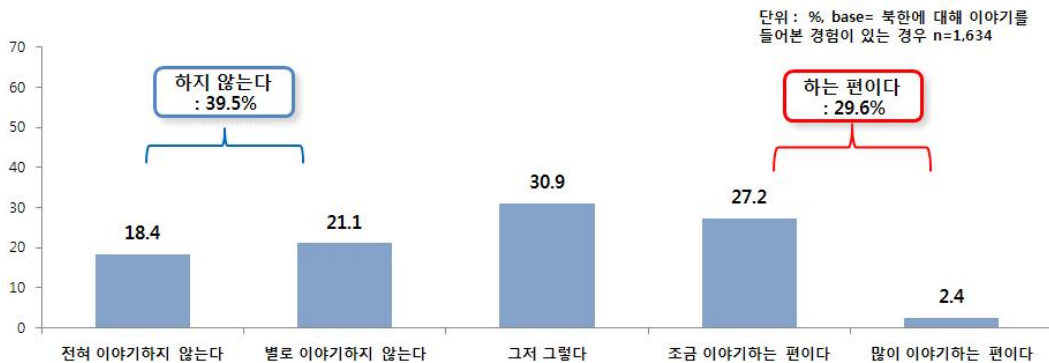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7.3	24.4	21.4	32.7	4.2	41.7	21.4	36.9
성별	남성	753	15.1	24.3	19.5	36.1	5.0	39.4	19.5	41.1
	여성	881	19.2	24.5	23.1	29.7	3.5	43.7	23.1	33.2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7.7	22.3	48.3	5.5	23.9	22.3	53.8
	중학교	577	16.8	26.2	19.4	33.3	4.3	43	19.4	37.6
	고등학교	587	26.7	28.1	22.5	19.6	3.1	54.8	22.5	22.7
종교	기독교	454	16.3	22.9	21.4	33.9	5.5	39.2	21.4	39.4
	불교	171	21.1	20.5	24.5	29.8	4.1	41.6	24.5	33.9
	가톨릭	119	14.3	23.5	17.7	39.5	5.0	37.8	17.7	44.5
	무교	876	17.5	26.3	21.1	31.7	3.4	43.8	21.1	35.1
	기타	14	21.4	14.3	28.6	28.6	7.1	35.7	28.6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3.9	21.1	20.5	39.9	4.6	35	20.5	44.5
	보통	442	21.0	31.9	22.9	20.6	3.6	52.9	22.9	24.2
	불만	130	32.3	26.2	23.8	14.6	3.1	58.5	23.8	17.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9.1	23.8	16.7	44.8	5.6	32.9	16.7	50.4
	중	941	12.8	23.4	22.2	37.8	3.8	36.2	22.2	41.6
	하	550	27.3	26.4	21.1	20.7	4.5	53.7	21.1	25.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6.5	16.1	22.6	43.5	11.3	22.6	22.6	54.8
	중	864	13.0	21.5	22.2	39.7	3.6	34.5	22.2	43.3
	하	708	23.6	28.7	20.1	23.2	4.4	52.3	20.1	27.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9.4	20.1	46.8	1.6	31.5	20.1	48.4
	중	1,384	15.6	25.1	22.5	32.5	4.3	40.7	22.5	36.8
	하	126	41.3	22.2	10.3	20.6	5.6	63.5	10.3	26.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1.7	14.9	21.2	42.6	9.6	26.6	21.2	52.2
	없다	1,540	17.7	25.0	21.3	32.1	3.9	42.7	21.3	36

(2) 학교선생님

하지 않는다 39.5% > 하는 편이다 29.6%

학교 선생님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5%(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8.4%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1.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9%, '하는 편이다' 29.6%(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27.2%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남성(31.5%)이 여성(28.1%)보다 높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5.1%)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33.9%),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8.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4.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표 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학교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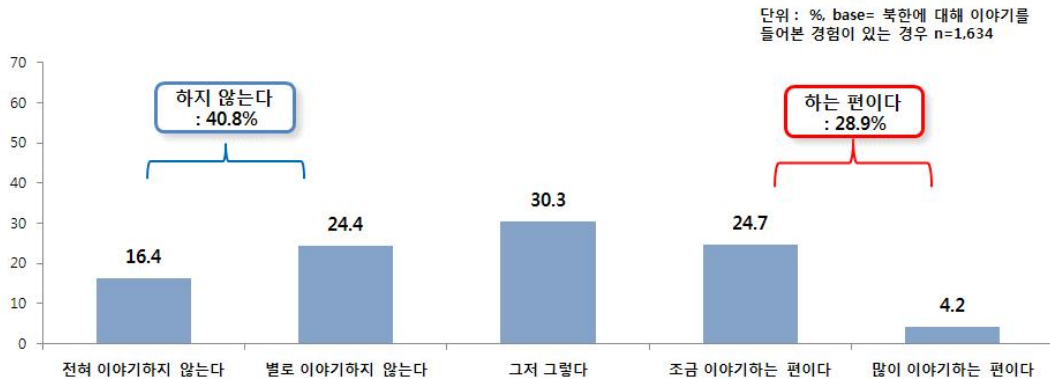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8.4	21.1	30.9	27.2	2.4	39.5	30.9	29.6
성별	남성	753	15.8	20.1	32.6	29.1	2.4	35.9	32.6	31.5
	여성	881	20.5	21.9	29.5	25.7	2.4	42.4	29.5	28.1
학교급	초등학교	470	6.2	12.1	36.6	41.5	3.6	18.3	36.6	45.1
	중학교	577	18.4	21.1	30.7	27.2	2.6	39.5	30.7	29.8
	고등학교	587	28.1	28.1	26.8	15.8	1.2	56.2	26.8	17.0
종교	기독교	454	15.6	18.3	33.3	30.2	2.6	33.9	33.3	32.8
	불교	171	18.7	18.1	29.8	32.2	1.2	36.8	29.8	33.4
	가톨릭	119	15.1	17.6	34.5	30.3	2.5	32.7	34.5	32.8
	무교	876	20.1	23.5	30.0	23.9	2.5	43.6	30.0	26.4
	기타	14	21.4	21.4	0.1	57.1	0.0	42.8	0.1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5.4	19.0	31.7	30.8	3.1	34.4	31.7	33.9
	보통	442	21.3	26.5	29.1	22.4	0.7	47.8	29.1	23.1
	불만	130	32.3	19.2	31.6	14.6	2.3	51.5	31.6	16.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11.2	16.1	34.2	32.2	6.3	27.3	34.2	38.5
	중	941	13.4	21.6	31.7	31.2	2.1	35.0	31.7	33.3
	하	550	28.7	21.5	28.9	19.1	1.8	50.2	28.9	2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8.1	11.3	33.8	46.8	0.0	19.4	33.8	46.8
	중	864	13.2	19.2	32.9	31.5	3.2	32.4	32.9	34.7
	하	708	25.6	24.2	28.3	20.3	1.6	49.8	28.3	21.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1	16.1	37.1	32.3	2.4	28.2	37.1	34.7
	중	1,384	17.8	21.5	30.1	28.1	2.5	39.3	30.1	30.6
	하	126	30.2	21.4	34.1	12.7	1.6	51.6	34.1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13.8	25.5	31.9	25.6	3.2	39.3	31.9	28.8
	없다	1,540	18.6	20.8	30.9	27.4	2.3	39.4	30.9	29.7

(3) 친구

하지 않는다 40.8% > 하는 편이다 28.9%

친구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16.4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4.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3%, '하는 편이다' 응답이 28.9%(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24.7%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40.5%)이 여성(41.1%)보다 낮았고, 중학교(41.8%)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 때(45.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4.4%), 이산가족이 있을 때(51.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표 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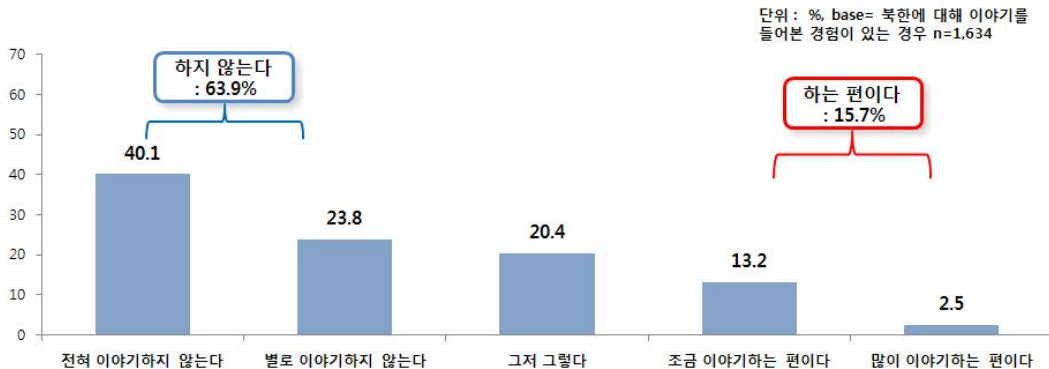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16.4	24.4	30.3	24.7	4.2	40.8	30.3	28.9
성별	남성	753	16.3	24.2	31.3	23.4	4.8	40.5	31.3	28.2
	여성	881	16.5	24.6	29.5	25.8	3.6	41.1	29.5	29.4
학교급	초등학교	470	14.5	26.4	35.9	20.6	2.6	40.9	35.9	23.2
	중학교	577	19.4	22.4	27.0	26.7	4.5	41.8	27.0	31.2
	고등학교	587	15.0	24.9	29.1	25.9	5.1	39.9	29.1	31.0
종교	기독교	454	16.3	25.1	31.3	23.1	4.2	41.4	31.3	27.3
	불교	171	18.1	26.9	26.9	24.0	4.1	45.0	26.9	28.1
	가톨릭	119	12.6	20.2	40.3	26.1	0.8	32.8	40.3	26.9
	무교	876	16.7	24.4	29.3	25.1	4.5	41.1	29.3	29.6
	기타	14	14.3	7.1	21.4	42.9	14.3	21.4	21.4	57.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15.4	24.1	30.9	25.3	4.3	39.5	30.9	29.6
	보통	442	17.2	25.3	32.2	22.4	2.9	42.5	32.2	25.3
	불만	130	21.5	23.8	20.9	26.9	6.9	45.3	20.9	33.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17.5	28.7	24.4	25.2	4.2	46.2	24.4	29.4
	중	941	14.3	26.4	32.8	23.6	2.9	40.7	32.8	26.5
	하	550	19.6	20.0	27.6	26.4	6.4	39.6	27.6	32.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16.1	30.6	17.8	25.8	9.7	46.7	17.8	35.5
	중	864	14.5	25.9	32.9	24.2	2.5	40.4	32.9	26.7
	하	708	18.8	22.0	28.5	25.1	5.6	40.8	28.5	3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12.9	29.0	27.5	28.2	2.4	41.9	27.5	30.6
	중	1,384	16.3	24.1	30.8	24.5	4.3	40.4	30.8	28.8
	하	126	20.6	23.8	28.6	23.0	4.0	44.4	28.6	2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21.3	29.8	24.4	21.3	3.2	51.1	24.4	24.5
	없다	1,540	16.1	24.1	30.7	24.9	4.2	40.2	30.7	29.1

(4)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하지 않는다 63.9% > 하는 편이다 15.7%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40.1% +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3.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0.4%, '하는 편이다' 15.7%(조금 이야기하는 편이다: 13.2% +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남성(58.7%)이 여성(68.3%)보다 낮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77.7%)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일 경우(69.4%),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일수록(74.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77.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3.8%), 그리고 이산가족이 없을 때(66.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표 II-7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_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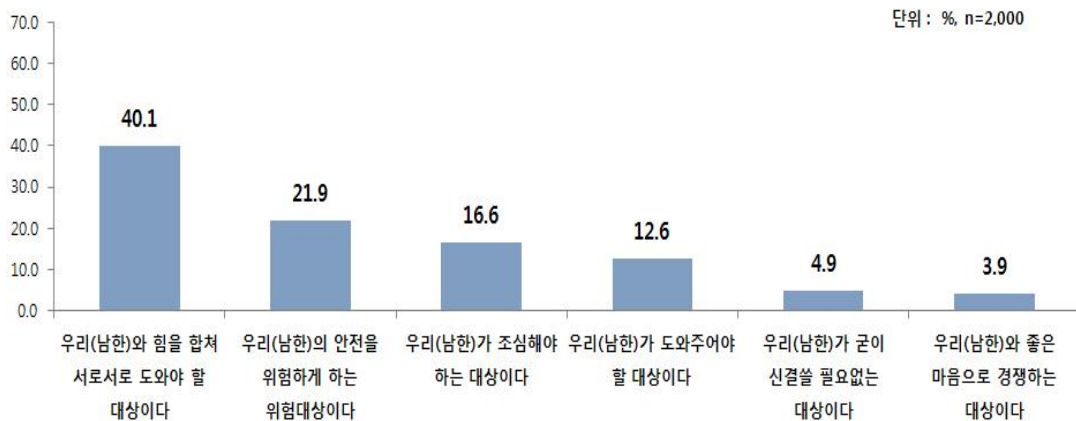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이야기 하는 편이다	많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하는 편이다*
전체		1,634	40.1	23.8	20.4	13.2	2.5	63.9	20.4	15.7
성별	남성	753	34.8	23.9	23.7	14.7	2.9	58.7	23.7	17.6
	여성	881	44.6	23.7	17.7	11.8	2.2	68.3	17.7	14.0
학교급	초등학교	470	23.0	25.5	28.1	21.1	2.3	48.5	28.1	23.4
	중학교	577	38.8	23.6	20.4	13.7	3.5	62.4	20.4	17.2
	고등학교	587	55.0	22.7	14.3	6.3	1.7	77.7	14.3	8.0
종교	기독교	454	32.4	26.2	21.4	17.6	2.4	58.6	21.4	20.0
	불교	171	42.1	16.4	19.8	16.4	5.3	58.5	19.8	21.7
	가톨릭	119	31.1	20.2	24.4	21.8	2.5	51.3	24.4	24.3
	무교	876	45.1	24.3	19.4	9.1	2.1	69.4	19.4	11.2
	기타	14	28.6	35.7	28.6	7.1	0.0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062	34.6	23.4	23.0	16.4	2.6	58.0	23.0	19.0
	보통	442	48.6	26.2	15.9	7.0	2.3	74.8	15.9	9.3
	불만	130	56.2	18.5	15.3	7.7	2.3	74.7	15.3	10.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3	30.1	25.9	23.0	16.1	4.9	56.0	23.0	21.0
	중	941	32.8	24.5	23.2	17.1	2.4	57.3	23.2	19.5
	하	550	55.1	22.0	15.3	5.6	2.0	77.1	15.3	7.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2	21.0	19.4	27.3	24.2	8.1	40.4	27.3	32.3
	중	864	31.9	24.3	23.4	17.4	3.0	56.2	23.4	20.4
	하	708	51.7	23.6	16.2	7.1	1.4	75.3	16.2	8.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24	26.6	20.2	31.4	19.4	2.4	46.8	31.4	21.8
	중	1,384	40.2	24.3	20.2	13.1	2.2	64.5	20.2	15.3
	하	126	52.4	21.4	12.7	7.9	5.6	73.8	12.7	13.5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7.4	16.0	22.3	44.7	9.6	23.4	22.3	54.3
	없다	1,540	42.1	24.3	20.3	11.2	2.1	66.4	20.3	13.3

4)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40.1% >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대상 21.9%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협대상’(21.9%), ‘조심해야하는 대상’(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42.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불만일 경우(41.4%),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경우(40.9%),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42.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6.8%)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표 II-8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

단위[%]		사례수(명)	우리(남한)와 힘을 합쳐 서로서로 도와야 할 대상이다	우리(남한)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 대상이다	우리(남한)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남한)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남한)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대상이다	우리(남한)와 좋은 마음으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전체		2,000	40.1	21.9	16.6	12.6	4.9	3.9
성별	남성	926	39.8	21.7	15.2	13.4	4.4	5.5
	여성	1,074	40.3	22.0	17.8	11.8	5.3	2.8
학교급	초등학교	564	37.6	20.6	16.3	17.6	2.0	5.9
	중학교	705	42.8	22.6	14.9	12.3	4.1	3.3
	고등학교	731	39.4	22.2	18.5	8.9	7.9	3.1
종교	기독교	535	41.1	18.7	16.1	16.4	2.1	5.6
	불교	200	34.0	22.5	17.0	12.5	9.0	5.0
	가톨릭	153	39.9	23.5	11.1	13.7	7.8	4.0
	무교	1,098	40.6	23.2	17.5	10.6	5.0	3.1
	기타	14	50.0	7.1	21.4	7.1	14.3	0.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0.9	21.9	14.2	14.7	3.3	5.0
	보통	552	37.9	22.3	20.7	10.0	6.9	2.2
	불만	162	41.4	20.4	21.6	4.3	10.5	1.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4.6	19.1	22.2	13.0	6.2	4.9
	중	1,177	40.9	22.3	14.6	13.3	4.5	4.4
	하	661	40.1	21.8	18.8	11.0	5.3	3.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42.9	20.8	9.1	22.1	2.6	2.5
	중	1,053	39.5	22.0	16.2	12.6	4.6	5.1
	하	870	40.6	21.7	17.7	11.6	5.5	2.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1.4	17.5	19.0	19.7	5.1	7.3
	중	1,709	40.2	22.1	16.1	12.8	4.9	3.9
	하	154	46.8	22.7	19.5	3.9	5.2	1.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0.8	21.4	15.5	12.6	1.0	8.7
	없다	1,897	40.1	21.9	16.7	12.5	5.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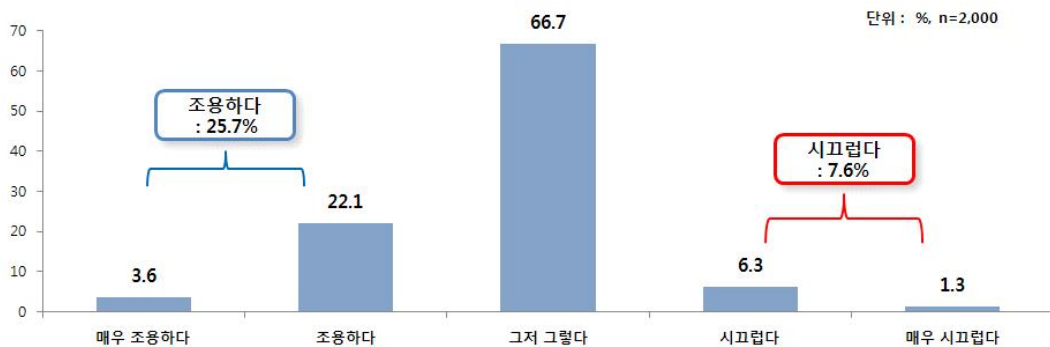
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1) 조용/시끄럽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조용하다' 25.7%

북한 청소년의 조용/시끄럽다에 대한 이미지로는 '조용하다' 25.7%(매우 조용하다: 3.6% + 조용하다: 22.1%), '시끄럽다' 7.6%(매우 시끄럽다: 1.3% + 시끄럽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7.0%)이 여성(24.4%)보다 '조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중학교(26.6%)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28.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9.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0.1%), 이산가족이 있을 때(37.9%) '조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표 II-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조용/시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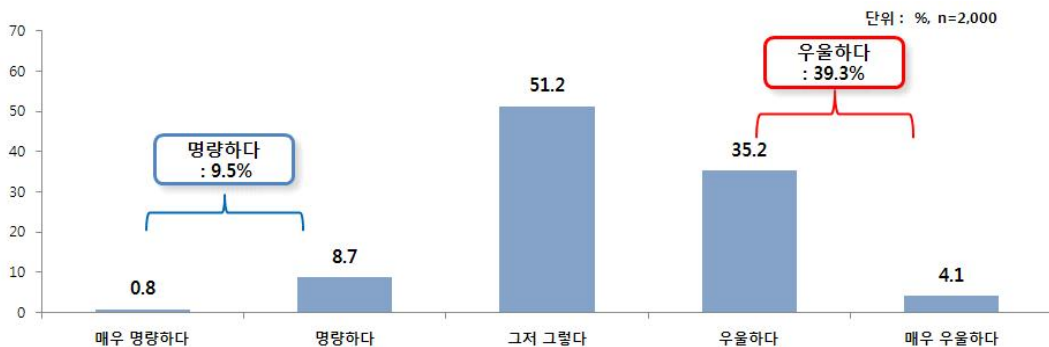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조용하다	조용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럽다	매우 시끄럽다	*조용 하다*	*그저 그렇다*	*시끄 럽다*
전체		2,000	3.6	22.1	66.7	6.3	1.3	25.7	66.7	7.6
성별	남성	926	3.5	23.5	64.4	7.2	1.4	27.0	64.4	8.6
	여성	1,074	3.6	20.8	68.9	5.5	1.2	24.4	68.9	6.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9	22.3	63.5	8.9	1.4	26.2	63.5	10.3
	중학교	705	4.0	22.6	66.2	5.8	1.4	26.6	66.2	7.2
	고등학교	731	2.9	21.3	69.9	4.8	1.1	24.2	69.9	5.9
종교	기독교	535	3.2	25.2	64.0	6.7	0.9	28.4	64.0	7.6
	불교	200	4.5	22.5	62.5	8.5	2.0	27.0	62.5	10.5
	가톨릭	153	5.2	20.9	60.2	11.1	2.6	26.1	60.2	13.7
	무교	1,098	3.2	20.7	69.9	5.1	1.1	23.9	69.9	6.2
	기타	14	14.3	14.3	64.3	0.0	7.1	28.6	64.3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8	24.2	64.8	6.3	0.9	28.0	64.8	7.2
	보통	552	3.3	18.5	69.3	6.9	2.0	21.8	69.3	8.9
	불만	162	2.5	17.3	73.4	4.3	2.5	19.8	73.4	6.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21.0	62.4	8.0	0.6	29.0	62.4	8.6
	중	1,177	2.9	23.7	65.5	6.5	1.4	26.6	65.5	7.9
	하	661	3.6	19.4	70.4	5.4	1.2	23.0	70.4	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7.3	54.5	5.2	1.3	39.0	54.5	6.5
	중	1,053	2.8	22.7	66.7	6.8	1.0	25.5	66.7	7.8
	하	870	3.8	20.8	68.1	5.7	1.6	24.6	68.1	7.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32.1	55.6	3.6	0.7	40.1	55.6	4.3
	중	1,709	3.2	21.4	67.4	6.8	1.2	24.6	67.4	8.0
	하	154	3.9	20.8	68.9	3.2	3.2	24.7	68.9	6.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31.1	59.2	2.9	0.0	37.9	59.2	2.9
	없다	1,897	3.4	21.6	67.1	6.5	1.4	25.0	67.1	7.9

(2) 명랑/우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우울하다' 39.3%

북한 청소년의 명랑/우울에 대한 이미지로는 '우울하다' 39.3%(매우 우울하다: 4.1% + 우울하다: 35.2%), '그저 그렇다' 51.2%, '명랑하다' 9.5%(매우 명랑하다: 0.8% + 명랑하다: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9.6%)이 여성(39.0%) 보다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교(47.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42.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수록(4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1.6%), 이산가족이 없을 때(39.4%) '우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표 II-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명랑/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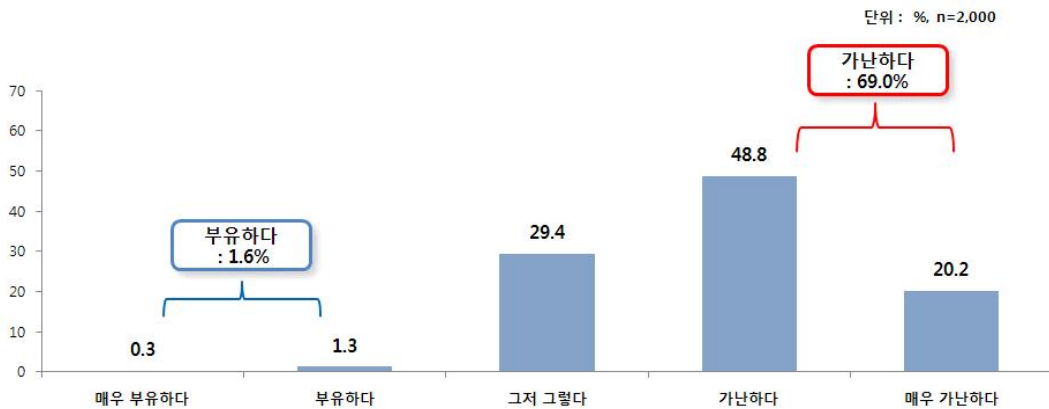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명랑하다	명랑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하다	매우 우울하다	*명랑 하다*	*그저 그렇다*	*우울 하다*
전체		2,000	0.8	8.7	51.2	35.2	4.1	9.5	51.2	39.3
성별	남성	926	0.8	8.3	51.3	35.6	4.0	9.1	51.3	39.6
	여성	1,074	0.7	9.0	51.3	34.8	4.2	9.7	51.3	39.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	5.7	45.7	42.4	5.1	6.8	45.7	47.5
	중학교	705	1.1	10.9	50.3	34.6	3.1	12.0	50.3	37.7
	고등학교	731	0.1	8.9	56.6	30.2	4.2	9.0	56.6	34.4
종교	기독교	535	1.3	11.4	47.7	36.8	2.8	12.7	47.7	39.6
	불교	200	0.0	6.5	47.0	38.0	8.5	6.5	47.0	46.5
	가톨릭	153	1.3	6.5	49.0	38.6	4.6	7.8	49.0	43.2
	무교	1,098	0.5	8.1	54.0	33.7	3.7	8.6	54.0	37.4
	기타	14	0.0	7.1	64.3	14.3	14.3	7.1	64.3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9	9.6	47.5	38.2	3.8	10.5	47.5	42.0
	보통	552	0.5	6.7	57.6	31.2	4.0	7.2	57.6	35.2
	불만	162	0.0	8.6	59.3	25.3	6.8	8.6	59.3	32.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8.6	48.2	39.5	2.5	9.8	48.2	42.0
	중	1,177	0.7	6.6	50.5	38.1	4.1	7.3	50.5	42.2
	하	661	0.8	12.4	53.3	29.0	4.5	13.2	53.3	33.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6.5	40.2	41.6	9.1	9.1	40.2	50.7
	중	1,053	0.8	7.5	49.2	38.7	3.8	8.3	49.2	42.5
	하	870	0.6	10.3	54.8	30.3	4.0	10.9	54.8	34.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4.6	43.1	33.6	8.0	15.3	43.1	41.6
	중	1,709	0.8	8.2	51.3	35.8	3.9	9.0	51.3	39.7
	하	154	0.6	9.1	57.8	29.9	2.6	9.7	57.8	32.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3.6	44.7	35.9	2.9	16.5	44.7	38.8
	없다	1,897	0.6	8.4	51.6	35.2	4.2	9.0	51.6	39.4

(3) 부유/가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가난하다' 69.0%

북한 청소년의 부유/가난에 대한 이미지로는, '가난하다'가 69.0%(매우 가난하다: 20.2% + 가난하다: 48.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9.4%, '부유하다' 1.6%(매우 부유하다: 0.3% + 부유하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1.3%)이 남성(66.2%)보다 '가난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1.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5.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2.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표 II-1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부유/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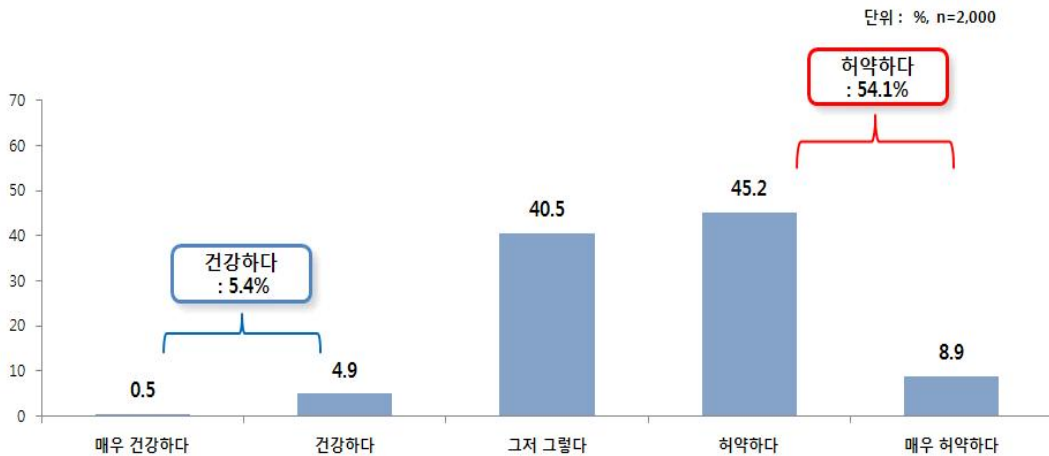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부유 하다*	*그저 그렇다*	*가난 하다*
전체		2,000	0.3	1.3	29.4	48.8	20.2	1.6	29.4	69.0
성별	남성	926	0.4	2.3	31.1	47.3	18.9	2.7	31.1	66.2
	여성	1,074	0.1	0.5	28.1	50.1	21.2	0.6	28.1	71.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1.4	24.7	48.0	25.7	1.6	24.7	73.7
	중학교	705	0.3	1.4	29.7	49.9	18.7	1.7	29.7	68.6
	고등학교	731	0.3	1.1	33.1	48.3	17.2	1.4	33.1	65.5
종교	기독교	535	0.7	2.4	27.5	49.2	20.2	3.1	27.5	69.4
	불교	200	0.0	1.0	28.0	45.0	26.0	1.0	28.0	71.0
	가톨릭	153	0.0	2.0	24.8	51.0	22.2	2.0	24.8	73.2
	무교	1,098	0.1	0.7	31.5	49.1	18.6	0.8	31.5	67.7
	기타	14	0.0	0.0	21.4	42.9	35.7	0.0	21.4	7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4	1.6	26.3	49.8	21.9	2.0	26.3	71.7
	보통	552	0.0	1.1	36.2	45.7	17.0	1.1	36.2	62.7
	불만	162	0.0	0.0	32.1	51.2	16.7	0.0	32.1	67.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0	1.2	23.4	51.9	23.5	1.2	23.4	75.4
	중	1,177	0.3	1.4	28.3	49.8	20.2	1.7	28.3	70.0
	하	661	0.3	1.2	33.0	46.3	19.2	1.5	33.0	65.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2.6	15.6	54.5	27.3	2.6	15.6	81.8
	중	1,053	0.3	1.5	28.1	49.9	20.2	1.8	28.1	70.1
	하	870	0.2	0.9	32.5	47.0	19.4	1.1	32.5	66.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1.5	24.7	43.1	29.2	3.0	24.7	72.3
	중	1,709	0.2	1.3	29.7	49.3	19.5	1.5	29.7	68.8
	하	154	0.0	1.3	31.1	48.1	19.5	1.3	31.1	67.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9.7	21.3	46.6	21.4	10.7	21.3	68.0
	없다	1,897	0.2	0.8	30.0	48.9	20.1	1.0	30.0	69.0

(4) 건강/허약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허약하다' 54.1%

북한 청소년의 건강/허약에 대한 이미지로는, '허약하다'가 54.1%(매우 허약하다: 8.9% + 허약하다: 45.2%)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40.5%, '건강하다' 5.4%(매우 건강하다: 0.5% + 건강하다: 4.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7.7%)이 남성(49.8%)보다 '허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8.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56.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1.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60.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I】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표 II-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건강/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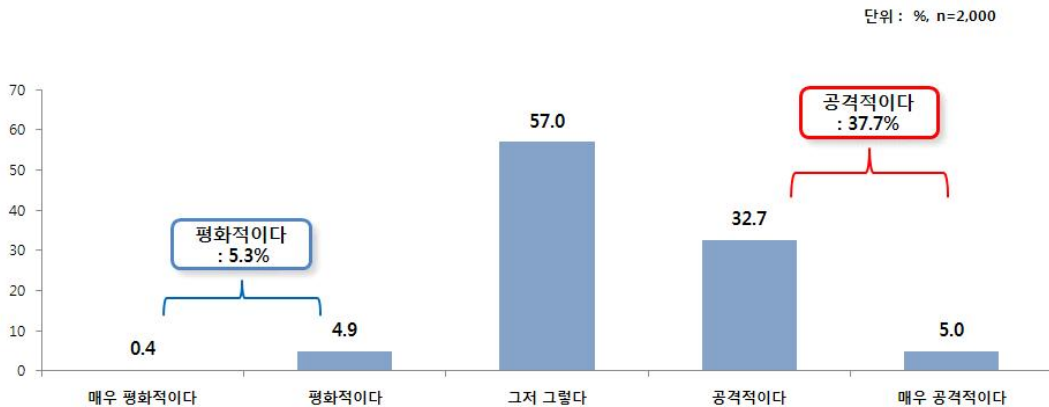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하다	매우 허약하다	*건강 하다*	*그저 그렇다*	*허약 하다*
전체		2,000	0.5	4.9	40.5	45.2	8.9	5.4	40.5	54.1
성별	남성	926	0.8	5.6	43.8	41.4	8.4	6.4	43.8	49.8
	여성	1,074	0.2	4.3	37.8	48.4	9.3	4.5	37.8	57.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3.7	37.1	48.0	10.5	4.4	37.1	58.5
	중학교	705	0.3	6.5	41.0	43.4	8.8	6.8	41.0	52.2
	고등학교	731	0.4	4.2	43.0	44.6	7.8	4.6	43.0	52.4
종교	기독교	535	0.9	6.0	36.5	47.1	9.5	6.9	36.5	56.6
	불교	200	0.5	4.5	31.5	53.5	10.0	5.0	31.5	63.5
	가톨릭	153	0.7	9.2	41.7	37.9	10.5	9.9	41.7	48.4
	무교	1,098	0.2	3.8	44.3	43.6	8.1	4.0	44.3	51.7
	기타	14	0.0	7.1	28.6	50.0	14.3	7.1	28.6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6	4.8	38.0	47.4	9.2	5.4	38.0	56.6
	보통	552	0.2	4.7	46.0	41.1	8.0	4.9	46.0	49.1
	불만	162	0.0	6.2	42.5	41.4	9.9	6.2	42.5	51.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3.7	34.0	50.6	11.1	4.3	34.0	61.7
	중	1,177	0.3	4.2	40.6	46.6	8.3	4.5	40.6	54.9
	하	661	0.8	6.4	42.3	41.1	9.4	7.2	42.3	50.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0.0	37.6	45.5	14.3	2.6	37.6	59.8
	중	1,053	0.2	4.5	39.5	47.6	8.2	4.7	39.5	55.8
	하	870	0.6	5.9	42.0	42.2	9.3	6.5	42.0	51.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5.1	37.2	41.6	16.1	5.1	37.2	57.7
	중	1,709	0.5	5.2	41.1	44.9	8.3	5.7	41.1	53.2
	하	154	0.6	1.3	37.7	51.3	9.1	1.9	37.7	60.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8.7	31.1	46.6	10.7	11.6	31.1	57.3
	없다	1,897	0.3	4.7	41.1	45.1	8.8	5.0	41.1	53.9

(5) 평화/공격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공격적이다' 37.7%

북한 청소년의 평화/공격에 대한 이미지로는 '그저 그렇다' 57.0%, '공격적이다' 37.7%(매우 공격적이다: 5.0% + 공격적이다: 32.7%), '평화적이다' 5.3%(매우 평화적이다: 0.4% + 평화적이다: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9.0%)이 남성(54.7%)보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65.7%)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무교일 때 (59.4%) 높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9.8%),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일 때(57.5%), 이산가족이 없을 때(57.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표 II-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평화/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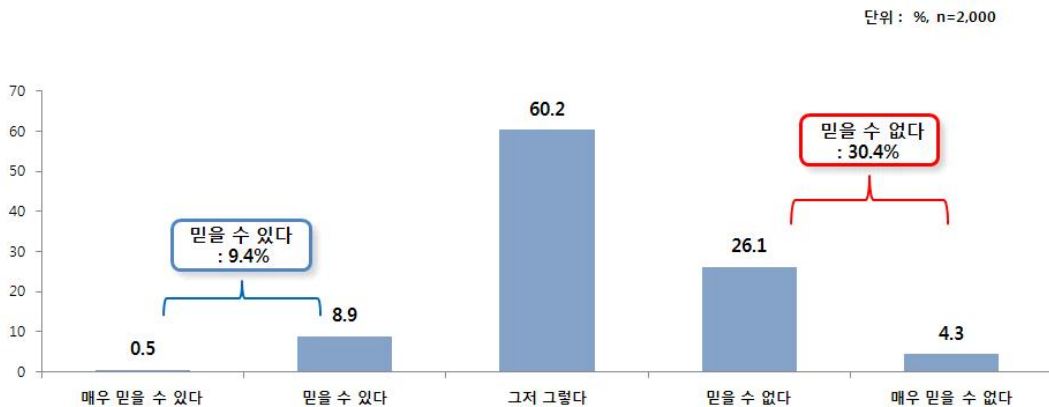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평화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매우 공격적 이다	*평화적 이다*	*그저 그렇다*	*공격적 이다*
전체		2,000	0.4	4.9	57.0	32.7	5.0	5.3	57.0	37.7
성별	남성	926	0.5	4.8	54.7	35.0	5.0	5.3	54.7	40.0
	여성	1,074	0.3	5.0	59.0	30.7	5.0	5.3	59.0	35.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2.3	45.6	45.7	6.0	2.7	45.6	51.7
	중학교	705	0.4	4.5	57.2	32.5	5.4	4.9	57.2	37.9
	고등학교	731	0.4	7.3	65.7	22.8	3.8	7.7	65.7	26.6
종교	기독교	535	0.4	6.2	54.9	33.5	5.0	6.6	54.9	38.5
	불교	200	0.5	5.5	55.0	34.0	5.0	6.0	55.0	39.0
	가톨릭	153	1.3	1.3	49.7	39.9	7.8	2.6	49.7	47.7
	무교	1,098	0.3	4.6	59.4	31.1	4.6	4.9	59.4	35.7
	기타	14	0.0	7.1	57.2	28.6	7.1	7.1	57.2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4	5.5	54.1	35.1	4.9	5.9	54.1	40.0
	보통	552	0.5	3.4	62.4	28.6	5.1	3.9	62.4	33.7
	불만	162	0.0	4.9	62.3	27.2	5.6	4.9	62.3	3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3.1	49.4	37.7	8.6	4.3	49.4	46.3
	중	1,177	0.3	3.4	56.5	34.6	5.2	3.7	56.5	39.8
	하	661	0.3	8.0	59.8	28.1	3.8	8.3	59.8	31.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45.4	40.3	10.4	3.9	45.4	50.7
	중	1,053	0.4	3.7	53.2	37.8	4.9	4.1	53.2	42.7
	하	870	0.3	6.6	62.6	25.9	4.6	6.9	62.6	30.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1.5	52.5	38.7	6.6	2.2	52.5	45.3
	중	1,709	0.4	4.9	57.5	32.5	4.7	5.3	57.5	37.2
	하	154	0.0	7.8	56.5	29.2	6.5	7.8	56.5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50.5	34.0	6.8	8.7	50.5	40.8
	없다	1,897	0.3	4.8	57.4	32.6	4.9	5.1	57.4	37.5

(6) 믿음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믿을 수 없다' 30.4%

북한 청소년의 믿음에 대한 이미지로는, '믿을 수 없다' 30.4%(매우 믿을 수 없다: 4.3% + 믿을 수 없다: 26.1%), '믿을 수 있다' 9.4%(매우 믿을 수 있다: 0.5% + 믿을 수 있다: 8.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63.0%), 종교는 가톨릭일 때(65.9%)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일 때(64.3%),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60.6%), 이산가족이 없을 때(60.9%)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표 II-14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_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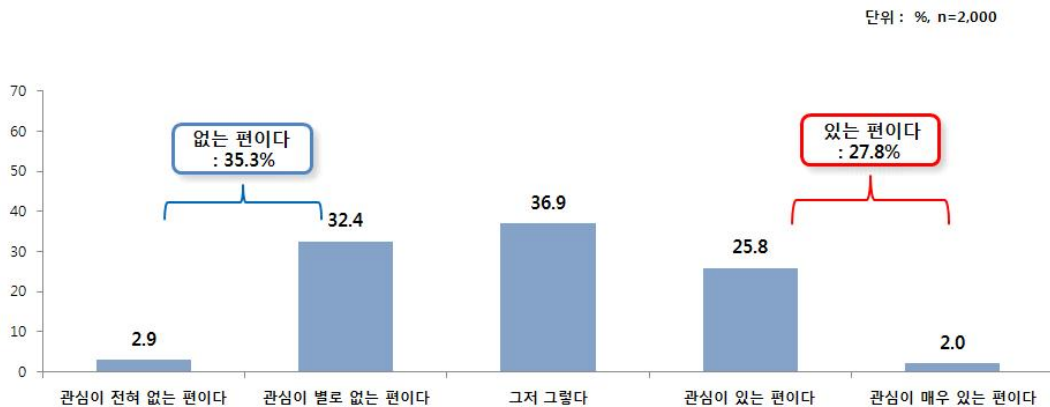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그저 그렇다*	*매우 믿을 수 없다*
전체		2,000	0.5	8.9	60.2	26.1	4.3	9.4	60.2	30.4
성별	남성	926	0.8	8.9	60.3	25.8	4.2	9.7	60.3	30.0
	여성	1,074	0.3	8.9	60.1	26.4	4.3	9.2	60.1	3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5.9	55.4	33.7	4.8	6.1	55.4	38.5
	중학교	705	0.7	10.2	61.2	24.5	3.4	10.9	61.2	27.9
	고등학교	731	0.5	10.0	63.0	21.8	4.7	10.5	63.0	26.5
종교	기독교	535	0.7	12.0	54.3	29.3	3.7	12.7	54.3	33.0
	불교	200	0.5	10.5	54.5	30.0	4.5	11.0	54.5	34.5
	가톨릭	153	0.7	2.0	65.9	28.8	2.6	2.7	65.9	31.4
	무교	1,098	0.4	8.1	63.4	23.5	4.6	8.5	63.4	28.1
	기타	14	0.0	7.1	57.2	21.4	14.3	7.1	57.2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9.4	58.6	27.4	4.1	9.9	58.6	31.5
	보통	552	0.2	8.0	64.3	23.7	3.8	8.2	64.3	27.5
	불만	162	1.9	8.0	59.2	24.1	6.8	9.9	59.2	3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9.3	59.2	24.1	6.2	10.5	59.2	30.3
	중	1,177	0.3	7.1	60.6	28.3	3.7	7.4	60.6	32.0
	하	661	0.8	12.0	59.8	22.7	4.7	12.8	59.8	2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0.0	13.0	53.2	27.3	6.5	13.0	53.2	33.8
	중	1,053	0.4	6.6	59.5	29.2	4.3	7.0	59.5	33.5
	하	870	0.7	11.3	61.8	22.2	4.0	12.0	61.8	26.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0	10.9	58.5	27.0	3.6	10.9	58.5	30.6
	중	1,709	0.5	8.8	60.6	26.1	4.0	9.3	60.6	30.1
	하	154	0.6	7.8	59.2	25.3	7.1	8.4	59.2	32.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2.6	47.5	35.0	3.9	13.6	47.5	38.9
	없다	1,897	0.5	8.7	60.9	25.6	4.3	9.2	60.9	29.9

6)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없는 편이다 35.3% > 있는 편이다 27.8%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 35.3%(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2.9% +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32.4%), ‘있는 편이다’ 27.8%(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2.0% + 관심이 있는 편이다: 25.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6%)이 여성(35.0%) 보다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9.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2.2%), 이산가족이 있을 때(39.8%)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4】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표 II-15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사례수 (명)	관심이 전혀 없는 편이다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있는 편이다*
전체		2,000	2.9	32.4	36.9	25.8	2.0	35.3	36.9	27.8
성별	남성	926	2.9	32.7	37.6	24.1	2.7	35.6	37.6	26.8
	여성	1,074	2.9	32.1	36.3	27.3	1.4	35.0	36.3	28.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37.1	39.3	19.9	1.6	39.2	39.3	21.5
	중학교	705	3.3	31.2	36.8	27.0	1.7	34.5	36.8	28.7
	고등학교	731	3.1	30.0	35.0	29.3	2.6	33.1	35.0	31.9
종교	기독교	535	2.8	29.3	35.6	29.3	3.0	32.1	35.6	32.3
	불교	200	2.5	33.0	38.5	24.5	1.5	35.5	38.5	26.0
	가톨릭	153	3.9	36.6	38.5	20.3	0.7	40.5	38.5	21.0
	무교	1,098	2.8	33.3	37.6	24.5	1.8	36.1	37.6	26.3
	기타	14	7.1	21.4	0.1	71.4	0.0	28.5	0.1	7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1	32.3	36.3	27.4	1.9	34.4	36.3	29.3
	보통	552	3.4	33.7	38.5	22.6	1.8	37.1	38.5	24.4
	불만	162	7.4	28.4	37.0	23.5	3.7	35.8	37.0	27.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37.0	33.4	21.6	4.9	40.1	33.4	26.5
	중	1,177	3.1	32.9	38.3	24.7	1.0	36.0	38.3	25.7
	하	661	2.4	30.4	35.5	28.7	3.0	32.8	35.5	31.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45.5	19.4	27.3	3.9	49.4	19.4	31.2
	중	1,053	2.6	33.6	39.3	22.8	1.7	36.2	39.3	24.5
	하	870	3.2	29.8	35.5	29.3	2.2	33.0	35.5	31.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26.3	40.8	26.3	5.1	27.8	40.8	31.4
	중	1,709	2.9	32.4	36.8	26.3	1.6	35.3	36.8	27.9
	하	154	3.9	38.3	33.8	20.1	3.9	42.2	33.8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37.9	29.1	28.2	2.9	39.8	29.1	31.1
	없다	1,897	3.0	32.1	37.2	25.7	2.0	35.1	37.2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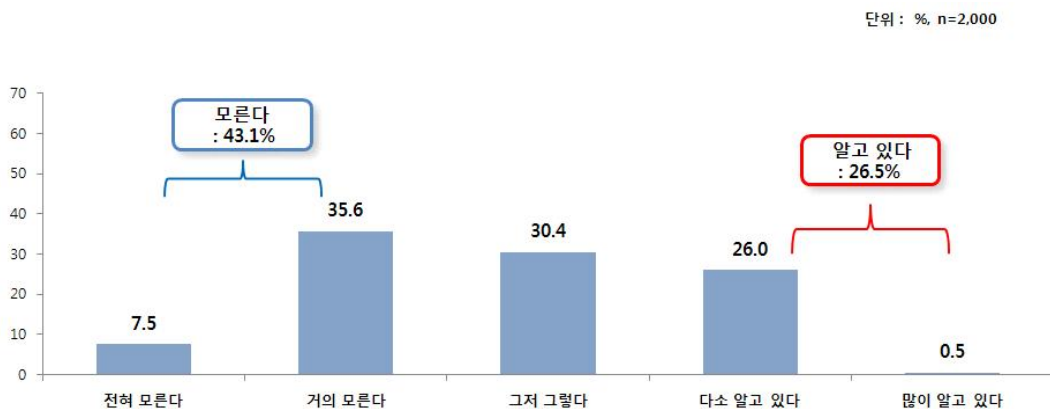
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1) 언어

모른다 43.1% > 알고 있다 26.5%

북한의 언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3.1%(전혀 모른다: 7.5% + 거의 모른다: 35.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0.4%, '알고 있다' 26.5%(많이 알고 있다: 0.5% + 다소 알고 있다: 26.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8.2%)이 여성(38.7%)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5.7%),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 (52.3%)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4.0%),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47.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 중간일 때(43.5%), 이산가족이 있을 때(45.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5】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표 II-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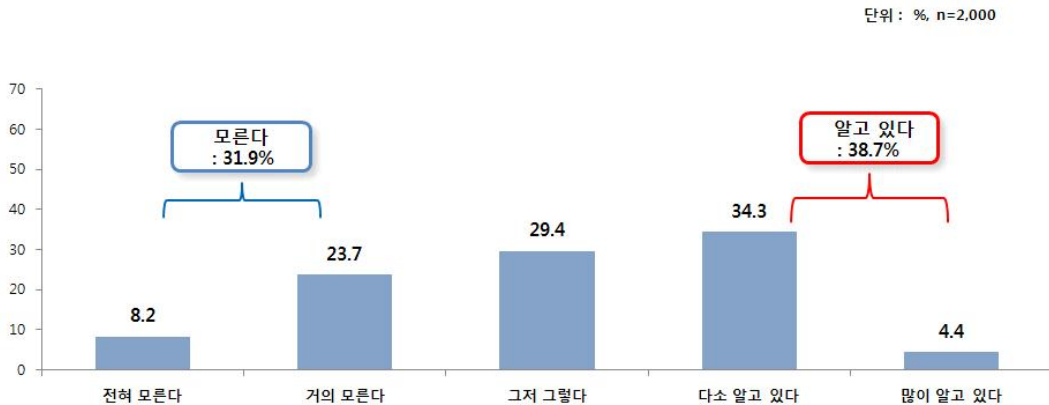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5	35.6	30.4	26.0	0.5	43.1	30.4	26.5
성별	남성	926	7.6	40.6	31.2	20.1	0.5	48.2	31.2	20.6
	여성	1,074	7.4	31.3	29.8	31.0	0.5	38.7	29.8	31.5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45.9	31.0	12.8	0.5	55.7	31.0	13.3
	중학교	705	6.7	34.9	30.7	27.4	0.3	41.6	30.7	27.7
	고등학교	731	6.4	28.3	29.9	34.7	0.7	34.7	29.9	35.4
종교	기독교	535	6.4	35.9	32.5	24.5	0.7	42.3	32.5	25.2
	불교	200	9.5	29.5	33.5	27.0	0.5	39.0	33.5	27.5
	가톨릭	153	11.1	41.2	22.9	24.8	0.0	52.3	22.9	24.8
	무교	1,098	7.1	35.8	30.3	26.3	0.5	42.9	30.3	26.8
	기타	14	7.1	35.7	7.2	50.0	0.0	42.8	7.2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2	36.8	29.2	26.4	0.4	44.0	29.2	26.8
	보통	552	7.8	35.7	32.0	23.6	0.9	43.5	32.0	24.5
	불만	162	8.0	25.9	35.9	30.2	0.0	33.9	35.9	30.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34.6	34.6	22.2	0.6	42.6	34.6	22.8
	중	1,177	8.3	38.9	28.9	23.4	0.5	47.2	28.9	23.9
	하	661	5.7	30.0	32.5	31.3	0.5	35.7	32.5	31.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9.1	37.7	32.4	20.8	0.0	46.8	32.4	20.8
	중	1,053	7.8	40.5	28.2	23.1	0.4	48.3	28.2	23.5
	하	870	6.9	29.5	33.0	29.9	0.7	36.4	33.0	3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0.7	32.8	29.9	0.0	37.3	32.8	29.9
	중	1,709	6.9	36.6	30.7	25.3	0.5	43.5	30.7	25.8
	하	154	14.3	29.2	26.0	29.2	1.3	43.5	26.0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40.8	31.9	21.4	1.0	45.7	31.9	22.4
	없다	1,897	7.6	35.3	30.4	26.2	0.5	42.9	30.4	26.7

(2) 정치

알고 있다 38.7% > 모른다 31.9%

북한의 정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8.7%(많이 알고 있다: 4.4% + 다소 알고 있다: 34.3%)로 가장 높고, '모른다' 31.9%(전혀 모른다: 8.2% + 거의 모른다: 23.7%), '그저 그렇다' 29.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9.2%)로 남성(37.9%)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45.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 때(40.3%),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 때(43.6%),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9.4%), 이산가족이 있을 때(48.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6】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표 II-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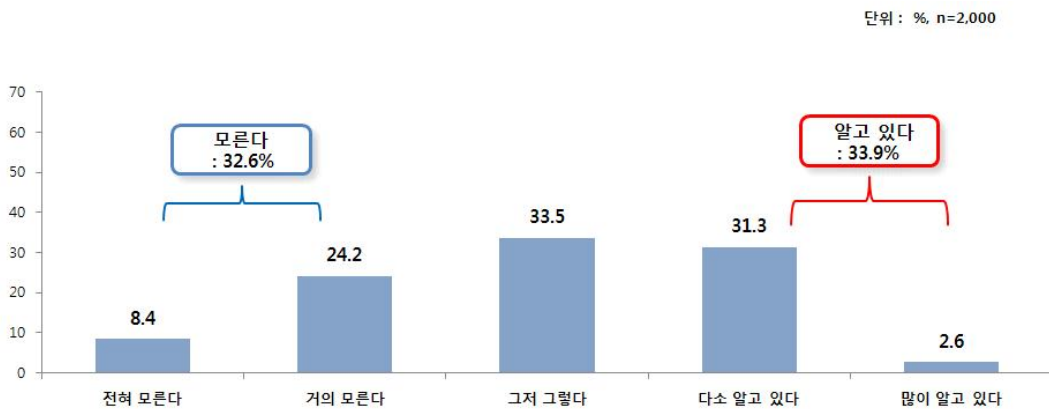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2	23.7	29.4	34.3	4.4	31.9	29.4	38.7
성별	남성	926	8.6	25.1	28.4	33.6	4.3	33.7	28.4	37.9
	여성	1,074	7.7	22.4	30.7	34.8	4.4	30.1	30.7	39.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4	33.2	30.8	25.4	1.2	42.6	30.8	26.6
	중학교	705	9.2	22.6	26.7	36.5	5.0	31.8	26.7	41.5
	고등학교	731	6.2	17.4	31.2	39.0	6.2	23.6	31.2	45.2
종교	기독교	535	7.3	22.2	31.7	33.6	5.2	29.5	31.7	38.8
	불교	200	9.5	26.5	28.5	32.0	3.5	36.0	28.5	35.5
	가톨릭	153	5.2	32.0	26.8	35.3	0.7	37.2	26.8	36.0
	무교	1,098	8.6	23.0	28.9	34.9	4.6	31.6	28.9	39.5
	기타	14	21.4	0.0	42.9	28.6	7.1	21.4	42.9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0	24.9	26.8	35.8	4.5	32.9	26.8	40.3
	보통	552	7.6	23.2	34.4	31.7	3.1	30.8	34.4	34.8
	불만	162	11.1	15.4	35.2	30.9	7.4	26.5	35.2	38.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5.6	29.0	27.1	34.6	3.7	34.6	27.1	38.3
	중	1,177	8.3	25.7	30.1	31.8	4.1	34.0	30.1	35.9
	하	661	8.5	18.8	29.1	38.6	5.0	27.3	29.1	4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27.3	27.2	31.2	10.4	31.2	27.2	41.6
	중	1,053	8.7	27.4	29.5	30.6	3.8	36.1	29.5	34.4
	하	870	7.8	18.9	29.8	39.0	4.5	26.7	29.8	4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3	20.4	30.0	34.3	8.0	27.7	30.0	42.3
	중	1,709	7.5	24.5	30.7	33.6	3.7	32.0	30.7	37.3
	하	154	15.6	16.9	18.1	41.6	7.8	32.5	18.1	49.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0.4	26.2	45.6	2.9	25.3	26.2	48.5
	없다	1,897	8.3	23.8	29.9	33.6	4.4	32.1	29.9	38.0

(3) 사회 특성

알고 있다 33.9% > 모른다 32.6%

북한의 사회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3.9%(많이 알고 있다: 2.6% + 다소 알고 있다: 31.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3.5%, ‘모른다’ 32.6%(전혀 모른다: 8.4% + 거의 모른다: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4.5%)이 여성(33.2%)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8.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34.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37.0%), 이산가족이 있을 때(41.8%)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7】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표 II-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사회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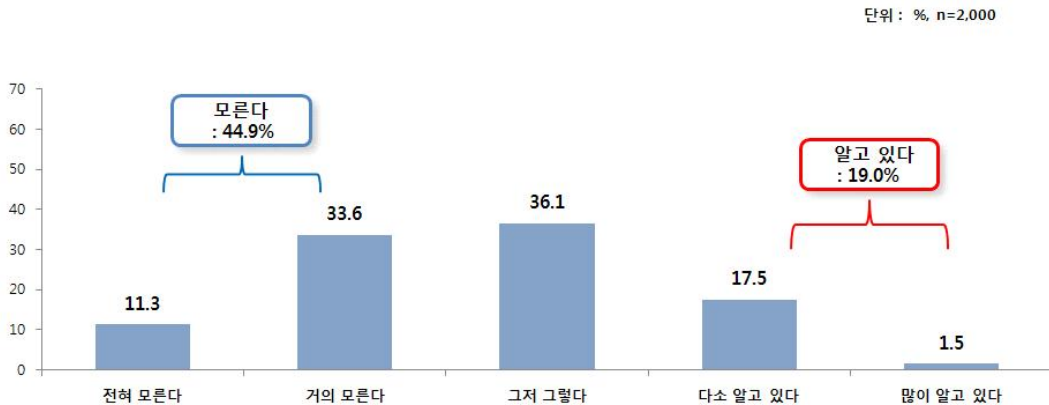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8.4	24.2	33.5	31.3	2.6	32.6	33.5	33.9
성별	남성	926	9.0	24.5	32.0	31.2	3.3	33.5	32.0	34.5
	여성	1,074	7.8	23.8	35.2	31.3	1.9	31.6	35.2	33.2
학교급	초등학교	564	9.8	32.8	31.2	25.0	1.2	42.6	31.2	26.2
	중학교	705	8.2	23.5	32.8	32.5	3.0	31.7	32.8	35.5
	고등학교	731	7.4	18.1	36.5	34.9	3.1	25.5	36.5	38.0
종교	기독교	535	6.5	23.7	32.1	34.0	3.7	30.2	32.1	37.7
	불교	200	12.5	21.0	34.0	31.0	1.5	33.5	34.0	32.5
	가톨릭	153	5.2	34.0	31.3	28.8	0.7	39.2	31.3	29.5
	무교	1,098	8.9	23.8	34.7	30.1	2.5	32.7	34.7	32.6
	기타	14	7.1	7.1	42.9	42.9	0.0	14.2	42.9	42.9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2	25.0	31.9	32.0	2.9	33.2	31.9	34.9
	보통	552	7.4	23.0	37.9	30.6	1.1	30.4	37.9	31.7
	불만	162	12.3	21.0	34.6	27.2	4.9	33.3	34.6	32.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31.5	30.2	27.8	3.7	38.3	30.2	31.5
	중	1,177	8.2	25.0	34.3	30.2	2.3	33.2	34.3	32.5
	하	661	9.1	20.9	33.3	34.0	2.7	30.0	33.3	36.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35.1	24.6	29.9	5.2	40.3	24.6	35.1
	중	1,053	8.8	24.7	33.9	30.2	2.4	33.5	33.9	32.6
	하	870	8.0	22.5	34.4	32.6	2.5	30.5	34.4	35.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24.8	34.3	28.5	3.6	33.6	34.3	32.1
	중	1,709	7.5	24.7	34.1	31.5	2.2	32.2	34.1	33.7
	하	154	17.5	17.5	28.0	31.2	5.8	35.0	28.0	37.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3.3	30.0	34.0	7.8	28.2	30.0	41.8
	없다	1,897	8.5	24.2	33.9	31.1	2.3	32.7	33.9	33.4

(4) 주민들의 생각

모른다 44.9% > 알고 있다 19.0%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4.9%(전혀 모른다: 11.3% + 거의 모른다: 33.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6.1%, ‘알고 있다’ 19.0%(많이 알고 있다: 1.5% + 다소 알고 있다: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6%)이 여성(43.4%)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2.6%),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49.7%)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6.2%),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9.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0.0%), 이산가족이 없을 때(45.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8】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표 II-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주민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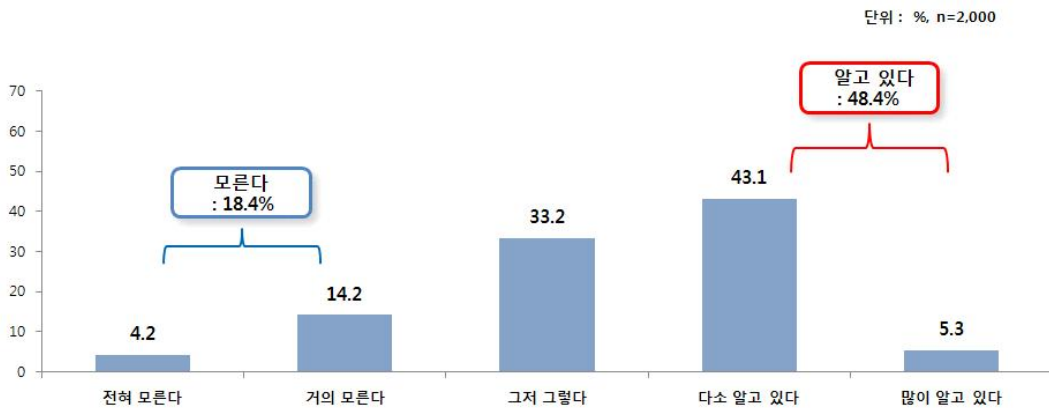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1.3	33.6	36.1	17.5	1.5	44.9	36.1	19.0
성별	남성	926	10.2	36.4	36.7	15.1	1.6	46.6	36.7	16.7
	여성	1,074	12.2	31.2	35.8	19.5	1.3	43.4	35.8	20.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3	41.3	34.8	11.7	0.9	52.6	34.8	12.6
	중학교	705	11.6	31.9	37.2	18.3	1.0	43.5	37.2	19.3
	고등학교	731	10.8	29.3	36.5	21.1	2.3	40.1	36.5	23.4
종교	기독교	535	9.9	30.5	37.2	20.9	1.5	40.4	37.2	22.4
	불교	200	13.5	34.5	34.5	16.5	1.0	48.0	34.5	17.5
	가톨릭	153	7.2	42.5	32.0	17.6	0.7	49.7	32.0	18.3
	무교	1,098	11.8	34.0	36.8	15.8	1.6	45.8	36.8	17.4
	기타	14	28.6	14.3	35.7	21.4	0.0	42.9	35.7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4	34.8	34.3	17.8	1.7	46.2	34.3	19.5
	보통	552	10.1	32.8	39.7	16.5	0.9	42.9	39.7	17.4
	불만	162	14.2	27.2	39.5	17.9	1.2	41.4	39.5	1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6	40.7	35.9	12.3	2.5	49.3	35.9	14.8
	중	1,177	11.6	33.7	36.4	17.0	1.3	45.3	36.4	18.3
	하	661	11.2	31.6	36.2	19.5	1.5	42.8	36.2	21.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50.6	26.0	11.7	5.2	57.1	26.0	16.9
	중	1,053	11.5	34.4	36.6	16.3	1.2	45.9	36.6	17.5
	하	870	11.4	31.1	36.8	19.3	1.4	42.5	36.8	2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8	32.8	39.5	15.3	3.6	41.6	39.5	18.9
	중	1,709	10.2	34.4	36.7	17.5	1.2	44.6	36.7	18.7
	하	154	24.7	25.3	28.6	18.8	2.6	50.0	28.6	21.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26.2	41.7	20.4	4.9	33.0	41.7	25.3
	없다	1,897	11.5	34.0	35.9	17.3	1.3	45.5	35.9	18.6

(5) 생활수준

알고 있다 48.4% > 모른다 18.4%

북한의 생활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48.4%(많이 알고 있다: 5.3% + 다소 알고 있다: 43.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3.2%, ‘모른다’ 18.4%(전혀 모른다: 4.2% + 거의 모른다: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1%)보다 여성(50.3%)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3.9%), 종교가 기독교일 때(50.3%)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8.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53.3%), 이산가족이 있을 때(53.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9】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표 II-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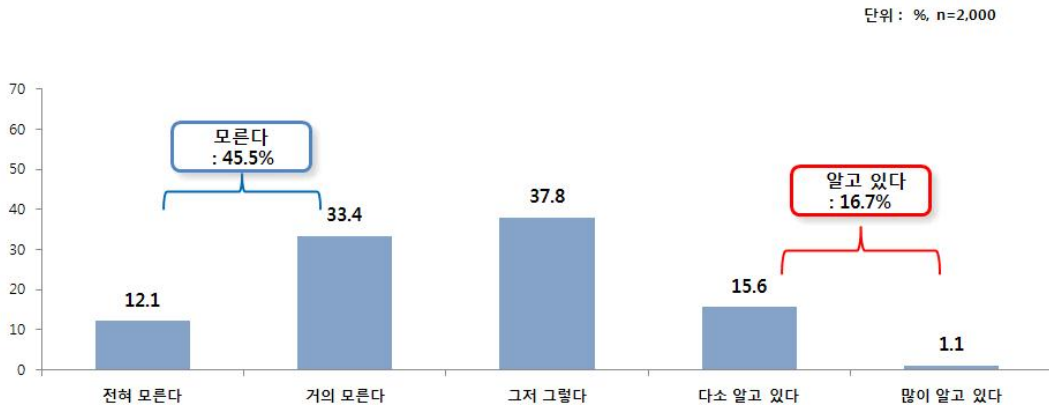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4.2	14.2	33.2	43.1	5.3	18.4	33.2	48.4
성별	남성	926	3.2	14.4	36.3	39.8	6.3	17.6	36.3	46.1
	여성	1,074	4.9	14.0	30.8	45.8	4.5	18.9	30.8	50.3
학교급	초등학교	564	3.5	17.2	39.1	37.4	2.8	20.7	39.1	40.2
	중학교	705	4.4	15.0	31.5	42.6	6.5	19.4	31.5	49.1
	고등학교	731	4.4	10.9	30.8	47.9	6.0	15.3	30.8	53.9
종교	기독교	535	3.6	15.5	30.6	43.9	6.4	19.1	30.6	50.3
	불교	200	3.5	13.0	34.0	44.0	5.5	16.5	34.0	49.5
	가톨릭	153	2.6	20.3	32.6	41.2	3.3	22.9	32.6	44.5
	무교	1,098	4.6	12.9	35.1	42.3	5.1	17.5	35.1	47.4
	기타	14	14.3	7.1	7.2	71.4	0.0	21.4	7.2	7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5	15.2	32.4	43.1	5.8	18.7	32.4	48.9
	보통	552	4.5	13.4	33.9	44.0	4.2	17.9	33.9	48.2
	불만	162	8.0	8.0	38.9	39.5	5.6	16.0	38.9	45.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23.5	32.0	35.8	6.2	26.0	32.0	42.0
	중	1,177	4.2	14.6	34.9	41.7	4.6	18.8	34.9	46.3
	하	661	4.4	11.0	31.0	47.2	6.4	15.4	31.0	5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5.6	25.9	45.5	9.1	19.5	25.9	54.6
	중	1,053	4.2	15.4	35.8	39.6	5.0	19.6	35.8	44.6
	하	870	4.1	12.5	31.1	47.0	5.3	16.6	31.1	52.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4	15.3	29.2	43.1	8.0	19.7	29.2	51.1
	중	1,709	3.6	14.2	34.5	42.8	4.9	17.8	34.5	47.7
	하	154	10.4	13.0	23.3	45.5	7.8	23.4	23.3	5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36.9	48.5	4.9	9.7	36.9	53.4
	없다	1,897	4.3	14.5	33.1	42.8	5.3	18.8	33.1	48.1

(6) 문화 수준

모른다 45.5% > 알고 있다 16.7%

북한의 문화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5.5%(전혀 모른다: 12.1% + 거의 모른다: 33.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7.8%, ‘알고 있다’ 16.7%(많이 알고 있다: 1.1% + 다소 알고 있다: 1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5%)이 여성(44.5%)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2.3%), 종교가 가톨릭인 경우(53.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6.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51.0%), 이산가족이 없을 때(45.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0】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표 II-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문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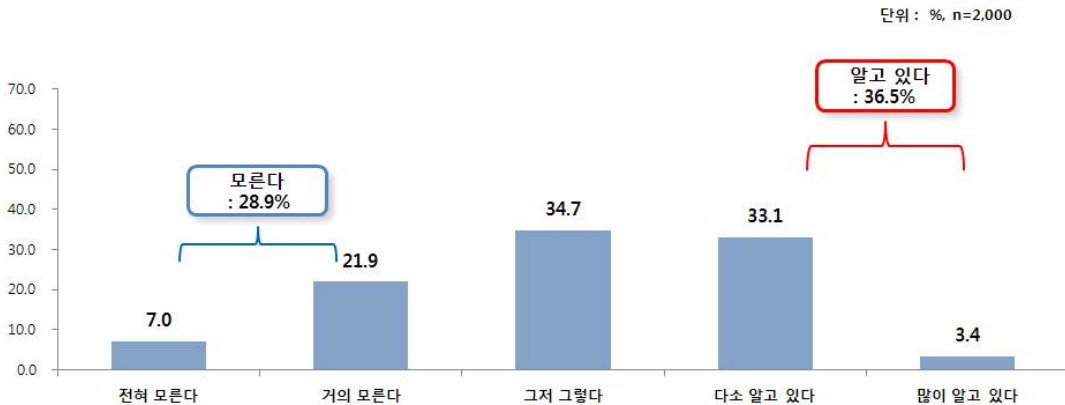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12.1	33.4	37.8	15.6	1.1	45.5	37.8	16.7
성별	남성	926	11.0	35.5	37.5	14.8	1.2	46.5	37.5	16.0
	여성	1,074	13.0	31.5	38.3	16.3	0.9	44.5	38.3	1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0	41.3	35.9	11.3	0.5	52.3	35.9	11.8
	중학교	705	13.5	28.7	39.2	17.2	1.4	42.2	39.2	18.6
	고등학교	731	11.6	31.7	38.2	17.4	1.1	43.3	38.2	18.5
종교	기독교	535	11.8	30.8	36.6	18.9	1.9	42.6	36.6	20.8
	불교	200	11.5	28.5	41.5	17.5	1.0	40.0	41.5	18.5
	가톨릭	153	7.2	45.8	27.4	19.6	0.0	53.0	27.4	19.6
	무교	1,098	13.0	34.1	39.1	13.0	0.8	47.1	39.1	13.8
	기타	14	14.3	7.1	57.2	21.4	0.0	21.4	57.2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1	35.0	37.4	15.3	1.2	46.1	37.4	16.5
	보통	552	12.7	32.2	39.4	15.2	0.5	44.9	39.4	15.7
	불만	162	17.9	24.1	37.0	19.1	1.9	42.0	37.0	21.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9.3	38.3	34.5	16.0	1.9	47.6	34.5	17.9
	중	1,177	11.0	35.9	36.7	15.6	0.8	46.9	36.7	16.4
	하	661	14.8	27.5	41.1	15.4	1.2	42.3	41.1	1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37.7	36.3	15.6	3.9	44.2	36.3	19.5
	중	1,053	11.1	35.2	38.2	14.4	1.1	46.3	38.2	15.5
	하	870	13.8	30.7	37.8	17.0	0.7	44.5	37.8	17.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9	40.1	33.6	13.9	1.5	51.0	33.6	15.4
	중	1,709	11.3	33.6	38.4	15.7	1.0	44.9	38.4	16.7
	하	154	22.1	24.7	35.7	16.2	1.3	46.8	35.7	17.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31.1	31.9	21.4	4.9	41.8	31.9	26.3
	없다	1,897	12.2	33.5	38.2	15.3	0.8	45.7	38.2	16.1

(7) 경제 수준

알고 있다 36.5% > 모른다 28.9%

북한의 경제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알고 있다’가 36.5%(많이 알고 있다: 3.4% + 다소 알고 있다: 33.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4.7%, ‘모른다’ 28.9%(전혀 모른다: 7.0% + 거의 모른다: 21.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7.4%)이 남성(35.3%)보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9.2%), 종교가 불교일 때(41.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 때(37.8%),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2.8%), 이산가족이 있을 때(45.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1】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표 II-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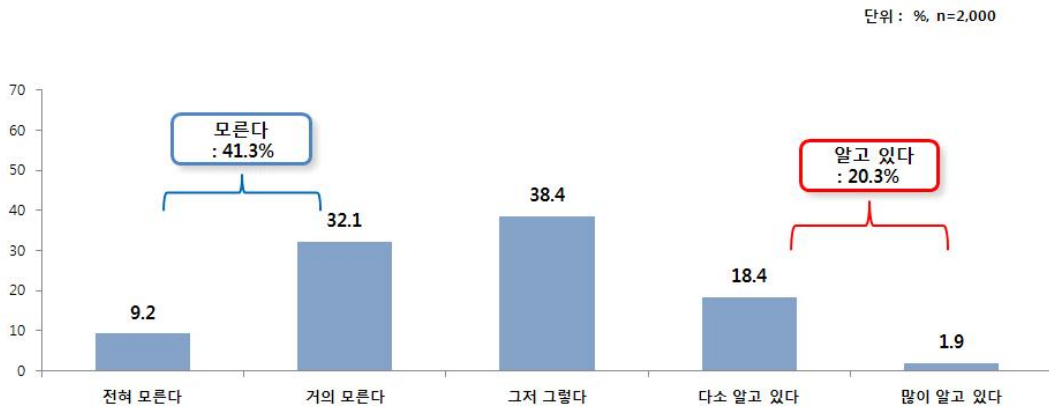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7.0	21.9	34.7	33.1	3.4	28.9	34.7	36.5
성별	남성	926	5.3	24.2	35.2	31.3	4.0	29.5	35.2	35.3
	여성	1,074	8.5	19.8	34.3	34.5	2.9	28.3	34.3	3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	25.5	36.6	28.5	2.1	32.8	36.6	30.6
	중학교	705	7.5	20.1	34.2	33.8	4.4	27.6	34.2	38.2
	고등학교	731	6.3	20.7	33.8	35.8	3.4	27.0	33.8	39.2
종교	기독교	535	7.7	22.6	31.4	34.0	4.3	30.3	31.4	38.3
	불교	200	7.0	19.0	33.0	35.5	5.5	26.0	33.0	41.0
	가톨릭	153	4.6	22.9	35.9	35.3	1.3	27.5	35.9	36.6
	무교	1,098	7.0	22.0	36.3	31.8	2.9	29.0	36.3	34.7
	기타	14	7.1	7.1	50.1	35.7	0.0	14.2	50.1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2	22.0	34.0	33.9	3.9	28.2	34.0	37.8
	보통	552	7.2	21.6	37.9	31.5	1.8	28.8	37.9	33.3
	불만	162	12.3	21.6	29.7	31.5	4.9	33.9	29.7	36.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30.9	30.2	31.5	4.9	33.4	30.2	36.4
	중	1,177	6.9	22.3	35.5	32.5	2.8	29.2	35.5	35.3
	하	661	8.3	18.8	34.5	34.3	4.1	27.1	34.5	38.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24.7	33.7	32.5	6.5	27.3	33.7	39.0
	중	1,053	6.5	23.3	33.7	33.3	3.2	29.8	33.7	36.5
	하	870	8.0	19.9	36.0	32.8	3.3	27.9	36.0	3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21.9	36.5	31.4	5.1	27.0	36.5	36.5
	중	1,709	6.6	22.2	35.4	32.8	3.0	28.8	35.4	35.8
	하	154	13.0	17.5	26.7	37.0	5.8	30.5	26.7	4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7	12.6	33.1	41.7	3.9	21.3	33.1	45.6
	없다	1,897	6.9	22.4	34.7	32.6	3.4	29.3	34.7	36.0

(8) 교육 수준

모른다 41.3% > 알고 있다 20.3%

북한의 교육 수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모른다’가 41.3%(전혀 모른다: 9.2% + 거의 모른다: 32.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8.4%, ‘알고 있다’ 20.3%(많이 알고 있다: 1.9% + 다소 알고 있다: 18.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8%)이 여성(40.6%)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9.3%), 종교가 불교인 경우(42.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41.4%),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44.5%),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0.0%), 이산가족이 없을 때(41.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2】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표 II-23 북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_교육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저 그렇다	다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전체		2,000	9.2	32.1	38.4	18.4	1.9	41.3	38.4	20.3
성별	남성	926	9.5	32.3	38.3	17.3	2.6	41.8	38.3	19.9
	여성	1,074	8.8	31.8	38.8	19.4	1.2	40.6	38.8	20.6
학교급	초등학교	564	9.2	40.1	37.8	12.4	0.5	49.3	37.8	12.9
	중학교	705	10.2	28.1	39.9	19.0	2.8	38.3	39.9	21.8
	고등학교	731	8.1	29.7	37.9	22.4	1.9	37.8	37.9	24.3
종교	기독교	535	8.6	31.2	36.8	22.1	1.3	39.8	36.8	23.4
	불교	200	10.0	32.0	36.5	16.5	5.0	42.0	36.5	21.5
	가톨릭	153	3.9	37.9	41.9	15.0	1.3	41.8	41.9	16.3
	무교	1,098	9.9	31.9	39.3	17.3	1.6	41.8	39.3	18.9
	기타	14	14.3	14.3	42.8	28.6	0.0	28.6	42.8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1	33.3	38.7	17.7	2.2	41.4	38.7	19.9
	보통	552	9.2	32.1	40.0	17.6	1.1	41.3	40.0	18.7
	불만	162	17.3	22.2	31.4	27.2	1.9	39.5	31.4	2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37.7	35.2	15.4	4.9	44.5	35.2	20.3
	중	1,177	8.3	32.5	40.1	17.8	1.3	40.8	40.1	19.1
	하	661	11.2	29.8	36.6	20.3	2.1	41.0	36.6	2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39.0	37.6	16.9	2.6	42.9	37.6	19.5
	중	1,053	8.7	33.8	38.4	17.1	2.0	42.5	38.4	19.1
	하	870	10.1	29.3	38.9	20.1	1.6	39.4	38.9	21.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6	33.6	34.2	21.2	4.4	40.2	34.2	25.6
	중	1,709	8.4	32.1	40.0	18.0	1.5	40.5	40.0	19.5
	하	154	19.5	30.5	26.7	20.1	3.2	50.0	26.7	23.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8	28.2	39.8	23.3	2.9	34.0	39.8	26.2
	없다	1,897	9.3	32.3	38.5	18.1	1.8	41.6	38.5	19.9

2. 통일에 대한 생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73.7%로 나타났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40.9%), ‘평화롭게 살기 위해’(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44.4%로 가장 높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정도로는 ‘북한 이익’이라는 의견이 86.6%로 ‘남한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 52.0%로 ‘좋아질 것이다’ 3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및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혼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로는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26.3%,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전쟁위험정도로는 ‘전쟁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이 77.2%로 ‘없다’라는 의견(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24 통일에 대한 생각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73.7	
통일이 필요한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40.9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13.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10.1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해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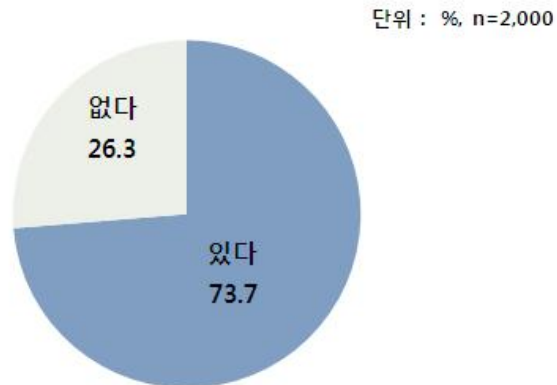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44.4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	15.4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13.1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5.9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5.7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 정도	남한 이익	41.9
	북한 이익	86.6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어려워질 것이다	52.0
	변화가 없을 것이다	16.1
	좋아질 것이다	32.0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	30.1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20.4
	사회 전반적인 혼란	14.2
	지역간 갈등 문제	5.0
	교육 문제	2.9
	거주할 집의 부족 문제	2.1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26.3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북한의 자유화/개방	20.7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20.4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4.0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3.3
	준비할 필요는 없다	2.5
	주변 강대국의 협조	2.0
남북한의 전쟁위험	전쟁 위험이 있다	77.2
	없다	8.6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73.7%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3.7%로 '필요없다'는 응답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76.8%)이 여성(70.9%)보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9.8%)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76.0%),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82.7%),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8.1%), 이산가족이 있을 때(77.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표 II-25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73.7	26.3
성별	남성	926	76.8	23.2
	여성	1,074	70.9	2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79.8	20.2
	중학교	705	75.0	25.0
	고등학교	731	67.6	32.4
종교	기독교	535	79.6	20.4
	불교	200	65.5	34.5
	가톨릭	153	73.9	26.1
	무교	1,098	71.9	28.1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6.0	24.0
	보통	552	71.4	28.6
	불만	162	63.0	37.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2.7	17.3
	중	1,177	74.6	25.4
	하	661	69.7	30.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84.4	15.6
	중	1,053	75.7	24.3
	하	870	70.2	29.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73.1	26.9
	하	154	76.0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7.7	22.3
	없다	1,897	73.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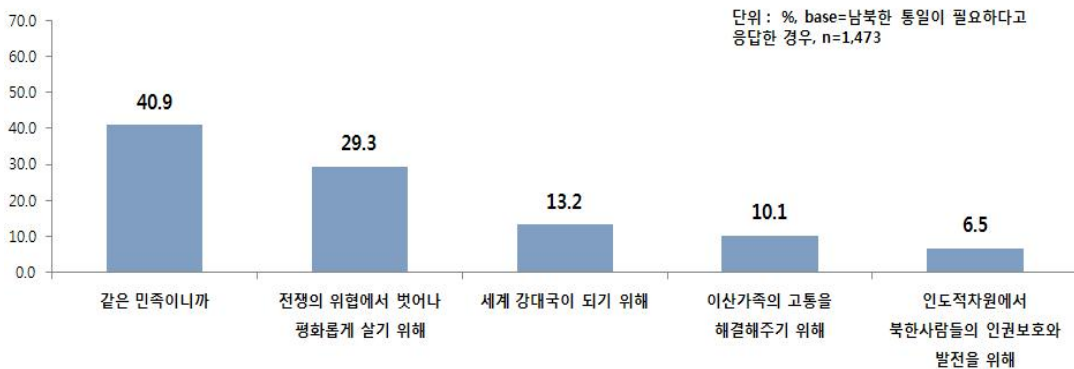
2) 통일이 필요한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40.9% >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6%)이 여성(40.2%)보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높고, 학교급은 낮을수록(초등학교: 51.1%), 종교가 가톨릭일 때(43.4%)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43.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3.0%), 이산가족이 없을 때(41.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4】 통일이 필요한 이유

표 II-26 통일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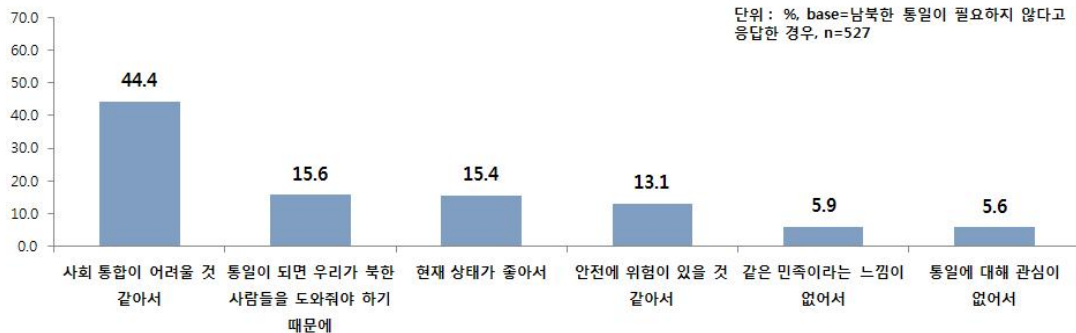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발전을 위해
전체		1,473	40.9	29.3	13.2	10.1	6.5
성별	남성	711	41.6	27.3	15.0	10.1	6.0
	여성	762	40.2	31.2	11.4	10.1	7.1
학교급	초등학교	450	51.1	25.3	10.2	8.7	4.7
	중학교	529	39.3	30.4	14.0	10.4	5.9
	고등학교	494	33.2	31.8	15.0	11.1	8.9
종교	기독교	426	41.3	26.3	11.7	11.0	9.7
	불교	131	37.4	27.5	11.5	14.5	9.1
	가톨릭	113	43.4	33.6	8.8	10.6	3.6
	무교	790	40.9	30.6	14.9	8.7	4.9
	기타	13	38.5	30.8	7.7	15.4	7.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77	43.5	28.0	12.6	9.4	6.5
	보통	394	34.8	34.3	14.0	9.4	7.5
	불만	102	39.2	22.5	15.7	19.6	3.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34	41.8	27.6	13.4	10.4	6.8
	중	878	43.4	28.2	13.1	9.2	6.1
	하	461	35.8	31.9	13.2	11.7	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5	40.0	30.8	12.3	12.3	4.6
	중	797	43.9	25.7	12.7	11.2	6.5
	하	611	37.0	33.9	13.9	8.5	6.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07	43.0	18.7	12.1	15.0	11.2
	중	1,249	41.6	29.7	12.6	10.0	6.1
	하	117	31.6	35.0	20.5	6.8	6.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0	36.3	22.5	10.0	16.3	14.9
	없다	1,393	41.1	29.7	13.4	9.8	6.0

3)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44.4% >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15.6%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 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45.2%)이 남성(43.3%)보다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0.2%)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66.7%), 이산가족이 없을 경우(45.4%)에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5】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표 II-27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명)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좋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전체		527	44.4	15.6	15.4	13.1	5.9	5.6
성별	남성	215	43.3	12.6	13.5	15.3	9.8	5.5
	여성	312	45.2	17.6	16.7	11.5	3.2	5.8
학교급	초등학교	114	26.3	20.2	21.1	14.9	4.4	13.1
	중학교	176	48.3	14.2	8.5	13.1	9.7	6.2
	고등학교	237	50.2	14.3	17.7	12.2	3.8	1.8
종교	기독교	109	37.6	13.8	23.9	8.3	11.0	5.4
	불교	69	52.2	11.6	13.0	20.3	1.4	1.5
	가톨릭	40	45.0	17.5	15.0	15.0	0.0	7.5
	무교	308	44.8	16.9	13.0	13.0	5.8	6.5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309	44.0	12.3	16.8	14.6	5.8	6.5
	보통	158	45.6	16.5	14.6	12.0	5.7	5.6
	불만	60	43.3	30.0	10.0	8.3	6.7	1.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28	35.7	17.9	28.6	14.3	3.5	0.0
	중	299	44.1	14.0	14.7	12.4	6.7	8.1
	하	200	46.0	17.5	14.5	14.0	5.0	3.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12	16.7	41.7	0.0	33.3	0.0	8.3
	중	256	44.5	14.1	13.3	14.1	6.3	7.7
	하	259	45.6	15.8	18.1	11.2	5.8	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30	66.7	13.3	16.7	0.0	0.0	3.3
	중	460	43.3	15.9	15.7	12.6	6.5	6.0
	하	37	40.5	13.5	10.8	29.7	2.7	2.8
이산가족 유무	있다	23	21.7	21.7	4.3	21.7	17.4	13.2
	없다	504	45.4	15.3	15.9	12.7	5.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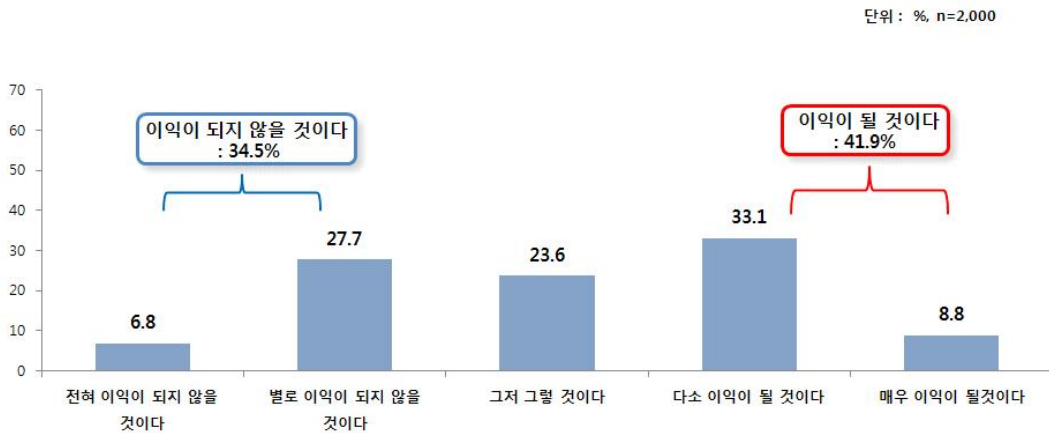
4) 통일 이후 이익 정도

(1)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41.9% >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4.5%

통일 후 남한의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1.9%(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8%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3.1%)로 가장 높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4.5%(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8%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7%), ‘그저 그럴 것이다’ 23.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3.0%)이 여성(40.9%)보다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7.3%),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44.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44.8%), 이산가족이 없을 때(42.1%)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6】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표 II-28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 이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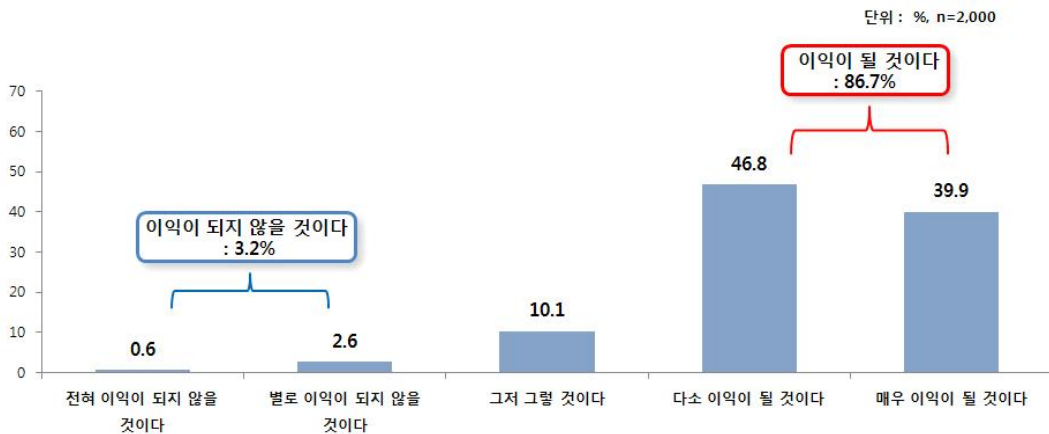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6.8	27.7	23.6	33.1	8.8	34.5	23.6	41.9
성별	남성	926	5.6	27.8	23.6	33.7	9.3	33.4	23.6	43.0
	여성	1,074	7.7	27.7	23.7	32.5	8.4	35.4	23.7	40.9
학교급	초등 학교	564	4.6	22.5	25.6	39.7	7.6	27.1	25.6	47.3
	중학교	705	5.8	28.5	23.3	31.5	10.9	34.3	23.3	42.4
	고등 학교	731	9.3	30.9	22.7	29.4	7.7	40.2	22.7	37.1
종교	기독교	535	6.7	23.7	22.3	38.7	8.6	30.4	22.3	47.3
	불교	200	11.0	36.5	21.5	25.0	6.0	47.5	21.5	31.0
	가톨릭	153	9.8	28.8	21.5	30.1	9.8	38.6	21.5	39.9
	무교	1,098	5.6	27.8	25.3	31.9	9.4	33.4	25.3	41.3
	기타	14	0.0	35.7	7.2	57.1	0.0	35.7	7.2	57.1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8	27.1	22.0	34.8	9.3	33.9	22.0	44.1
	보통	552	6.0	28.4	27.0	31.7	6.9	34.4	27.0	38.6
	불만	162	8.6	30.2	26.0	23.5	11.7	38.8	26.0	35.2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6.2	22.8	23.5	36.4	11.1	29.0	23.5	47.5
	중	1,177	5.7	26.9	23.5	34.8	9.1	32.6	23.5	43.9
	하	661	8.8	30.3	24.2	29.0	7.7	39.1	24.2	36.7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7.8	14.3	36.3	32.5	9.1	22.1	36.3	41.6
	중	1,053	6.8	27.0	22.5	35.6	8.1	33.8	22.5	43.7
	하	870	6.6	29.8	23.9	30.0	9.7	36.4	23.9	39.7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3.6	26.3	27.0	34.3	8.8	29.9	27.0	43.1
	중	1,709	6.9	28.0	23.6	33.3	8.2	34.9	23.6	41.5
	하	154	7.8	25.3	22.1	29.2	15.6	33.1	22.1	44.8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5.8	23.3	32.1	29.1	9.7	29.1	32.1	38.8
	없다	1,897	6.8	27.9	23.2	33.3	8.8	34.7	23.2	42.1

(2)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이익이 될 것이다 86.7% > 그저 그럴 것이다 10.1%

○ 통일 후 북한의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6.7%(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39.9%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6.8%)로 가장 높고, ‘그저 그럴 것이다’ 10.1%,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2%(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6%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85.2%)이 여성(87.8%)보다 낮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9.0%)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88.6%),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93.2%, 9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89.7%)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7】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표 II-29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이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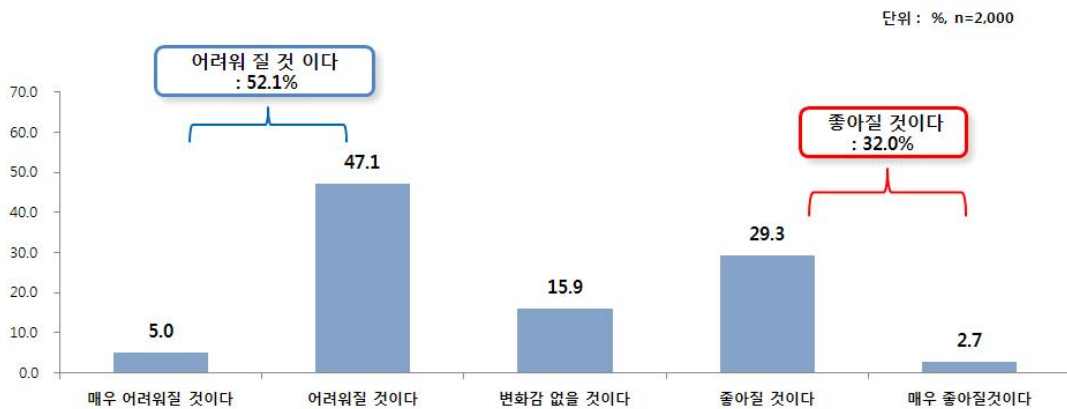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전체		2,000	0.6	2.6	10.1	46.8	39.9	3.2	10.1	86.7
성별	남성	926	0.9	3.3	10.6	44.7	40.5	4.2	10.6	85.2
	여성	1,074	0.4	1.9	9.9	48.5	39.3	2.3	9.9	87.8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2	1.6	10.4	46.5	41.3	1.8	10.4	87.8
	중학교	705	0.3	3.0	7.7	46.4	42.6	3.3	7.7	89.0
	고등 학교	731	1.2	2.9	12.5	47.3	36.1	4.1	12.5	83.4
종교	기독교	535	0.6	3.0	9.9	45.0	41.5	3.6	9.9	86.5
	불교	200	0.5	3.0	16.5	47.0	33.0	3.5	16.5	80.0
	가톨릭	153	1.3	5.9	9.2	39.2	44.4	7.2	9.2	83.6
	무교	1,098	0.5	1.8	9.6	48.5	39.6	2.3	9.6	88.1
	기타	14	0.0	0.0	0.0	57.1	42.9	0.0	0.0	10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2	2.3	8.9	46.8	41.8	2.5	8.9	88.6
	보통	552	1.1	3.1	11.5	48.6	35.7	4.2	11.5	84.3
	불만	162	1.9	3.1	16.6	40.1	38.3	5.0	16.6	78.4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2	1.2	4.4	43.8	49.4	2.4	4.4	93.2
	중	1,177	0.3	2.5	10.4	47.5	39.3	2.8	10.4	86.8
	하	661	0.9	2.9	11.7	46.1	38.4	3.8	11.7	84.5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3.9	2.6	2.5	45.5	45.5	6.5	2.5	91.0
	중	1,053	0.5	2.8	10.1	46.4	40.2	3.3	10.1	86.6
	하	870	0.5	2.3	11.0	47.2	39.0	2.8	11.0	86.2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7	2.2	7.4	49.6	40.1	2.9	7.4	89.7
	중	1,709	0.6	2.6	10.7	46.7	39.4	3.2	10.7	86.1
	하	154	0.0	1.9	9.1	44.8	44.2	1.9	9.1	89.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0.0	7.8	3.9	46.6	41.7	7.8	3.9	88.3
	없다	1,897	0.6	2.3	10.6	46.8	39.7	2.9	10.6	86.5

5)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어려워질 것이다 52.1% > 좋아질 것이다 32.0%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가 52.1%(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5.0% + 어려워질 것이다: 47.1%)로 가장 높고, 좋아질 것이다 32.0%(매우 좋아질 것이다: 2.7% + 좋아질 것이다: 29.3%), 변화가 없을 것이다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55.0%)이 남성(48.5%)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9.0%), 종교가 불교인 경우(60.0%)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57.0%),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59.0%), 이산가족이 없을 때(52.3%)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8】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표 II-30

통일 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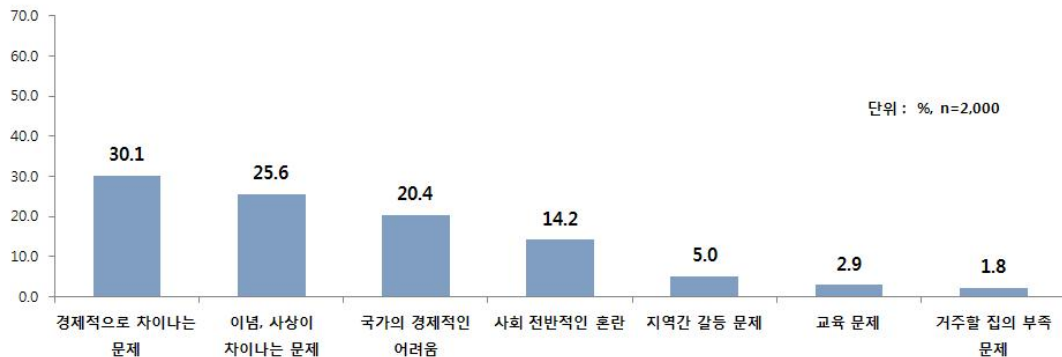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어려 워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전체		2,000	5.0	47.1	15.9	29.3	2.7	52.1	15.9	32.0
성별	남성	926	4.5	44.0	16.7	32.2	2.6	48.5	16.7	34.8
	여성	1,074	5.3	49.7	15.5	26.8	2.7	55.0	15.5	29.5
학교급	초등 학교	564	3.5	42.9	16.4	35.6	1.6	46.4	16.4	37.2
	중학교	705	4.7	44.5	15.6	31.8	3.4	49.2	15.6	35.2
	고등 학교	731	6.3	52.7	16.3	22.0	2.7	59.0	16.3	24.7
종교	기독교	535	4.9	43.0	15.3	34.2	2.6	47.9	15.3	36.8
	불교	200	7.0	53.0	11.0	27.0	2.0	60.0	11.0	29.0
	가톨릭	153	7.8	43.8	18.9	27.5	2.0	51.6	18.9	29.5
	무교	1,098	4.1	48.5	17.1	27.4	2.9	52.6	17.1	30.3
	기타	14	14.3	35.7	7.1	42.9	0.0	50.0	7.1	42.9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4	44.2	16.1	32.5	2.8	48.6	16.1	35.3
	보통	552	6.5	51.8	15.5	24.6	1.6	58.3	15.5	26.2
	불만	162	3.7	53.1	20.4	17.9	4.9	56.8	20.4	22.8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6.2	37.7	18.5	33.3	4.3	43.9	18.5	37.6
	중	1,177	4.8	45.5	15.5	31.7	2.5	50.3	15.5	34.2
	하	661	4.8	52.2	16.5	24.1	2.4	57.0	16.5	26.5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3.9	44.2	9.0	37.7	5.2	48.1	9.0	42.9
	중	1,053	4.5	45.2	16.7	31.9	1.7	49.7	16.7	33.6
	하	870	5.6	49.5	15.9	25.4	3.6	55.1	15.9	29.0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9	45.3	18.2	28.5	5.1	48.2	18.2	33.6
	중	1,709	4.9	46.8	15.8	30.4	2.1	51.7	15.8	32.5
	하	154	7.1	51.9	17.0	17.5	6.5	59.0	17.0	24.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4.9	41.7	23.3	24.3	5.8	46.6	23.3	30.1
	없다	1,897	5.0	47.3	15.6	29.6	2.5	52.3	15.6	32.1

6)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경제적 차이의 문제 30.1% > 이념, 사상 차이의 문제 25.6%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0.8%)이 여성(29.4%)보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2.4%)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32.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2.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5.0%), 이산가족이 없을 때(30.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9】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표 II-31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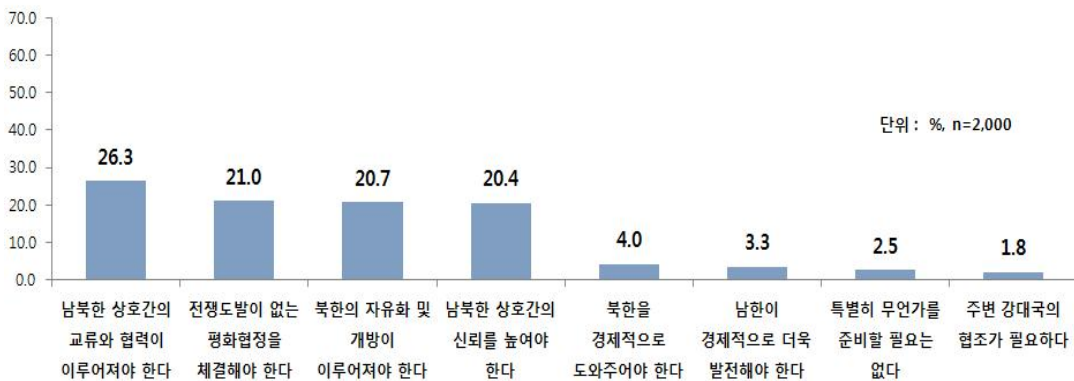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경제적 으로 차이나는 문제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적인 혼란	지역간 갈등 문제	교육 문제	거주할 집의 부족 문제
전체		2,000	30.1	25.6	20.4	14.2	5.0	2.9	1.8
성별	남성	926	30.8	26.5	20.8	9.9	5.7	3.8	2.5
	여성	1,074	29.4	24.8	19.9	17.8	4.3	2.1	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32.4	26.4	18.1	8.9	8.0	3.5	2.7
	중학교	705	30.9	27.1	19.3	13.3	4.7	3.0	1.7
	고등학교	731	27.4	23.4	23.1	19.0	2.9	2.3	1.9
종교	기독교	535	29.5	25.0	18.5	14.4	6.5	3.7	2.4
	불교	200	34.0	20.0	22.0	14.5	4.0	2.5	3.0
	가톨릭	153	26.1	28.8	21.6	11.8	6.5	4.6	0.6
	무교	1,098	30.0	26.3	21.0	14.4	4.1	2.4	1.8
	기타	14	42.9	28.6	0.0	7.1	7.1	0.0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9.5	28.0	19.4	12.1	5.8	2.7	2.5
	보통	552	30.4	22.1	23.4	16.7	3.4	2.4	1.6
	불만	162	32.7	17.9	17.3	21.6	3.1	6.2	1.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2.1	25.9	13.6	15.4	6.8	3.7	2.5
	중	1,177	30.8	25.9	21.3	11.9	5.4	2.8	1.9
	하	661	28.1	24.8	20.3	17.9	3.8	2.9	2.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3.8	19.5	16.9	19.5	6.5	3.8	0.0
	중	1,053	31.7	25.7	20.9	10.4	6.2	2.9	2.2
	하	870	27.7	25.9	20.0	18.2	3.3	2.8	2.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5.0	20.4	19.7	11.7	5.8	3.6	3.8
	중	1,709	30.8	26.0	19.7	13.7	5.0	2.9	1.9
	하	154	17.5	25.3	27.9	21.4	3.2	2.6	2.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2.3	24.3	19.4	16.5	7.8	6.8	2.9
	없다	1,897	30.5	25.6	20.4	14.0	4.8	2.7	2.0

7)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남북한 상호간 교류와 협력 26.3% > 전쟁도발 없는 평화협정 체결 21.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28.5%)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할 때(27.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0.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29.2%)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0】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표 II-32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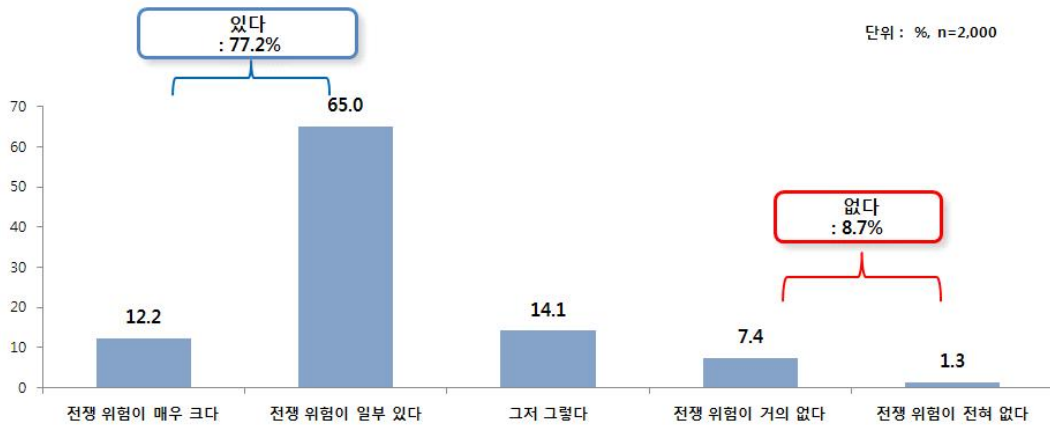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야 한다	전쟁도발 이 없는 평화 협정을 체결 해야 한다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 야 한다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 으로 도와주어 야 한다	남한이 경제적 으로 더욱 발전 해야 한다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주변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 하다
전체		2,000	26.3	21.0	20.7	20.4	4.0	3.3	2.5	1.8
성별	남성	926	26.8	20.3	22.6	17.3	5.3	4.0	1.6	2.1
	여성	1,074	25.9	21.5	19.0	23.0	2.9	2.7	3.2	1.8
학교급	초등 학교	564	28.5	17.9	25.0	16.8	5.3	4.1	1.6	0.8
	중학교	705	26.8	20.3	16.9	22.8	4.8	4.0	2.3	2.1
	고등 학교	731	24.1	23.9	20.9	20.7	2.2	2.1	3.3	2.8
종교	기독교	535	24.7	20.2	22.1	20.4	4.7	3.7	2.2	2.0
	불교	200	21.5	25.5	25.5	14.5	4.0	4.5	4.0	0.5
	가톨릭	153	22.9	19.0	23.5	20.9	5.9	3.9	2.0	1.9
	무교	1,098	28.3	20.9	18.9	21.1	3.5	2.8	2.3	2.2
	기타	14	35.7	14.3	7.1	35.7	0.0	0.0	7.2	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7.5	20.9	20.9	19.6	3.9	4.0	1.2	2.0
	보통	552	23.9	21.9	20.8	22.1	3.8	2.4	3.6	1.5
	불만	162	24.7	17.9	17.9	20.4	5.6	0.6	8.0	4.9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30.2	19.1	19.8	18.5	4.9	0.6	5.6	1.3
	중	1,177	26.9	19.0	21.0	20.7	4.3	4.2	1.9	2.0
	하	661	24.2	24.8	20.3	20.1	3.2	2.4	2.7	2.3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32.5	13.0	18.2	20.8	7.8	1.3	3.9	2.5
	중	1,053	25.7	20.1	21.7	19.9	4.7	4.4	1.5	2.0
	하	870	26.4	22.6	19.7	20.8	2.8	2.2	3.4	2.1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9.2	16.1	21.2	19.7	4.4	4.4	2.2	2.8
	중	1,709	26.5	20.8	20.9	20.4	4.1	3.1	2.3	1.9
	하	154	21.4	27.3	17.5	20.1	2.6	4.5	3.9	2.7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26.2	19.4	22.3	19.4	6.8	1.0	0.0	4.9
	없다	1,897	26.3	21.0	20.6	20.4	3.8	3.4	2.6	1.9

8)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정도 '있다' 77.2%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정도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77.2%(전쟁위험이 매우 크다: 12.2% + 전쟁위험이 일부 있다: 65.0%)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4.1%, '전쟁 위험이 없다' 8.7%(전쟁위험이 전혀 없다: 1.3% + 전쟁위험이 거의 없다: 7.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81.4%)이 남성(72.4%)보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2.4%)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83.3%),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0%),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77.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1】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표 II-33 남북한 사이에 전쟁 위험 정도

단위[%]		사례수 (명)	전쟁 위험이 매우 크다	전쟁 위험이 일부 있다	그저 그렇다	전쟁 위험이 거의 없다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	*있다*	*그저 그렇다*	*없다*
전체		2,000	12.2	65.0	14.1	7.4	1.3	77.2	14.1	8.7
성별	남성	926	10.3	62.1	16.8	8.6	2.2	72.4	16.8	10.8
	여성	1,074	13.9	67.5	11.9	6.2	0.5	81.4	11.9	6.7
학교급	초등 학교	564	11.0	61.9	18.1	8.3	0.7	72.9	18.1	9.0
	중학교	705	10.9	64.4	15.7	7.9	1.1	75.3	15.7	9.0
	고등 학교	731	14.4	68.0	9.8	6.0	1.8	82.4	9.8	7.8
종교	기독교	535	12.1	66.0	12.7	7.5	1.7	78.1	12.7	9.2
	불교	200	13.5	61.5	13.0	10.5	1.5	75.0	13.0	12.0
	가톨릭	153	16.3	60.1	13.8	7.8	2.0	76.4	13.8	9.8
	무교	1,098	11.5	65.6	15.4	6.6	0.9	77.1	15.4	7.5
	기타	14	7.1	85.7	0.1	7.1	0.0	92.8	0.1	7.1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4	65.3	14.1	8.0	1.2	76.7	14.1	9.2
	보통	552	11.6	65.0	15.1	6.5	1.8	76.6	15.1	8.3
	불만	162	21.0	62.3	11.8	4.9	0.0	83.3	11.8	4.9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1.7	67.9	9.3	10.5	0.6	79.6	9.3	11.1
	중	1,177	10.5	62.4	16.8	9.0	1.3	72.9	16.8	10.3
	하	661	15.3	69.0	10.7	3.6	1.4	84.3	10.7	5.0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0	53.2	18.2	15.6	0.0	66.2	18.2	15.6
	중	1,053	10.6	62.3	16.9	8.8	1.4	72.9	16.9	10.2
	하	870	14.0	69.3	10.8	4.8	1.1	83.3	10.8	5.9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3.1	61.3	12.5	10.9	2.2	74.4	12.5	13.1
	중	1,709	10.8	65.9	15.1	7.1	1.1	76.7	15.1	8.2
	하	154	26.6	58.4	6.6	6.5	1.9	85.0	6.6	8.4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8.3	17.4	6.8	3.9	71.9	17.4	10.7
	없다	1,897	12.1	65.4	14.0	7.4	1.1	77.5	14.0	8.5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응답자의 72.8%는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미지로는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 25.0%, ‘우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9.9%로 낮게 나타났고,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는 ‘언어’ 78.1%, ‘사고방식’ 7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하겠다’라는 의견이 59.9%로 높게 나타났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을 사귀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9%는 사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에 대해서는 유럽 청소년이 61.4%로 호감도가 높고, 친밀도는 미국청소년이 41.1%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들의 호감도는 34.0%, 친밀도는 34.4%로 나타났다.

표 II-34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구분	내용[단위 : %]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72.8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미지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	25.0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12.5
	나이에 비해 조숙	7.1
북한 청소년들의 친근감	친근하게 느껴진다	9.9
	그저 그렇다	56.7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차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언어	78.1
	사고방식	75.9
	바라보는 미래	65.8
	앞으로의 직업(진로)	61.7
	가정환경/가정생활	69.9
	학교생활	60.0
	친구관계	47.9
	문화생활	66.5
	교육 수준	65.4
	여가생활	64.1
북한 청소년을 만나다면 취할 행동	담담히 대하겠다	59.9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하겠다	12.2
	대화를 피하겠다	9.4
	무조건 피하겠다	1.8
북한 청소년을 사귀 의향	친구로 사귀겠다	83.9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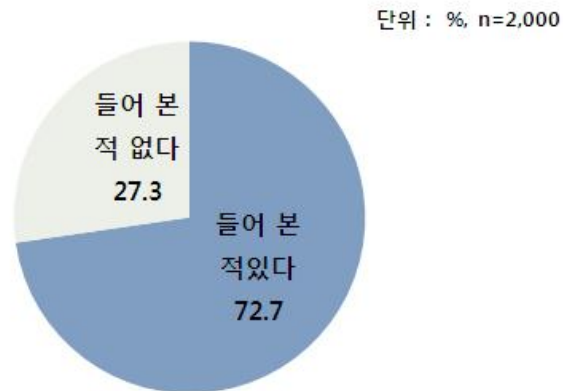
구분	호감도 [조금 좋을 것 같다 + 매우 좋을 것 같다]	친밀도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미국 청소년	56.9	41.1
유럽 청소년	61.4	36.7
중국 청소년	25.8	23.1
일본 청소년	22.9	20.0
북한 청소년	34.0	34.4

1)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들어본 적 있다 72.7% > 들어본 적 없다 27.3%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2.7%로 ‘들어본 적 없다’는 2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2.8%)이 남성(72.7%)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73.2%),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75.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9.6%)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77.4%),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85.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2】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표 II-35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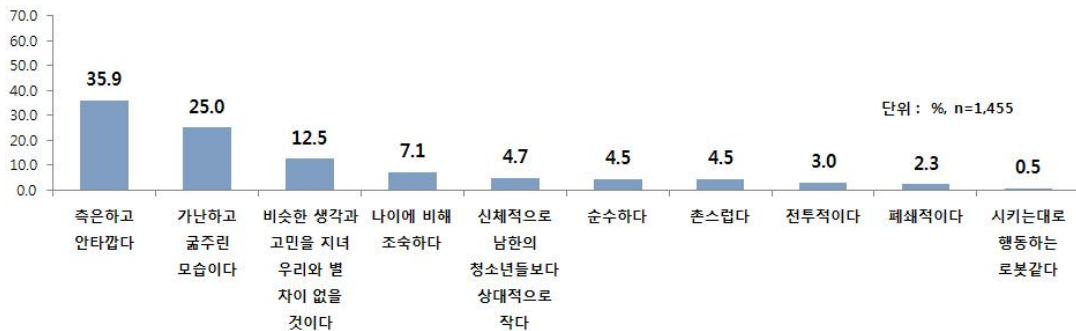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2,000	72.7	27.3
성별	남성	926	72.7	27.3
	여성	1,074	72.8	27.2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0	28.0
	중학교	705	72.9	27.1
	고등학교	731	73.2	26.8
종교	기독교	535	74.0	26.0
	불교	200	80.0	20.0
	가톨릭	153	72.5	27.5
	무교	1,098	70.8	29.2
	기타	14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5.1	24.9
	보통	552	70.1	29.9
	불만	162	63.0	37.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79.6	20.4
	중	1,177	72.1	27.9
	하	661	72.2	27.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7.9	22.1
	중	1,053	72.9	27.1
	하	870	72.1	27.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7.4	22.6
	중	1,709	72.7	27.3
	하	154	69.5	30.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5.4	14.6
	없다	1,897	72.1	27.9

2)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측은하고 안타깝다 35.9% >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 25.0%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 25.0%,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8.4%)이 남성(33.0%)보다 '측은하고 안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40.0%)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36.8%),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36.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3】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표 II-36

탈북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단위[%]		사례수 (명)	측은 하고 안타 깝다	가난 하고 굶주린 모습 이다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 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나이에 비해 조숙 하다	신체적 으로 남한의 청소년 들보다 상대적 으로 작다	순수 하다	존스 럽다	전투적 이다	폐쇄적 이다	시키는 대로 행동 하는 로봇 같다
전체		1,455	35.9	25.0	12.5	7.1	4.7	4.5	4.5	3.0	2.3	0.5
성별	남성	673	33.0	28.1	10.4	6.5	4.6	5.9	4.3	4.2	2.4	0.6
	여성	782	38.4	22.4	14.3	7.5	4.7	3.3	4.6	2.0	2.2	0.6
학교급	초등 학교	406	32.8	33.7	7.1	5.9	7.1	2.7	5.9	2.7	2.0	0.1
	중학교	514	34.0	25.9	13.4	7.4	4.5	5.4	3.5	2.9	2.3	0.7
	고등 학교	535	40.0	17.6	15.7	7.7	3.0	5.0	4.3	3.4	2.4	0.9
종교	기독교	396	37.6	24.5	9.8	9.3	5.3	5.6	4.3	2.0	1.3	0.3
	불교	160	35.0	31.3	11.9	7.5	6.3	3.8	1.9	0.6	1.7	0.0
	가톨릭	111	32.4	20.7	11.7	5.4	5.4	4.5	10.8	5.4	2.7	1.0
	무교	777	35.8	25.0	14.3	5.9	3.6	4.1	4.1	3.6	2.8	0.8
	기타	11	27.3	0.0	0.0	18.2	27.3	9.1	9.1	9.0	0.0	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966	36.5	26.4	11.2	7.2	4.9	3.6	4.6	3.1	2.2	0.3
	보통	387	34.4	23.0	15.0	7.2	4.7	5.4	4.7	2.6	2.3	0.7
	불만	102	35.3	19.6	15.7	4.9	2.9	9.8	2.9	3.9	2.9	2.1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29	34.9	24.0	10.1	3.1	7.0	9.3	7.8	1.6	2.2	0.0
	중	849	35.1	27.7	12.0	6.6	5.2	3.3	4.5	3.1	2.1	0.4
	하	477	37.5	20.5	14.0	9.0	3.1	5.5	3.6	3.4	2.5	0.9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60	35.0	21.7	15.0	3.3	6.7	5.0	10.0	0.0	1.7	1.6
	중	768	33.7	28.6	10.3	7.4	4.9	3.6	4.7	3.8	2.5	0.5
	하	627	38.6	20.9	15.0	7.0	4.1	5.6	3.7	2.4	2.1	0.6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06	36.8	23.6	7.5	13.2	2.8	6.6	2.8	3.8	2.8	0.1
	중	1,242	36.1	25.6	12.6	6.3	5.0	4.3	4.8	2.7	2.1	0.5
	하	107	32.7	19.6	15.9	10.3	2.8	5.6	1.9	6.5	3.7	1.0
이산 가족 유무	있다	88	25.0	23.9	12.5	14.8	6.8	2.3	3.4	5.7	5.6	0.0
	없다	1,367	36.6	25.1	12.5	6.6	4.5	4.7	4.5	2.9	2.0	0.6

3)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 친근하게 느껴진다 9.9%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3.5%, '친근하게 느껴진다'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9.0%)이 여성(54.5%)보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60.3%)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60.5%),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57.4%),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57.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4】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표 II-37 북한 청소년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친근 하게 느껴진다	친근 하게 느껴진다	그저 그렇다	친근 하지 않게 느껴진다	전혀 친근 하지 않게 느껴진다	*친근 하게 느껴진다 *	*그저 그렇다*	*친근 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		2,000	0.4	9.5	56.6	27.6	5.9	9.9	56.6	33.5
성별	남성	926	0.3	9.0	59.0	26.1	5.6	9.3	59.0	31.7
	여성	1,074	0.5	10.0	54.5	28.9	6.1	10.5	54.5	3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9	60.3	28.4	3.9	7.4	60.3	32.3
	중학교	705	0.4	10.2	56.1	27.5	5.8	10.6	56.1	33.3
	고등학교	731	0.3	10.8	54.4	27.1	7.4	11.1	54.4	34.5
종교	기독교	535	0.6	12.0	53.8	29.5	4.1	12.6	53.8	33.6
	불교	200	0.0	4.5	60.5	21.5	13.5	4.5	60.5	35.0
	가톨릭	153	1.3	4.6	52.9	26.8	14.4	5.9	52.9	41.2
	무교	1,098	0.3	9.8	57.9	27.9	4.1	10.1	57.9	32.0
	기타	14	0.0	14.3	50.0	28.6	7.1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10.3	57.4	26.8	5.0	10.8	57.4	31.8
	보통	552	0.2	7.4	56.7	29.0	6.7	7.6	56.7	35.7
	불만	162	0.0	10.5	50.6	29.0	9.9	10.5	50.6	38.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5.6	58.0	32.1	3.7	6.2	58.0	35.8
	중	1,177	0.4	8.8	57.8	27.5	5.5	9.2	57.8	33.0
	하	661	0.3	11.8	54.3	26.6	7.0	12.1	54.3	33.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5.2	54.5	36.4	2.6	6.5	54.5	39.0
	중	1,053	0.6	8.2	57.1	28.4	5.7	8.8	57.1	34.1
	하	870	0.1	11.5	56.2	25.9	6.3	11.6	56.2	32.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7.3	54.0	33.6	4.4	8.0	54.0	38.0
	중	1,709	0.3	9.7	57.1	27.5	5.4	10.0	57.1	32.9
	하	154	1.3	9.1	53.9	23.4	12.3	10.4	53.9	35.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58.3	25.2	6.8	9.7	58.3	32.0
	없다	1,897	0.3	9.6	56.6	27.7	5.8	9.9	56.6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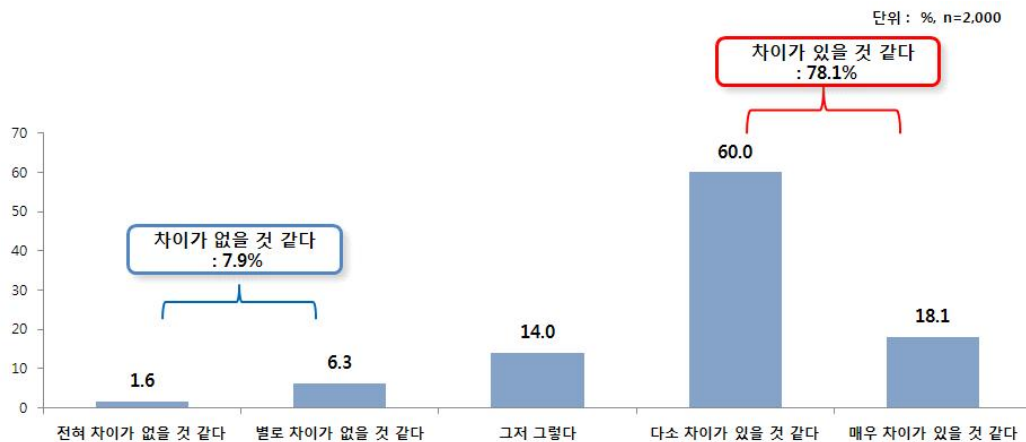
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

(1) 언어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8.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8.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8.1%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0%)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4.0%,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9%(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6%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79.7%)이 남성(76.1%)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78.9%)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8.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79.7%),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7%) 또한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78.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표 II-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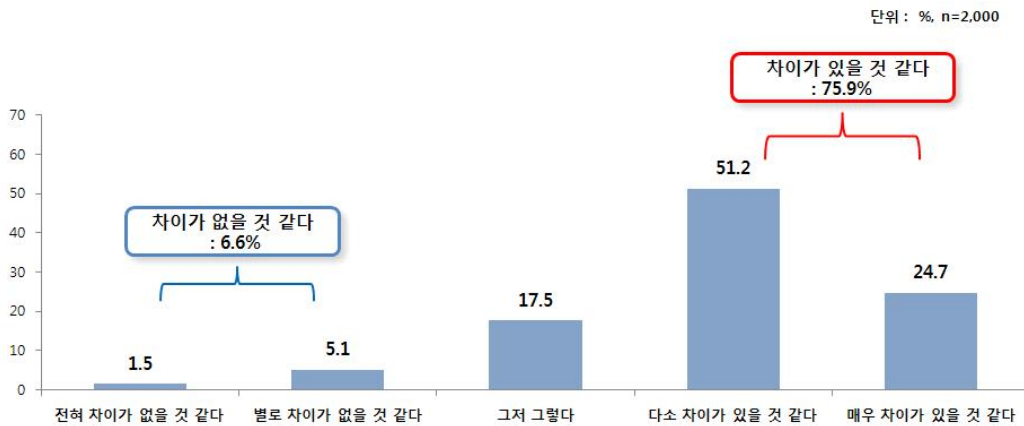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6	6.3	14.0	60.0	18.1	7.9	14.0	78.1
성별	남성	926	1.4	7.0	15.5	58.4	17.7	8.4	15.5	76.1
	여성	1,074	1.8	5.6	12.9	61.4	18.3	7.4	12.9	79.7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9	7.3	15.2	55.5	21.1	8.2	15.2	76.6
	중학교	705	2.4	5.2	13.5	60.9	18.0	7.6	13.5	78.9
	고등 학교	731	1.4	6.4	13.8	62.7	15.7	7.8	13.8	78.4
종교	기독교	535	1.9	6.5	16.4	55.0	20.2	8.4	16.4	75.2
	불교	200	2.5	6.5	19.0	58.0	14.0	9.0	19.0	72.0
	가톨릭	153	2.0	7.2	15.6	55.6	19.6	9.2	15.6	75.2
	무교	1,098	1.3	6.0	11.9	63.1	17.7	7.3	11.9	80.8
	기타	14	0.0	0.0	7.2	85.7	7.1	0.0	7.2	92.8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6.8	13.4	60.0	18.6	8.0	13.4	78.6
	보통	552	1.6	5.1	15.6	61.2	16.5	6.7	15.6	77.7
	불만	162	4.3	6.2	14.2	56.2	19.1	10.5	14.2	75.3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5.6	15.3	59.9	17.3	7.5	15.3	77.2
	중	1,177	1.4	7.0	14.3	58.4	18.9	8.4	14.3	77.3
	하	661	1.8	5.1	13.4	62.9	16.8	6.9	13.4	79.7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0.4	15.6	51.9	20.8	11.7	15.6	72.7
	중	1,053	1.3	6.9	14.3	57.8	19.7	8.2	14.3	77.5
	하	870	2.0	5.1	13.7	63.3	15.9	7.1	13.7	79.2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2.2	4.4	19.7	54.0	19.7	6.6	19.7	73.7
	중	1,709	1.5	6.4	14.4	60.0	17.7	7.9	14.4	77.7
	하	154	2.6	5.8	5.9	65.6	20.1	8.4	5.9	85.7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2.9	10.7	14.5	57.3	14.6	13.6	14.5	71.9
	없다	1,897	1.5	6.0	14.2	60.1	18.2	7.5	14.2	78.3

(2) 사고방식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5.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75.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24.7%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51.2%)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17.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6%(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5%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5.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9.4%)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77.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9.6%),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9.9%)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표 II-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사고방식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5	5.1	17.5	51.2	24.7	6.6	17.5	75.9
성별	남성	926	0.8	5.2	17.4	51.5	25.1	6.0	17.4	76.6
	여성	1,074	2.0	5.0	17.7	50.9	24.4	7.0	17.7	75.3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7	5.0	14.9	49.8	29.6	5.7	14.9	79.4
	중학교	705	2.3	4.5	17.3	50.5	25.4	6.8	17.3	75.9
	고등 학교	731	1.2	5.7	20.0	52.9	20.2	6.9	20.0	73.1
종교	기독교	535	1.1	4.9	18.5	50.3	25.2	6.0	18.5	75.5
	불교	200	1.5	5.0	18.0	51.5	24.0	6.5	18.0	75.5
	가톨릭	153	1.3	7.8	17.0	45.1	28.8	9.1	17.0	73.9
	무교	1,098	1.6	4.9	17.3	52.0	24.2	6.5	17.3	76.2
	기타	14	0.0	0.0	7.2	85.7	7.1	0.0	7.2	92.8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9	5.4	16.4	51.9	25.4	6.3	16.4	77.3
	보통	552	1.6	4.2	19.2	51.8	23.2	5.8	19.2	75.0
	불만	162	4.9	6.2	21.0	43.8	24.1	11.1	21.0	67.9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3.7	14.8	53.1	26.5	5.6	14.8	79.6
	중	1,177	1.4	4.8	17.6	50.1	26.1	6.2	17.6	76.2
	하	661	1.5	5.9	18.2	52.6	21.8	7.4	18.2	74.4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3	22.0	44.2	31.2	2.6	22.0	75.4
	중	1,053	1.0	5.0	16.8	50.4	26.8	6.0	16.8	77.2
	하	870	2.0	5.5	18.1	52.8	21.6	7.5	18.1	74.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5	2.9	21.9	47.4	26.3	4.4	21.9	73.7
	중	1,709	1.3	5.3	17.7	51.5	24.2	6.6	17.7	75.7
	하	154	3.2	4.5	12.4	51.3	28.6	7.7	12.4	79.9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9	6.8	14.6	46.6	30.1	8.7	14.6	76.7
	없다	1,897	1.4	5.0	17.8	51.4	24.4	6.4	17.8	75.8

(3) 미래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바라보는 미래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바라보는 미래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8%(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6.6%)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2.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1.7%(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7.9%)이 여성(64.0%)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7%)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68.9%)인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5%),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7.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표 II-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미래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0	22.5	46.6	19.2	11.7	22.5	65.8
성별	남성	926	1.2	9.4	21.5	48.2	19.7	10.6	21.5	67.9
	여성	1,074	2.1	10.5	23.4	45.2	18.8	12.6	23.4	64.0
학교급	초등 학교	564	0.9	7.3	19.1	50.2	22.5	8.2	19.1	72.7
	중학교	705	2.6	8.8	21.7	48.5	18.4	11.4	21.7	66.9
	고등 학교	731	1.5	13.3	25.9	41.9	17.4	14.8	25.9	59.3
종교	기독교	535	1.5	7.5	22.1	48.2	20.7	9.0	22.1	68.9
	불교	200	2.0	8.5	27.5	41.5	20.5	10.5	27.5	62.0
	가톨릭	153	0.7	16.3	17.7	47.7	17.6	17.0	17.7	65.3
	무교	1,098	1.9	10.7	22.6	46.6	18.2	12.6	22.6	64.8
	기타	14	0.0	7.1	21.5	35.7	35.7	7.1	21.5	71.4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	10.0	22.2	46.6	19.9	11.3	22.2	66.5
	보통	552	1.6	10.1	23.8	46.9	17.6	11.7	23.8	64.5
	불만	162	4.9	9.3	21.6	45.1	19.1	14.2	21.6	64.2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12.3	17.9	48.8	19.1	14.2	17.9	67.9
	중	1,177	1.3	9.3	21.4	47.7	20.3	10.6	21.4	68.0
	하	661	2.4	10.6	25.8	44.0	17.2	13.0	25.8	61.2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10.4	24.6	46.8	16.9	11.7	24.6	63.7
	중	1,053	0.9	9.9	20.0	49.5	19.7	10.8	20.0	69.2
	하	870	2.8	10.1	25.2	43.0	18.9	12.9	25.2	61.9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5	6.6	25.4	45.3	21.2	8.1	25.4	66.5
	중	1,709	1.3	10.4	22.7	46.9	18.7	11.7	22.7	65.6
	하	154	5.8	9.1	17.5	44.2	23.4	14.9	17.5	67.6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10.7	20.4	42.7	25.2	11.7	20.4	67.9
	없다	1,897	1.7	10.0	22.6	46.8	18.9	11.7	22.6	65.7

(4) 직업(진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직업 및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1.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직업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1.7%(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7.0%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7%)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3%,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3.0%(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2.1%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4.7%)이 여성(59.1%)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8.6%)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기독교(64.3%)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2.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7.9%),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66.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8】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표 II-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직업(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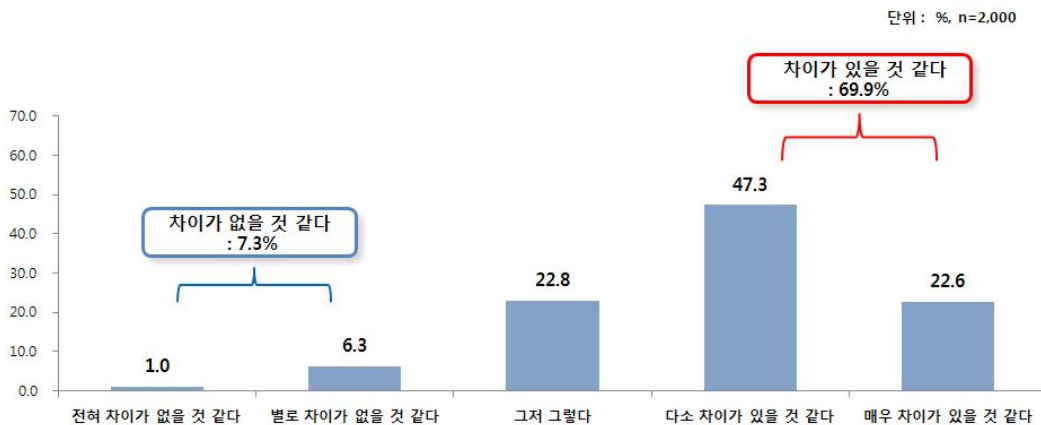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2.1	10.9	25.3	44.7	17.0	13.0	25.3	61.7
성별	남성	926	1.4	9.6	24.3	47.1	17.6	11.0	24.3	64.7
	여성	1,074	2.7	12.0	26.2	42.6	16.5	14.7	26.2	59.1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8.7	21.8	50.2	18.4	9.6	21.8	68.6
	중학교	705	3.3	10.6	23.2	46.2	16.7	13.9	23.2	62.9
	고등학교	731	1.9	12.9	30.2	38.9	16.1	14.8	30.2	55.0
종교	기독교	535	1.9	9.5	24.3	46.7	17.6	11.4	24.3	64.3
	불교	200	2.0	12.0	25.5	40.0	20.5	14.0	25.5	60.5
	가톨릭	153	0.0	15.0	22.2	43.8	19.0	15.0	22.2	62.8
	무교	1,098	2.6	10.7	26.3	44.6	15.8	13.3	26.3	60.4
	기타	14	0.0	14.3	28.5	42.9	14.3	14.3	28.5	57.2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6	11.4	24.3	45.4	17.3	13.0	24.3	62.7
	보통	552	2.5	10.1	27.1	44.4	15.9	12.6	27.1	60.3
	불만	162	4.9	9.9	27.8	39.5	17.9	14.8	27.8	57.4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3.1	8.0	21.0	52.5	15.4	11.1	21.0	67.9
	중	1,177	1.4	10.4	25.4	45.4	17.4	11.8	25.4	62.8
	하	661	3.2	12.6	26.1	41.5	16.6	15.8	26.1	58.1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2.6	9.1	14.3	58.4	15.6	11.7	14.3	74.0
	중	1,053	1.1	10.3	25.2	45.1	18.3	11.4	25.2	63.4
	하	870	3.2	11.8	26.6	42.9	15.5	15.0	26.6	58.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3.6	8.0	22.0	41.6	24.8	11.6	22.0	66.4
	중	1,709	1.6	11.5	25.7	45.4	15.8	13.1	25.7	61.2
	하	154	5.8	7.1	24.7	39.0	23.4	12.9	24.7	62.4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9	12.6	23.3	40.8	21.4	14.5	23.3	62.2
	없다	1,897	2.1	10.8	25.4	44.9	16.8	12.9	25.4	61.7

(5) 가정환경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가정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9.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가정환경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9.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22.6%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2.8%,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3%(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71.5%)이 여성(68.5%)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3.9%)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70.5%) 혹은 만족(70.3%)인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73.8%)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가정환경

표 II-42 남북한 청소년들의 차이_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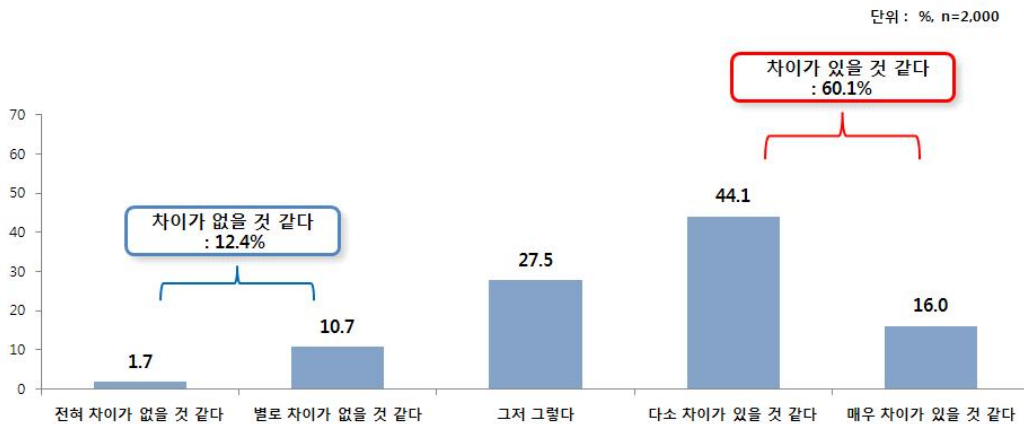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0	6.3	22.8	47.3	22.6	7.3	22.8	69.9
성별	남성	926	0.3	6.3	21.9	47.3	24.2	6.6	21.9	71.5
	여성	1,074	1.6	6.2	23.7	47.3	21.2	7.8	23.7	68.5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5.7	19.9	48.2	25.7	6.2	19.9	73.9
	중학교	705	1.4	6.1	22.8	46.2	23.5	7.5	22.8	69.7
	고등학교	731	1.0	6.8	25.3	47.6	19.3	7.8	25.3	66.9
종교	기독교	535	0.6	5.0	23.9	46.2	24.3	5.6	23.9	70.5
	불교	200	1.0	8.5	20.5	49.0	21.0	9.5	20.5	70.0
	가톨릭	153	0.0	9.2	20.8	41.2	28.8	9.2	20.8	70.0
	무교	1,098	1.4	6.0	22.9	48.3	21.4	7.4	22.9	69.7
	기타	14	0.0	7.1	28.7	57.1	7.1	7.1	28.7	64.2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7	6.8	22.2	46.7	23.6	7.5	22.2	70.3
	보통	552	0.9	4.7	23.9	51.8	18.7	5.6	23.9	70.5
	불만	162	3.7	7.4	24.1	37.0	27.8	11.1	24.1	64.8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9	8.0	17.9	44.4	27.8	9.9	17.9	72.2
	중	1,177	0.8	6.2	22.6	48.6	21.8	7.0	22.6	70.4
	하	661	1.2	5.9	24.5	45.7	22.7	7.1	24.5	68.4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0.0	11.7	12.9	45.5	29.9	11.7	12.9	75.4
	중	1,053	0.7	6.5	22.0	47.6	23.2	7.2	22.0	70.8
	하	870	1.5	5.5	24.6	47.1	21.3	7.0	24.6	68.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4.4	21.8	45.3	28.5	4.4	21.8	73.8
	중	1,709	0.9	6.7	22.9	47.7	21.8	7.6	22.9	69.5
	하	154	2.6	2.6	24.6	44.2	26.0	5.2	24.6	70.2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5.8	22.4	45.6	25.2	6.8	22.4	70.8
	없다	1,897	1.0	6.3	22.8	47.4	22.5	7.3	22.8	69.9

(6) 학교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학교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학교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0.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6.0%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1%)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7.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2.4%(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2.5%)이 여성(57.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6.3%)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62.0%)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1.3%),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9.1%, 71.4%),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65.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0】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표 II-43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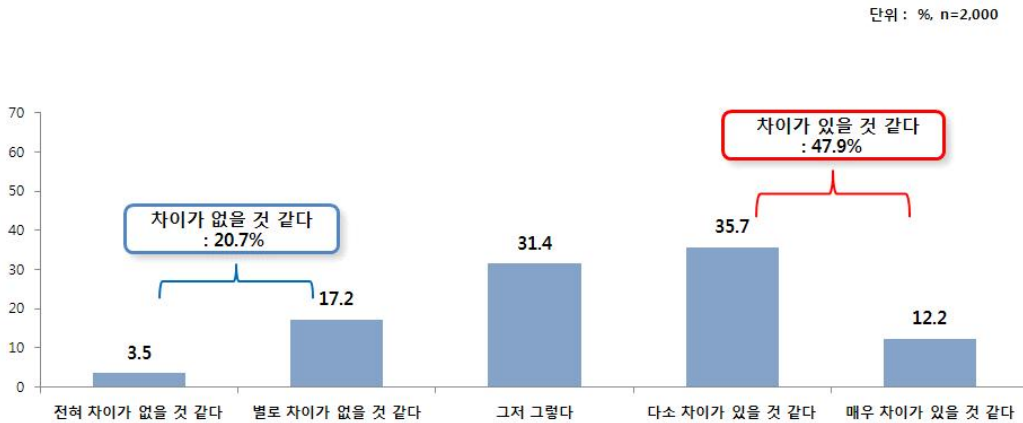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10.7	27.5	44.1	16.0	12.4	27.5	60.1
성별	남성	926	0.9	9.9	26.7	45.7	16.8	10.8	26.7	62.5
	여성	1,074	2.4	11.3	28.5	42.6	15.2	13.7	28.5	57.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4	7.3	26.0	48.2	18.1	7.6	26.1	66.3
	중학교	705	2.3	10.5	27.7	42.6	16.9	12.8	27.8	59.4
	고등학교	731	2.2	13.4	28.7	42.3	13.4	15.6	28.7	55.7
종교	기독교	535	1.9	10.7	25.9	44.1	17.4	12.5	26.0	61.5
	불교	200	1.5	9.5	27.0	43.0	19.0	11.0	27.0	62.0
	가톨릭	153	0.7	11.1	28.1	43.1	17.0	11.8	28.1	60.1
	무교	1,098	1.8	10.8	28.4	44.5	14.5	12.7	28.3	59.0
	기타	14	0.0	7.1	42.9	28.6	21.4	7.1	42.9	50.0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11.1	26.4	44.9	16.4	12.4	26.4	61.3
	보통	552	2.2	10.3	30.1	42.9	14.5	12.5	30.1	57.4
	불만	162	3.7	8.0	29.6	41.4	17.3	11.7	29.6	58.6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0.0	11.7	19.2	51.2	17.9	11.7	19.1	69.1
	중	1,177	1.5	9.5	29.2	44.0	15.8	11.0	29.1	59.8
	하	661	2.4	12.4	27.1	42.4	15.7	14.8	27.1	58.1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9.1	18.1	49.4	22.1	10.4	18.2	71.4
	중	1,053	0.8	9.8	29.0	43.7	16.7	10.5	29.1	60.4
	하	870	2.9	11.8	26.8	44.0	14.5	14.7	26.8	58.5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5.8	28.5	38.7	27.0	5.8	28.5	65.7
	중	1,709	1.8	11.5	27.6	45.0	14.1	13.3	27.6	59.1
	하	154	2.6	5.2	27.3	38.3	26.6	7.8	27.3	64.9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17.5	23.2	34.0	24.3	18.4	23.3	58.3
	없다	1,897	1.7	10.3	27.9	44.6	15.5	12.0	27.9	60.1

(7) 친구관계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친구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9%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친구관계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9%(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2.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35.7%)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31.4%, ‘차이가 없을 것 같다’ 20.7%(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3.5%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1.3%)이 여성(45.0%)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4.1%)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가톨릭(54.9%)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49.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1.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51.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1】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표 II-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친구관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3.5	17.2	31.4	35.7	12.2	20.7	31.4	47.9
성별	남성	926	1.7	15.6	31.4	37.9	13.4	17.3	31.4	51.3
	여성	1,074	4.9	18.6	31.5	33.8	11.2	23.5	31.5	45.0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2.2	32.3	41.0	13.1	13.6	32.3	54.1
	중학교	705	4.3	17.0	28.2	36.7	13.8	21.3	28.2	50.5
	고등학교	731	4.2	21.2	34.0	30.6	10.0	25.4	34.0	40.6
종교	기독교	535	2.8	19.6	30.2	33.6	13.8	22.4	30.2	47.4
	불교	200	4.5	16.0	30.5	33.5	15.5	20.5	30.5	49.0
	가톨릭	153	0.7	11.8	32.6	41.2	13.7	12.5	32.6	54.9
	무교	1,098	4.0	17.1	32.0	36.2	10.7	21.1	32.0	46.9
	기타	14	0.0	7.1	35.8	50.0	7.1	7.1	35.8	57.1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1	17.0	30.1	37.4	12.4	20.1	30.1	49.8
	보통	552	3.6	17.2	34.3	33.5	11.4	20.8	34.3	44.9
	불만	162	5.6	18.5	33.3	29.6	13.0	24.1	33.3	42.6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5.6	14.2	28.3	37.7	14.2	19.8	28.3	51.9
	중	1,177	2.5	16.6	31.8	37.2	11.9	19.1	31.8	49.1
	하	661	4.5	19.1	31.6	32.5	12.3	23.6	31.6	44.8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9.1	29.8	44.2	15.6	10.4	29.8	59.8
	중	1,053	2.4	16.8	31.8	35.7	13.3	19.2	31.8	49.0
	하	870	4.9	18.4	31.2	34.9	10.6	23.3	31.2	45.5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19.7	30.7	31.4	18.2	19.7	30.7	49.6
	중	1,709	3.5	17.2	31.9	36.3	11.1	20.7	31.9	47.4
	하	154	6.5	14.9	27.3	32.5	18.8	21.4	27.3	51.3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2.9	22.3	26.3	30.1	18.4	25.2	26.3	48.5
	없다	1,897	3.5	16.9	31.7	36.0	11.9	20.4	31.7	47.9

(8) 문화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6.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생활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6.6%(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2%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7.4%)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4.3%, ‘차이가 없을 것 같다’ 9.1%(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3%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8.5%)이 여성(64.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7.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2.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75.9%), 이산가족이 없을 때(66.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2】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표 II-4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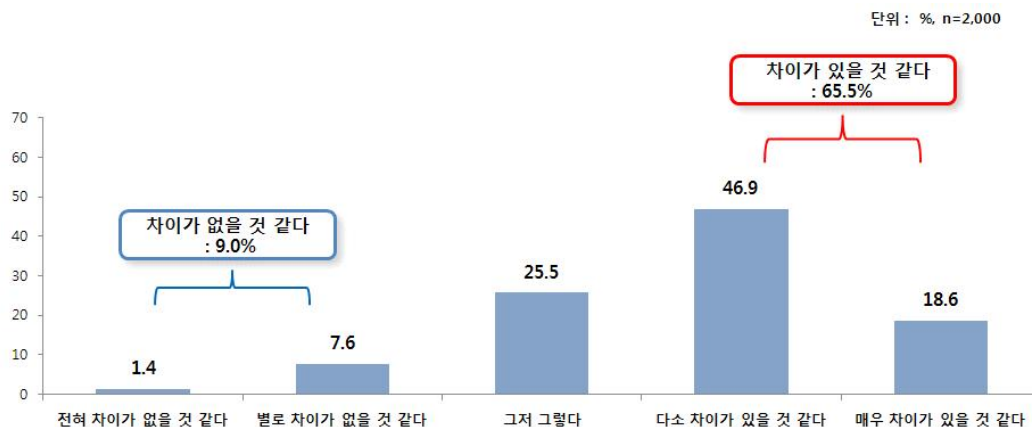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3	7.8	24.3	47.4	19.2	9.1	24.3	66.6
성별	남성	926	0.4	8.1	23.0	50.0	18.5	8.5	23.0	68.5
	여성	1,074	2.0	7.4	25.8	45.1	19.7	9.4	25.8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6.2	21.1	47.2	25.0	6.7	21.1	72.2
	중학교	705	1.6	8.5	23.5	47.4	19.0	10.1	23.5	66.4
	고등학교	731	1.6	8.2	27.9	47.5	14.8	9.8	27.9	62.3
종교	기독교	535	1.1	6.9	24.3	47.3	20.4	8.0	24.3	67.7
	불교	200	1.5	8.0	22.5	47.0	21.0	9.5	22.5	68.0
	가톨릭	153	0.0	5.2	29.4	47.1	18.3	5.2	29.4	65.4
	무교	1,098	1.5	8.6	24.1	47.4	18.4	10.1	24.1	65.8
	기타	14	0.0	0.0	28.6	57.1	14.3	0.0	28.6	71.4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0	7.7	23.8	47.4	20.1	8.7	23.8	67.5
	보통	552	0.9	7.1	25.1	49.5	17.4	8.0	25.1	66.9
	불만	162	4.9	10.5	27.2	39.5	17.9	15.4	27.2	57.4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1.2	3.1	23.5	50.0	22.2	4.3	23.5	72.2
	중	1,177	0.8	7.7	24.5	47.5	19.5	8.5	24.5	67.0
	하	661	2.1	8.9	24.7	46.4	17.9	11.0	24.7	64.3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1.3	3.9	16.8	49.4	28.6	5.2	16.8	78.0
	중	1,053	0.5	7.8	23.0	48.1	20.6	8.3	23.0	68.7
	하	870	2.3	8.0	26.9	46.2	16.6	10.3	26.9	62.8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1.5	2.9	30.0	47.4	18.2	4.4	30.0	65.6
	중	1,709	1.2	8.2	24.9	46.8	18.9	9.4	24.9	65.7
	하	154	2.6	7.1	14.4	53.2	22.7	9.7	14.4	75.9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9	7.8	28.2	33.0	29.1	9.7	28.2	62.1
	없다	1,897	1.3	7.7	24.3	48.1	18.6	9.0	24.3	66.7

(9) 교육 수준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5%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육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5.5%(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8.6%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6.9%)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5%, ‘차이가 없을 것 같다’ 9.0%(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4%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7.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6.1%)이 여성(64.8%)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7.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66.5%)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6.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74.7%), 이산가족이 없을 때(65.8%)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3】 남북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표 II-46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교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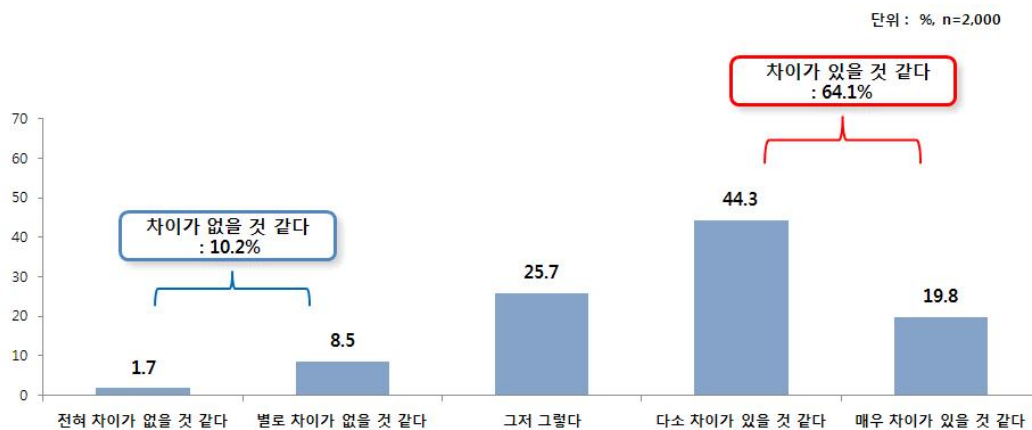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4	7.6	25.5	46.9	18.6	9.0	25.5	65.5
성별	남성	926	1.1	7.6	25.2	47.5	18.6	8.7	25.2	66.1
	여성	1,074	1.6	7.5	26.1	46.3	18.5	9.1	26.1	64.8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6.0	25.6	48.9	18.6	6.9	25.6	67.5
	중학교	705	2.0	8.5	25.4	45.4	18.7	10.5	25.4	64.1
	고등학교	731	1.1	7.8	26.2	46.6	18.3	8.9	26.2	64.9
종교	기독교	535	1.1	7.5	25.7	46.4	19.3	8.6	25.7	65.7
	불교	200	1.5	6.5	25.5	45.5	21.0	8.0	25.5	66.5
	가톨릭	153	1.3	7.8	32.1	39.2	19.6	9.1	32.1	58.8
	무교	1,098	1.5	7.8	24.9	48.0	17.8	9.3	24.9	65.8
	기타	14	0.0	0.0	14.3	78.6	7.1	0.0	14.3	85.7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8	8.0	24.9	46.7	19.6	8.8	24.9	66.3
	보통	552	1.6	7.1	26.2	49.5	15.6	8.7	26.2	65.1
	불만	162	4.9	5.6	29.6	39.5	20.4	10.5	29.6	59.9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0.6	8.6	24.7	42.6	23.5	9.2	24.7	66.1
	중	1,177	1.1	7.2	26.7	47.6	17.4	8.3	26.7	65.0
	하	661	2.0	7.9	24.1	46.6	19.4	9.9	24.1	66.0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0.0	9.1	22.0	45.5	23.4	9.1	22.0	68.9
	중	1,053	0.9	6.9	26.2	46.3	19.7	7.8	26.2	66.0
	하	870	2.0	8.2	25.4	47.6	16.8	10.2	25.4	64.4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7	5.1	25.5	45.3	23.4	5.8	25.5	68.7
	중	1,709	1.3	8.1	26.3	46.5	17.8	9.4	26.3	64.3
	하	154	2.6	3.9	18.8	52.6	22.1	6.5	18.8	74.7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2.9	9.7	29.2	38.8	19.4	12.6	29.2	58.2
	없다	1,897	1.3	7.4	25.5	47.3	18.5	8.7	25.5	65.8

(10) 여가생활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여가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4.1%

남북한 청소년 간의 여가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64.1%(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19.8% +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44.3%)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5.7%,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0.2%(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1.7% +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8.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5.6%)이 여성(62.7%)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9.9%)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는 불교(70.0%)일 경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5.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73.4%),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64.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4】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표 II-47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_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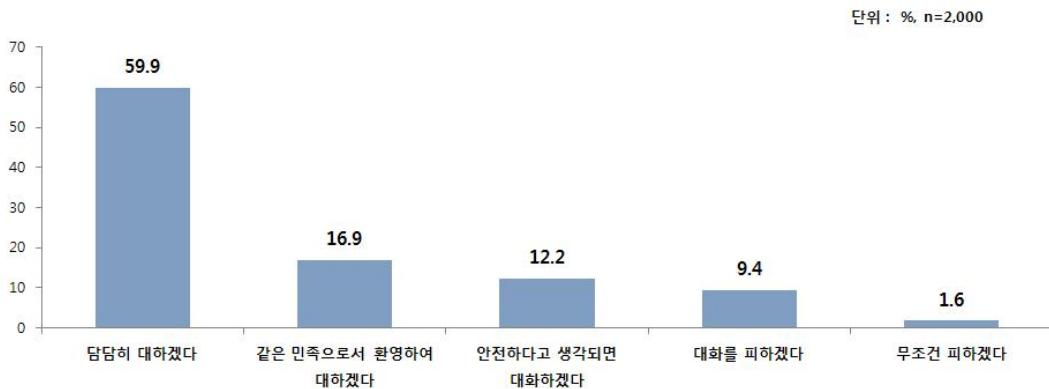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매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체		2,000	1.7	8.5	25.7	44.3	19.8	10.2	25.7	64.1
성별	남성	926	1.2	7.3	25.9	45.8	19.8	8.5	25.9	65.6
	여성	1,074	2.0	9.4	25.9	43.0	19.7	11.4	25.9	62.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7.4	22.2	48.6	21.3	7.9	22.2	69.9
	중학교	705	2.0	7.7	24.2	44.8	21.3	9.7	24.2	66.1
	고등학교	731	2.2	10.0	30.2	40.5	17.1	12.2	30.2	57.6
종교	기독교	535	1.7	7.7	25.8	42.2	22.6	9.4	25.8	64.8
	불교	200	1.0	7.0	22.0	48.5	21.5	8.0	22.0	70.0
	가톨릭	153	0.0	7.2	32.7	44.4	15.7	7.2	32.7	60.1
	무교	1,098	2.0	9.3	25.7	44.3	18.7	11.3	25.7	63.0
	기타	14	0.0	7.1	14.3	64.3	14.3	7.1	14.3	78.6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	8.6	24.5	45.3	20.5	9.7	24.5	65.8
	보통	552	2.2	8.9	27.0	44.0	17.9	11.1	27.0	61.9
	불만	162	4.3	6.2	32.0	37.7	19.8	10.5	32.0	57.5
아버지 의 교육 수준	상	162	0.6	8.0	20.4	46.9	24.1	8.6	20.4	71.0
	중	1,177	1.2	8.1	26.5	44.7	19.5	9.3	26.5	64.2
	하	661	2.7	9.2	26.0	43.0	19.1	11.9	26.0	62.1
어머니 의 교육 수준	상	77	0.0	10.4	22.0	42.9	24.7	10.4	22.0	67.6
	중	1,053	0.9	8.7	24.2	44.7	21.5	9.6	24.2	66.2
	하	870	2.6	7.9	28.4	43.9	17.2	10.5	28.4	61.1
가정의 경제 수준	상	137	0.0	7.3	24.1	43.1	25.5	7.3	24.1	68.6
	중	1,709	1.6	8.8	26.7	43.9	19.0	10.4	26.7	62.9
	하	154	3.9	5.2	17.5	50.0	23.4	9.1	17.5	73.4
이산 가족 유무	있다	103	1.0	7.8	34.9	36.9	19.4	8.8	34.9	56.3
	없다	1,897	1.7	8.5	25.3	44.7	19.8	10.2	25.3	64.5

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
‘담담히 대화하겠다’라는 의견이 59.9%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화하겠다’가 59.9%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화하겠다’ 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하겠다’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61.4%) ‘담담히 대화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63.0%)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61.1%)인 경우, 이산가족이 없을 때(60.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5】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표 II-48 북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취할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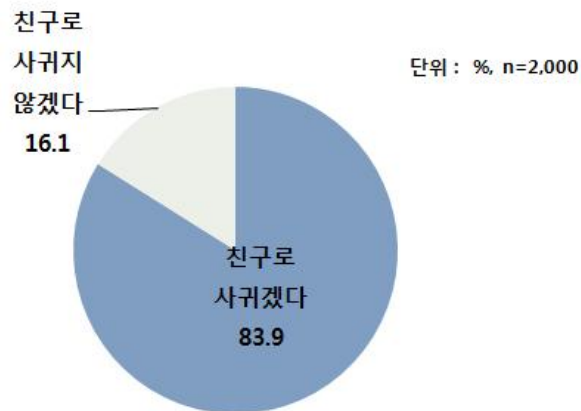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담담히 대하겠다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하겠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하겠다	대화를 피하겠다	무조건 피하겠다
전체		2,000	59.9	16.9	12.2	9.4	1.6
성별	남성	926	59.8	15.6	12.0	10.2	2.4
	여성	1,074	59.9	18.0	12.3	8.8	1.0
학교급	초등학교	564	59.2	15.1	13.3	11.2	1.2
	중학교	705	58.7	18.0	12.3	8.2	2.8
	고등학교	731	61.4	17.1	11.1	9.2	1.2
종교	기독교	535	57.6	17.9	12.3	11.0	1.2
	불교	200	61.5	13.5	10.5	11.0	3.5
	가톨릭	153	52.9	16.3	17.6	9.8	3.4
	무교	1,098	61.5	16.8	11.7	8.4	1.6
	기타	14	71.4	28.6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0.3	17.4	12.0	8.7	1.6
	보통	552	63.0	14.9	11.2	9.1	1.8
	불만	162	45.7	19.1	16.7	16.0	2.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0.5	16.0	11.7	11.7	0.1
	중	1,177	60.7	15.6	11.7	10.0	2.0
	하	661	58.1	19.2	13.0	7.7	2.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0.6	22.1	13.0	13.0	1.3
	중	1,053	60.5	14.6	11.4	11.3	2.2
	하	870	59.9	19.1	13.0	6.8	1.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2.6	15.3	14.6	16.8	0.7
	중	1,709	61.1	16.8	11.4	9.1	1.6
	하	154	51.9	18.8	18.8	5.8	4.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6.3	18.4	9.7	12.6	3.0
	없다	1,897	60.0	16.8	12.3	9.2	1.7

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친구로 사귀겠다 83.9% >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16.1%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으로는,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83.9%로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1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5.0%)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84.9%),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85.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5.7%), 이산가족이 없을 때(84.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6】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표 II-49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의향

단위[%]		사례수(명)	친구로 사귀겠다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
전체		2,000	83.9	16.1
성별	남성	926	83.8	16.2
	여성	1,074	84.0	16.0
학교급	초등학교	564	82.8	17.2
	중학교	705	83.7	16.3
	고등학교	731	85.0	15.0
종교	기독교	535	84.9	15.1
	불교	200	78.5	21.5
	가톨릭	153	77.1	22.9
	무교	1,098	85.2	14.8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4.9	15.1
	보통	552	83.5	16.5
	불만	162	77.2	2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2.1	17.9
	중	1,177	83.0	17.0
	하	661	85.9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9.2	20.8
	중	1,053	81.4	18.6
	하	870	87.4	12.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8.1	21.9
	중	1,709	84.2	15.8
	하	154	85.7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82.5	17.5
	없다	1,897	84.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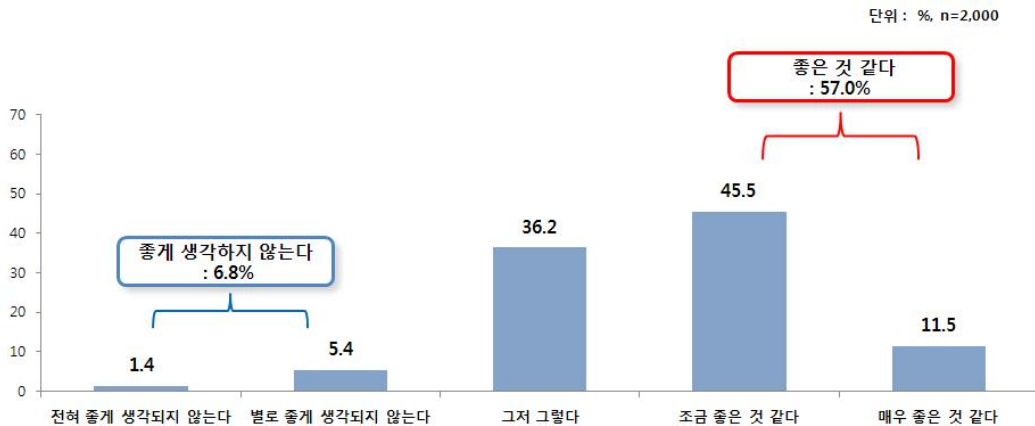
7) 다른 국가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

(1)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57.0%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6.8%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좋은 것 같다'는 응답이 57.0%(매우 좋은 것 같다: 11.5% + 조금 좋은 것 같다: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6.2%,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6.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4%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8.8%)이 여성(55.3%)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60.4%)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8.6%),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7.9%), 이산가족이 없는 경우(57.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7】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50 미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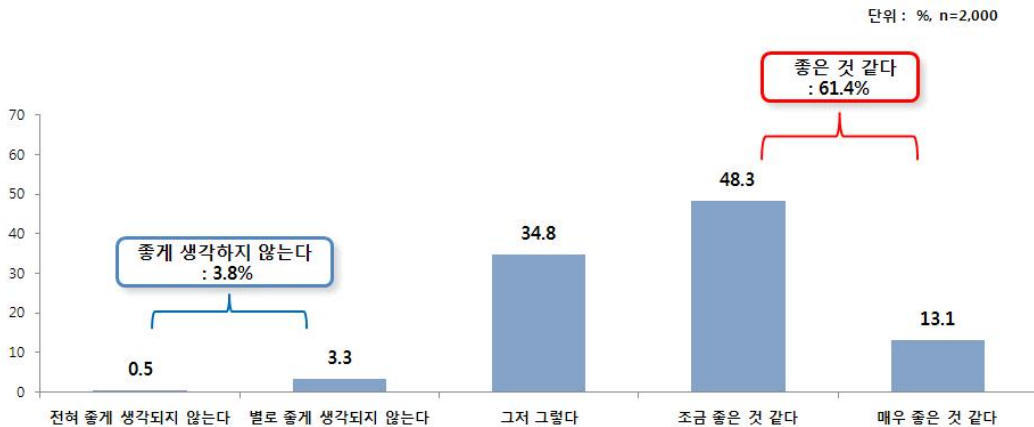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4	5.4	36.2	45.5	11.5	6.8	36.2	57.0
성별	남성	926	1.9	6.3	33.0	48.1	10.7	8.2	33.0	58.8
	여성	1,074	0.8	4.7	39.2	43.2	12.1	5.5	39.2	55.3
학교급	초등학교	564	0.7	2.8	36.7	50.0	9.8	3.5	36.7	59.8
	중학교	705	1.8	5.1	32.7	48.5	11.9	6.9	32.7	60.4
	고등학교	731	1.4	7.7	39.6	39.0	12.3	9.1	39.6	51.3
종교	기독교	535	1.9	4.9	31.9	50.1	11.2	6.8	31.9	61.3
	불교	200	2.0	6.5	40.5	42.5	8.5	8.5	40.5	51.0
	가톨릭	153	3.3	5.9	41.1	41.2	8.5	9.2	41.1	49.7
	무교	1,098	0.7	5.5	36.9	44.3	12.6	6.2	36.9	56.9
	기타	14	0.0	0.0	42.9	50.0	7.1	0.0	42.9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	5.0	32.3	50.1	11.4	6.2	32.3	61.5
	보통	552	1.8	6.5	41.4	40.0	10.3	8.3	41.4	50.3
	불만	162	0.6	4.9	51.3	27.2	16.0	5.5	51.3	43.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2.5	28.3	55.6	13.0	3.1	28.3	68.6
	중	1,177	1.2	5.8	36.6	45.5	10.9	7.0	36.6	56.4
	하	661	1.8	5.4	37.9	42.8	12.1	7.2	37.9	54.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24.7	55.8	15.6	3.9	24.7	71.4
	중	1,053	1.5	4.9	36.1	46.6	10.9	6.4	36.1	57.5
	하	870	1.1	6.2	37.9	43.1	11.7	7.3	37.9	54.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4.4	26.2	51.8	16.1	5.9	26.2	67.9
	중	1,709	1.4	5.4	37.4	45.4	10.4	6.8	37.4	55.8
	하	154	0.6	6.5	33.8	40.3	18.8	7.1	33.8	59.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4.9	44.6	30.1	16.5	8.8	44.6	46.6
	없다	1,897	1.2	5.4	35.9	46.3	11.2	6.6	35.9	57.5

(2)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61.4%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좋은 것 같다'는 응답이 61.4%(매우 좋은 것 같다: 13.1% + 조금 좋은 것 같다: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4.8%,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3.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0.5%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2.2%)이 여성(60.7%)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63.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64.9%)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66.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1.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9.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8】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51 유럽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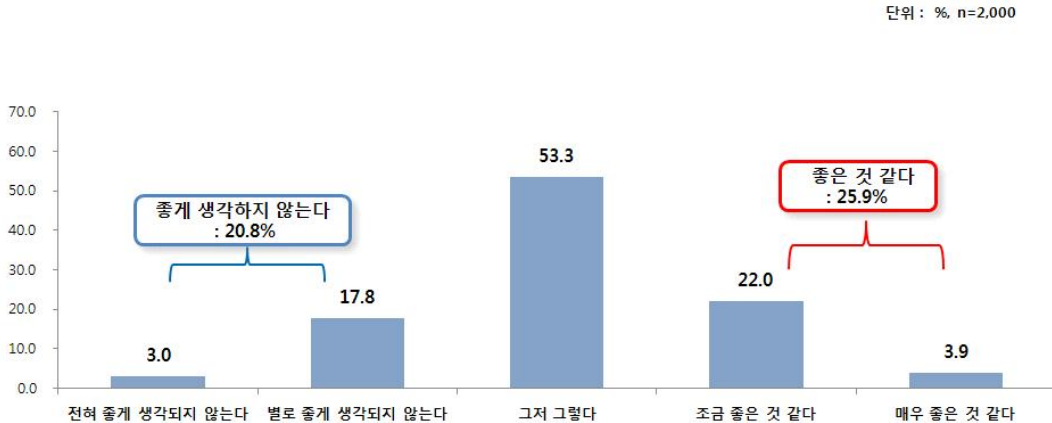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0.5	3.3	34.8	48.3	13.1	3.8	34.8	61.4
성별	남성	926	0.6	3.8	33.4	50.8	11.4	4.4	33.4	62.2
	여성	1,074	0.4	2.9	36.0	46.2	14.5	3.3	36.0	60.7
학교급	초등학교	564	0.2	2.1	34.6	53.2	9.9	2.3	34.6	63.1
	중학교	705	1.0	2.8	32.8	49.9	13.5	3.8	32.8	63.4
	고등학교	731	0.3	4.7	36.8	43.0	15.2	5.0	36.8	58.2
종교	기독교	535	0.4	3.7	31.0	54.4	10.5	4.1	31.0	64.9
	불교	200	1.0	3.5	36.0	49.5	10.0	4.5	36.0	59.5
	가톨릭	153	1.3	4.6	39.2	42.5	12.4	5.9	39.2	54.9
	무교	1,098	0.4	2.9	35.8	45.9	15.0	3.3	35.8	60.9
	기타	14	0.0	0.0	35.7	50.0	14.3	0.0	35.7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0.5	2.9	30.6	52.9	13.1	3.4	30.6	66.0
	보통	552	0.7	4.7	41.4	42.0	11.2	5.4	41.4	53.2
	불만	162	0.0	1.9	45.7	33.3	19.1	1.9	45.7	52.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0.6	0.0	28.4	56.8	14.2	0.6	28.4	71.0
	중	1,177	0.3	3.7	34.4	49.4	12.2	4.0	34.4	61.6
	하	661	0.9	3.5	36.9	44.3	14.4	4.4	36.9	58.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0.0	28.6	57.1	13.0	1.3	28.6	70.1
	중	1,053	0.4	3.2	33.4	50.5	12.5	3.6	33.4	63.0
	하	870	0.6	3.7	37.1	44.8	13.8	4.3	37.1	58.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2.9	27.1	49.6	19.7	3.6	27.1	69.3
	중	1,709	0.5	3.2	35.9	48.5	11.9	3.7	35.9	60.4
	하	154	0.0	4.5	29.9	44.8	20.8	4.5	29.9	65.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4.9	34.9	43.7	15.5	5.9	34.9	59.2
	없다	1,897	0.5	3.2	34.7	48.6	13.0	3.7	34.7	61.6

(3)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25.9%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20.8%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25.9%(매우 좋은 것 같다: 3.9% + 조금 좋은 것 같다: 22.0%),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20.8%(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3.0%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5.2%)이 여성(26.3%)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7.8%)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27.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6.6%),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7.8%)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9】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52 중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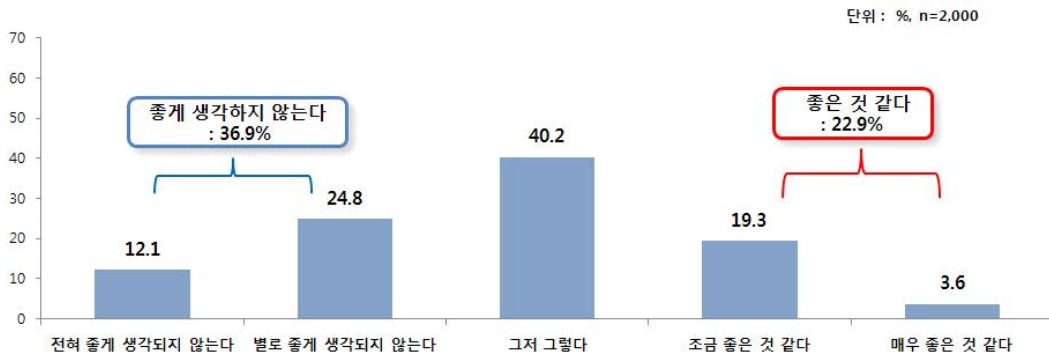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3.0	17.8	53.3	22.0	3.9	20.8	53.3	25.9
성별	남성	926	2.8	19.9	52.1	22.6	2.6	22.7	52.1	25.2
	여성	1,074	3.1	16.0	54.6	21.4	4.9	19.1	54.6	26.3
학교급	초등학교	564	1.4	17.0	55.8	23.0	2.8	18.4	55.8	25.8
	중학교	705	3.3	16.7	52.2	23.8	4.0	20.0	52.2	27.8
	고등학교	731	3.8	19.4	53.0	19.3	4.5	23.2	53.0	23.8
종교	기독교	535	3.2	17.8	49.4	24.7	4.9	21.0	49.4	29.6
	불교	200	5.0	14.0	65.0	14.0	2.0	19.0	65.0	16.0
	가톨릭	153	3.3	15.0	58.8	22.2	0.7	18.3	58.8	22.9
	무교	1,098	2.5	18.9	52.5	21.9	4.2	21.4	52.5	26.1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0	17.0	52.4	24.1	3.5	20.0	52.4	27.6
	보통	552	2.5	20.5	54.6	18.8	3.6	23.0	54.6	22.4
	불만	162	4.3	15.4	57.5	15.4	7.4	19.7	57.5	22.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18.5	51.8	23.5	3.1	21.6	51.8	26.6
	중	1,177	1.9	17.8	54.0	22.7	3.6	19.7	54.0	26.3
	하	661	4.8	17.5	52.9	20.3	4.5	22.3	52.9	24.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19.5	48.0	28.6	1.3	22.1	48.0	29.9
	중	1,053	2.1	16.6	56.1	21.9	3.3	18.7	56.1	25.2
	하	870	4.0	19.1	50.8	21.4	4.7	23.1	50.8	2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14.6	55.4	23.4	4.4	16.8	55.4	27.8
	중	1,709	2.8	18.2	53.4	22.3	3.3	21.0	53.4	25.6
	하	154	5.2	16.2	52.6	16.9	9.1	21.4	52.6	26.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4.6	56.3	16.5	9.7	17.5	56.3	26.2
	없다	1,897	3.0	18.0	53.3	22.2	3.5	21.0	53.3	25.7

(4)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22.9%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6.9%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22.9%(매우 좋은 것 같다: 3.6% + 조금 좋은 것 같다: 19.3%),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36.9%(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2.1%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4.1%)이 여성(21.7%)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5.4%)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26.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25.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29.2%)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0】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53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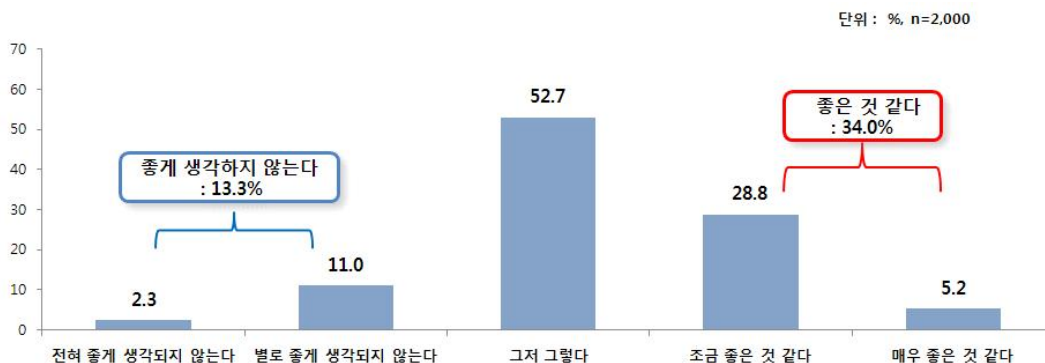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12.1	24.8	40.2	19.3	3.6	36.9	40.2	22.9
성별	남성	926	12.9	25.8	37.2	20.8	3.3	38.7	37.2	24.1
	여성	1,074	11.5	23.9	42.9	18.0	3.7	35.4	42.9	2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9	28.4	40.9	17.0	1.8	40.3	40.9	18.8
	중학교	705	12.8	25.7	36.1	21.0	4.4	38.5	36.1	25.4
	고등학교	731	11.6	21.2	43.7	19.4	4.1	32.8	43.7	23.5
종교	기독교	535	12.9	24.3	37.2	22.2	3.4	37.2	37.2	25.6
	불교	200	15.5	28.0	40.0	13.5	3.0	43.5	40.0	16.5
	가톨릭	153	15.0	22.9	46.4	15.0	0.7	37.9	46.4	15.7
	무교	1,098	10.8	24.9	40.7	19.4	4.2	35.7	40.7	23.6
	기타	14	0.0	14.3	57.1	28.6	0.0	14.3	57.1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5	25.7	39.7	18.9	3.2	38.2	39.7	22.1
	보통	552	10.7	23.7	41.9	20.1	3.6	34.4	41.9	23.7
	불만	162	13.6	21.0	39.4	19.8	6.2	34.6	39.4	26.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8.5	24.1	35.8	18.5	3.1	42.6	35.8	21.6
	중	1,177	11.5	25.7	41.2	18.4	3.2	37.2	41.2	21.6
	하	661	11.6	23.4	39.8	21.0	4.2	35.0	39.8	25.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4.3	19.5	41.5	22.1	2.6	33.8	41.5	24.7
	중	1,053	12.2	26.2	40.5	18.3	2.8	38.4	40.5	21.1
	하	870	11.8	23.6	39.9	20.2	4.5	35.4	39.9	24.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1	25.5	32.9	21.9	6.6	38.6	32.9	28.5
	중	1,709	12.1	25.3	40.8	18.9	2.9	37.4	40.8	21.8
	하	154	11.7	18.8	40.3	21.4	7.8	30.5	40.3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6.5	30.1	32.0	17.5	3.9	46.6	32.0	21.4
	없다	1,897	11.9	24.5	40.7	19.4	3.5	36.4	40.7	22.9

(5)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좋은 것 같다 34.0% >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13.3%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은 것 같다' 34.0%(매우 좋은 것 같다: 5.2% + 조금 좋은 것 같다: 28.8%),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13.3%(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2.3% +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5%)이 여성(32.6%)보다 '좋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36.1%)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36.0%),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37.4%),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38.9%)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표 II-54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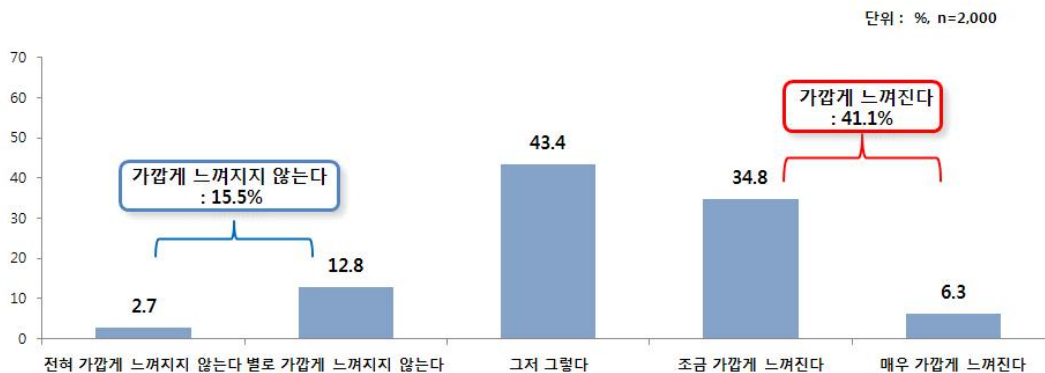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좋은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은 것 같다*
전체		2,000	2.3	11.0	52.7	28.8	5.2	13.3	52.7	34.0
성별	남성	926	2.2	12.6	49.7	31.5	4.0	14.8	49.7	35.5
	여성	1,074	2.3	9.5	55.6	26.4	6.2	11.8	55.6	32.6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12.9	54.2	27.8	3.0	15.0	54.2	30.8
	중학교	705	3.0	11.3	49.6	29.1	7.0	14.3	49.6	36.1
	고등학교	731	1.6	9.0	55.1	29.1	5.2	10.6	55.1	34.3
종교	기독교	535	2.6	9.2	47.4	35.9	4.9	11.8	47.4	40.8
	불교	200	4.0	17.0	54.5	22.5	2.0	21.0	54.5	24.5
	가톨릭	153	3.9	11.8	54.2	24.2	5.9	15.7	54.2	30.1
	무교	1,098	1.5	10.7	54.8	27.1	5.9	12.2	54.8	33.0
	기타	14	0.0	0.0	78.6	21.4	0.0	0.0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6	10.5	50.9	31.3	4.7	13.1	50.9	36.0
	보통	552	1.3	12.1	57.3	24.6	4.7	13.4	57.3	29.3
	불만	162	3.1	10.5	53.1	22.2	11.1	13.6	53.1	33.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9	16.0	50.0	28.4	3.7	17.9	50.0	32.1
	중	1,177	2.0	10.7	55.0	27.7	4.6	12.7	55.0	32.3
	하	661	2.7	10.1	49.8	30.7	6.7	12.8	49.8	37.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1.7	53.2	27.3	3.9	15.6	53.2	31.2
	중	1,053	2.1	13.1	53.3	27.2	4.3	15.2	53.3	31.5
	하	870	2.3	8.3	52.2	30.8	6.4	10.6	52.2	37.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19.7	40.2	30.7	5.8	23.3	40.2	36.5
	중	1,709	2.1	10.1	54.5	28.7	4.6	12.2	54.5	33.3
	하	154	2.6	13.0	45.5	27.9	11.0	15.6	45.5	38.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1.7	44.6	32.0	6.8	16.6	44.6	38.8
	없다	1,897	2.1	10.9	53.3	28.6	5.1	13.0	53.3	33.7

(6)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미국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41.1%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41.1%(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6.3%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34.8%),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5.5%(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7%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6.0%)이 여성(36.8%)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51.3%)일 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45.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8.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54.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2】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55 미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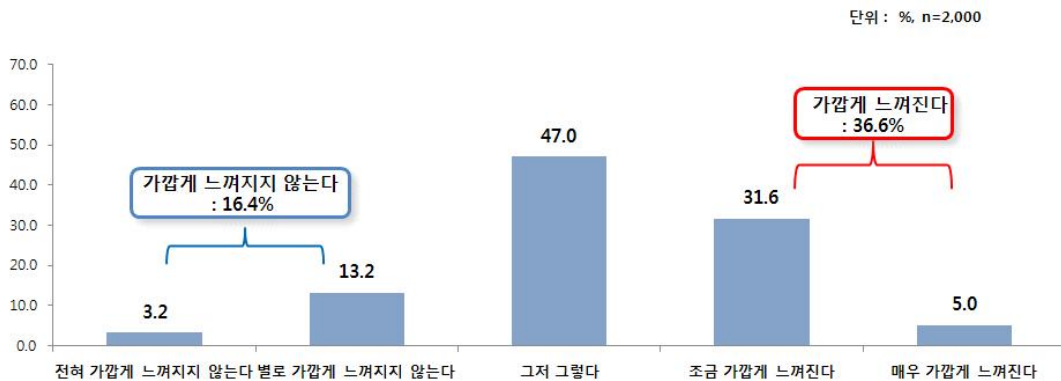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2.7	12.8	43.4	34.8	6.3	15.5	43.4	41.1
성별	남성	926	2.5	11.2	40.3	38.3	7.7	13.7	40.3	46.0
	여성	1,074	2.9	14.1	46.2	31.7	5.1	17.0	46.2	36.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9.0	38.5	44.9	6.4	10.2	38.5	51.3
	중학교	705	2.7	11.6	40.6	36.9	8.2	14.3	40.6	45.1
	고등학교	731	3.8	16.7	50.2	24.9	4.4	20.5	50.2	29.3
종교	기독교	535	2.1	11.8	39.6	39.4	7.1	13.9	39.6	46.5
	불교	200	1.5	15.0	42.0	35.0	6.5	16.5	42.0	41.5
	가톨릭	153	3.3	10.5	44.3	37.3	4.6	13.8	44.3	41.9
	무교	1,098	3.2	13.1	45.4	32.1	6.2	16.3	45.4	38.3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	12.3	40.1	39.0	6.3	14.6	40.1	45.3
	보통	552	3.4	14.5	47.1	29.0	6.0	17.9	47.1	35.0
	불만	162	3.1	10.5	58.6	20.4	7.4	13.6	58.6	27.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2	6.8	34.0	50.0	8.0	8.0	34.0	58.0
	중	1,177	2.4	11.8	42.2	37.7	5.9	14.2	42.2	43.6
	하	661	3.6	15.9	48.1	25.7	6.7	19.5	48.1	3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16.9	25.9	42.9	9.1	22.1	25.9	52.0
	중	1,053	2.0	10.5	42.4	38.8	6.3	12.5	42.4	45.1
	하	870	3.3	15.1	46.4	29.1	6.1	18.4	46.4	3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7.3	36.5	46.0	8.0	9.5	36.5	54.0
	중	1,709	2.6	13.3	44.4	34.1	5.6	15.9	44.4	39.7
	하	154	3.9	11.0	41.0	31.8	12.3	14.9	41.0	44.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7.5	36.9	32.0	8.7	22.4	36.9	40.7
	없다	1,897	2.6	12.5	43.8	34.9	6.2	15.1	43.8	41.1

(7)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유럽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36.6%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36.8%(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5.0%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31.6%),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6.4%(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2%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1.6%)이 여성(32.5%)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44.5%)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40.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0.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46.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3】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56

유럽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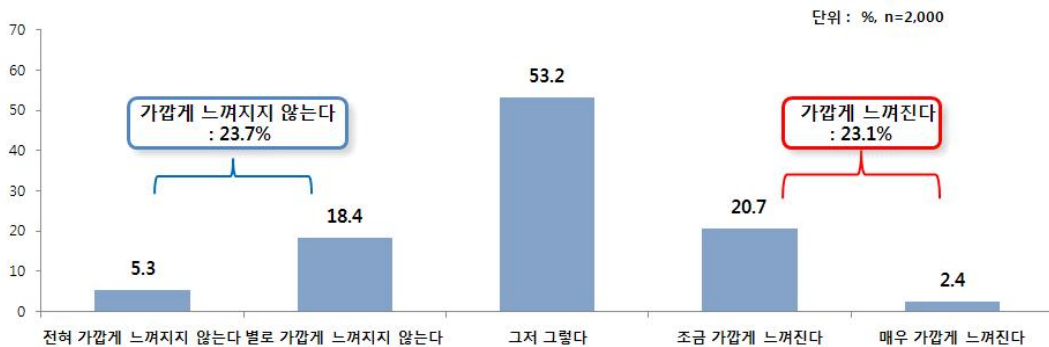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3.2	13.2	47.0	31.6	5.0	16.4	47.0	36.6
성별	남성	926	2.9	10.5	45.0	35.3	6.3	13.4	45.0	41.6
	여성	1,074	3.4	15.5	48.6	28.3	4.2	18.9	48.6	32.5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	10.1	43.8	39.4	5.1	11.7	43.8	44.5
	중학교	705	3.3	12.6	43.7	33.9	6.5	15.9	43.7	40.4
	고등학교	731	4.4	16.0	52.5	23.3	3.8	20.4	52.5	27.1
종교	기독교	535	2.8	12.1	44.4	35.7	5.0	14.9	44.4	40.7
	불교	200	2.5	13.0	46.5	32.0	6.0	15.5	46.5	38.0
	가톨릭	153	2.0	11.8	47.6	32.7	5.9	13.8	47.6	38.6
	무교	1,098	3.7	13.8	48.2	29.3	5.0	17.5	48.2	34.3
	기타	14	0.0	14.3	57.1	28.6	0.0	14.3	57.1	28.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8	12.3	44.2	35.3	5.4	15.1	44.2	40.7
	보통	552	3.8	15.8	51.4	24.8	4.2	19.6	51.4	29.0
	불만	162	4.3	11.1	53.7	24.7	6.2	15.4	53.7	3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9	9.9	38.2	43.2	6.8	11.8	38.2	50.0
	중	1,177	2.5	12.4	46.2	34.1	4.8	14.9	46.2	38.9
	하	661	4.7	15.3	50.4	24.2	5.4	20.0	50.4	29.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5.2	14.3	35.0	39.0	6.5	19.5	35.0	45.5
	중	1,053	2.2	11.2	45.8	35.8	5.0	13.4	45.8	40.8
	하	870	4.3	15.4	49.4	25.7	5.2	19.7	49.4	30.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	10.2	40.2	38.7	8.0	13.1	40.2	46.7
	중	1,709	3.1	13.8	47.7	30.9	4.5	16.9	47.7	35.4
	하	154	4.5	8.4	44.9	32.5	9.7	12.9	44.9	42.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7.5	35.9	35.0	8.7	20.4	35.9	43.7
	없다	1,897	3.2	12.9	47.5	31.4	5.0	16.1	47.5	36.4

(8)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중국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23.1%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23.1%(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2.4%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20.7%),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3.7%(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5.3%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4.1%)이 여성(22.3%)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5.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25.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30.8%),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9.2%)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4】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57 중국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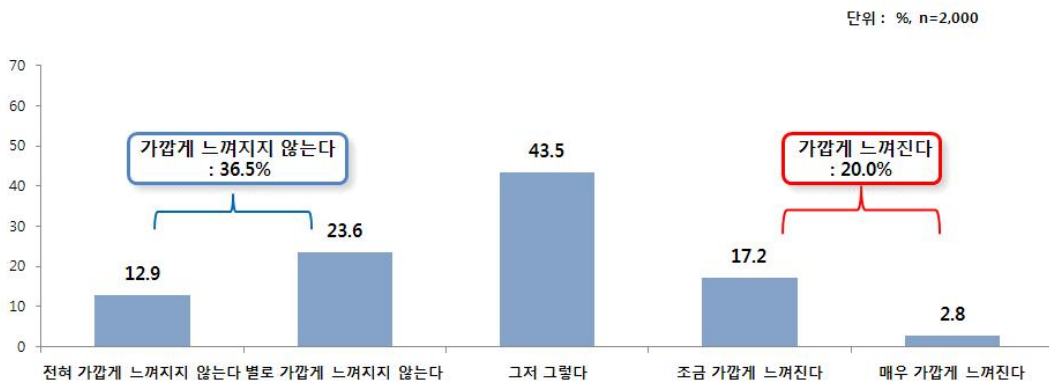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진다 *
전체		2,000	5.3	18.4	53.2	20.7	2.4	23.7	53.2	23.1
성별	남성	926	5.4	16.8	53.7	22.0	2.1	22.2	53.7	24.1
	여성	1,074	5.2	19.7	52.8	19.6	2.7	24.9	52.8	22.3
학교급	초등학교	564	2.7	18.1	56.5	21.1	1.6	20.8	56.5	22.7
	중학교	705	6.7	16.9	51.4	21.6	3.4	23.6	51.4	25.0
	고등학교	731	6.0	20.1	52.2	19.6	2.1	26.1	52.2	21.7
종교	기독교	535	5.4	19.6	49.2	23.2	2.6	25.0	49.2	25.8
	불교	200	3.0	12.5	65.0	19.0	0.5	15.5	65.0	19.5
	가톨릭	153	7.8	15.7	55.6	20.9	0.0	23.5	55.6	20.9
	무교	1,098	5.4	19.3	52.7	19.6	3.0	24.7	52.7	22.6
	기타	14	0.0	14.3	50.0	35.7	0.0	14.3	50.0	35.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2	18.0	52.0	23.6	2.2	22.2	52.0	25.8
	보통	552	7.8	20.3	55.6	13.6	2.7	28.1	55.6	16.3
	불만	162	5.6	14.8	54.3	22.2	3.1	20.4	54.3	25.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5.6	14.8	48.8	26.5	4.3	20.4	48.8	30.8
	중	1,177	4.1	18.4	53.9	21.2	2.4	22.5	53.9	23.6
	하	661	7.4	19.4	52.7	18.5	2.0	26.8	52.7	20.5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8.2	49.3	26.0	2.6	22.1	49.3	28.6
	중	1,053	3.7	16.9	55.8	21.7	1.9	20.6	55.8	23.6
	하	870	7.4	20.2	50.3	19.1	3.0	27.6	50.3	22.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1	14.6	51.1	26.3	2.9	19.7	51.1	29.2
	중	1,709	4.8	19.1	53.7	20.4	2.0	23.9	53.7	22.4
	하	154	11.0	14.3	50.1	18.8	5.8	25.3	50.1	24.6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4.6	49.4	24.3	4.9	21.4	49.4	29.2
	없다	1,897	5.2	18.6	53.4	20.5	2.3	23.8	53.4	22.8

(9)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일본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20.0%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20.0%(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2.8%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17.2%),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6.5%(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2.9%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0.3%)이 여성(19.7%)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21.0%)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24.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2.9%),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27.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5】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58 일본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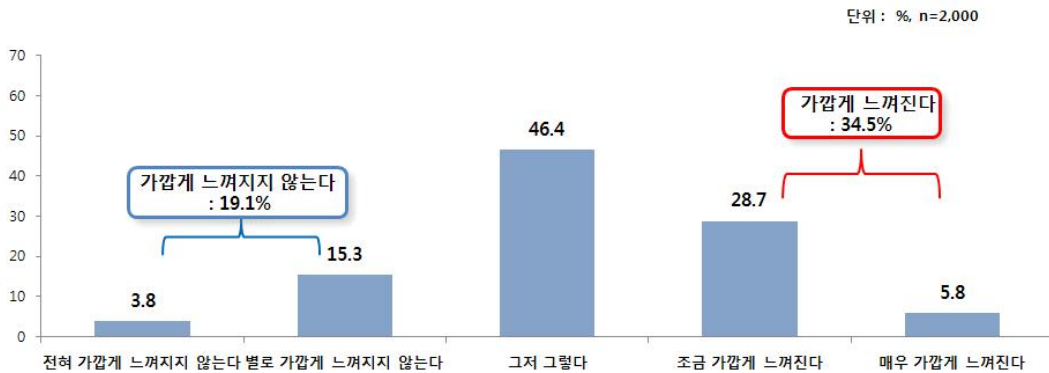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12.9	23.6	43.5	17.2	2.8	36.5	43.5	20.0
성별	남성	926	12.2	24.6	42.9	17.6	2.7	36.8	42.9	20.3
	여성	1,074	13.5	22.7	44.1	16.9	2.8	36.2	44.1	1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7	28.9	42.1	16.1	1.2	40.6	42.1	17.3
	중학교	705	13.5	23.8	41.7	17.7	3.3	37.3	41.7	21.0
	고등학교	731	13.3	19.3	46.5	17.5	3.4	32.6	46.5	20.9
종교	기독교	535	14.8	25.4	39.7	17.9	2.2	40.2	39.7	20.1
	불교	200	13.5	22.0	45.0	17.5	2.0	35.5	45.0	19.5
	가톨릭	153	12.4	26.8	41.8	18.3	0.7	39.2	41.8	19.0
	무교	1,098	12.1	22.7	45.4	16.4	3.4	34.8	45.4	19.8
	기타	14	0.0	14.3	42.9	35.7	7.1	14.3	42.9	42.8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2.4	24.8	42.3	18.0	2.5	37.2	42.3	20.5
	보통	552	14.5	21.9	46.2	15.0	2.4	36.4	46.2	17.4
	불만	162	11.1	19.8	45.0	17.9	6.2	30.9	45.0	24.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7	22.2	38.2	19.8	3.1	38.9	38.2	22.9
	중	1,177	12.7	24.8	43.4	16.6	2.5	37.5	43.4	19.1
	하	661	12.4	21.8	44.9	17.7	3.2	34.2	44.9	2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18.2	44.1	16.9	3.9	35.1	44.1	20.8
	중	1,053	12.3	24.9	43.6	17.2	2.0	37.2	43.6	19.2
	하	870	13.2	22.5	43.5	17.2	3.6	35.7	43.5	20.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23.4	33.5	21.9	5.1	39.5	33.5	27.0
	중	1,709	12.8	23.7	44.5	17.0	2.0	36.5	44.5	19.0
	하	154	11.0	22.7	42.3	15.6	8.4	33.7	42.3	24.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0.4	28.2	27.1	24.3	0.0	48.6	27.1	24.3
	없다	1,897	12.5	23.4	44.4	16.8	2.9	35.9	44.4	19.7

(1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진다' 34.5%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깝게 느껴진다' 34.5%(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5.8% +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28.7%),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9.1%(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3.8% +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5.9%)이 여성(33.1%)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36.8%)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37.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35.2%),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38.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표 II-59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밀도

단위[%]		사례수 (명)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가깝게 느껴진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가깝게 느껴 진다*
전체		2,000	3.8	15.3	46.4	28.7	5.8	19.1	46.4	34.5
성별	남성	926	3.1	16.1	44.9	30.8	5.1	19.2	44.9	35.9
	여성	1,074	4.4	14.6	47.9	26.8	6.3	19.0	47.9	33.1
학교급	초등학교	564	3.0	16.3	48.6	29.4	2.7	19.3	48.6	32.1
	중학교	705	4.5	16.0	42.7	28.9	7.9	20.5	42.7	36.8
	고등학교	731	3.7	13.8	48.7	27.8	6.0	17.5	48.7	33.8
종교	기독교	535	3.9	14.2	43.0	33.1	5.8	18.1	43.0	38.9
	불교	200	6.5	20.0	48.0	23.0	2.5	26.5	48.0	25.5
	가톨릭	153	3.3	20.3	45.7	26.8	3.9	23.6	45.7	30.7
	무교	1,098	3.4	14.3	48.1	27.6	6.6	17.7	48.1	34.2
	기타	14	0.0	14.3	35.7	42.9	7.1	14.3	35.7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7	14.9	43.8	32.0	5.6	18.6	43.8	37.6
	보통	552	3.8	17.2	52.5	21.6	4.9	21.0	52.5	26.5
	불만	162	4.9	12.3	47.0	25.9	9.9	17.2	47.0	35.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5	16.7	46.9	25.9	8.0	19.2	46.9	33.9
	중	1,177	4.2	14.5	46.5	29.7	5.1	18.7	46.5	34.8
	하	661	3.5	16.3	46.3	27.5	6.4	19.8	46.3	33.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10.4	53.2	24.7	9.1	13.0	53.2	33.8
	중	1,053	3.9	15.3	47.0	29.8	4.0	19.2	47.0	33.8
	하	870	3.8	15.7	45.3	27.6	7.6	19.5	45.3	3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5.8	19.0	40.2	29.2	5.8	24.8	40.2	35.0
	중	1,709	3.6	14.9	47.5	28.6	5.4	18.5	47.5	34.0
	하	154	3.9	16.9	40.9	28.6	9.7	20.8	40.9	38.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15.5	40.8	28.2	8.7	22.3	40.8	36.9
	없다	1,897	3.6	15.3	46.8	28.7	5.6	18.9	46.8	34.3

4.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응답자의 87.8%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대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 한다'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신뢰가 낮아서' 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안전문제 때문에' 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9%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 35.4%,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21.2%, '스포츠'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남북한 청소년 교류 횟수로는 '연 2회'가 31.2%로 가장 높고, '수시로' 19.9%, '연 4회' 14.4%, '연 5회 이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만나는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로 가장 높고,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 28.3%,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체육'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0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구분	내용[단위 : %]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교류해야한다	87.8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대한 태도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 한다	8.6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6.1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에 반대하는 이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안전문제 때문에	27.5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9.4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참여할 의사	있다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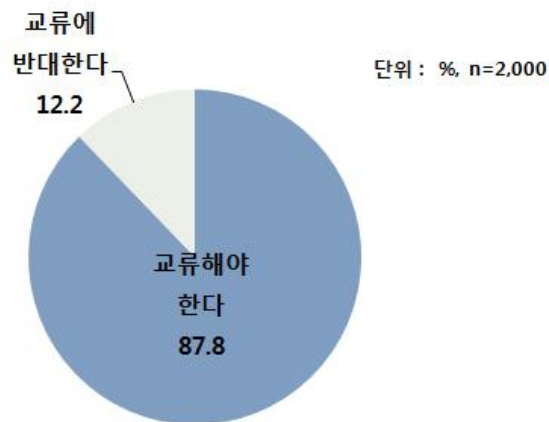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참여하고 싶은 활동	관광 및 견학여행	35.4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21.2
	스포츠	11.6
	상호 방문	9.2
	유적지 답사	5.9
	교육	4.7
	대중매체	3.7
	역사	3.5
	문학	3.4
	종교	0.9
	신문교환	0.4
	초청 강연	0.3
연간 남북한 청소년 교류 횟수	연 2회	31.2
	수시로	19.9
	연 4회	14.4
	연 5회 이상	12.5
	연 3회	11.8
	연 1회	10.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만나는 장소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
	남한	10.2
	판문점	6.3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전통문화	28.3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체육	18.9
	역사	17.6
	유적지 답사	7.0
	교육	5.1
	문학	2.4
	종교	0.6

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교류해야 한다' 87.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는, '교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로 '교류에 반대한다'는 응답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교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90.8%), 종교별로는 기독교(89.2%)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91.4%),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87.9%), 이산가족이 있을 때(91.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7】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표 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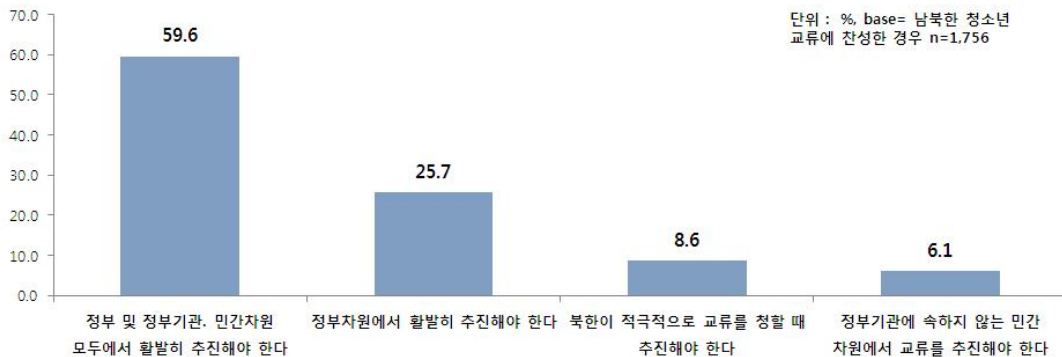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교류해야 한다	교류에 반대 한다
전체		2,000	87.8	12.2
성별	남성	926	87.3	12.7
	여성	1,074	88.3	1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90.8	9.2
	중학교	705	88.7	11.3
	고등학교	731	84.7	15.3
종교	기독교	535	89.2	10.8
	불교	200	82.0	18.0
	가톨릭	153	82.4	17.6
	무교	1,098	88.9	11.1
	기타	14	92.9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89.7	10.3
	보통	552	84.8	15.2
	불만	162	82.7	17.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91.4	8.6
	중	1,177	88.4	11.6
	하	661	85.9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92.2	7.8
	중	1,053	88.0	12.0
	하	870	87.1	12.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6.1	13.9
	중	1,709	87.9	12.1
	하	154	87.7	12.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1.3	8.7
	없다	1,897	87.6	12.4

2)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59.6%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가 가장 높고(59.6%)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25.7%),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8.3%)이 여성(60.8%)보다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61.6%)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61.5%)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63.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8】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표 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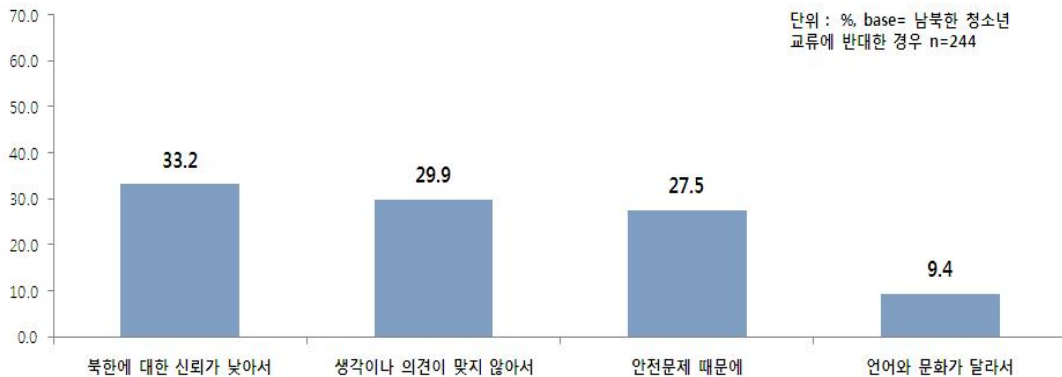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할 때 추진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전체		1,756	59.6	25.7	8.6	6.1
성별	남성	808	58.3	27.7	7.3	6.7
	여성	948	60.8	23.9	9.7	5.6
학교급	초등학교	512	61.3	26.4	6.3	6.0
	중학교	625	61.6	22.7	8.8	6.9
	고등학교	619	56.2	28.1	10.3	5.4
종교	기독교	477	58.7	27.3	6.9	7.1
	불교	164	55.5	31.7	5.5	7.3
	가톨릭	126	60.3	20.6	10.3	8.8
	무교	976	60.7	24.6	9.6	5.1
	기타	13	61.5	23.1	15.4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154	61.1	24.8	7.5	6.6
	보통	468	58.3	27.4	9.0	5.3
	불만	134	51.5	27.6	16.4	4.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8	61.5	19.6	9.5	9.4
	중	1,040	60.1	26.0	7.4	6.5
	하	568	58.3	26.8	10.6	4.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1	70.4	16.9	2.8	9.9
	중	927	58.9	25.5	8.0	7.6
	하	758	59.5	26.8	9.9	3.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18	52.5	32.2	4.2	11.1
	중	1,503	59.9	25.5	8.4	6.2
	하	135	63.0	22.2	14.1	0.7
이산가족 유무	있다	94	59.6	18.1	9.6	12.7
	없다	1,662	59.6	26.1	8.5	5.8

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33.2% >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9.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가 가장 높고(33.2%)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29.9%), '안전문제 때문에'(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0.5%)보다 여성(35.7%)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41.3%)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36.5%)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42.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9】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표 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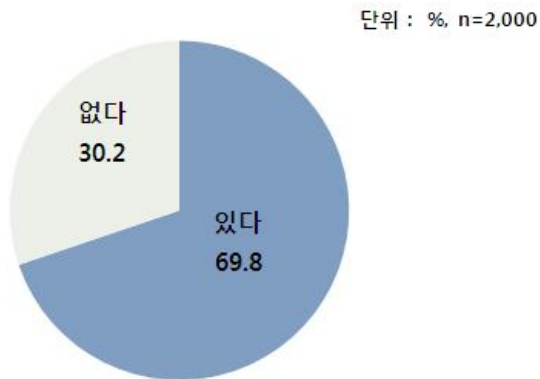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전문제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전체		244	33.2	29.9	27.5	9.4
성별	남성	118	30.5	35.6	28.0	5.9
	여성	126	35.7	24.6	27.0	12.7
학교급	초등학교	52	28.8	25.0	36.5	9.7
	중학교	80	41.3	30.0	25.0	3.7
	고등학교	112	29.5	32.1	25.0	13.4
종교	기독교	58	32.8	25.9	32.8	8.5
	불교	36	58.3	25.0	11.1	5.6
	가톨릭	27	33.3	25.9	33.3	7.5
	무교	122	26.2	33.6	28.7	11.5
	기타	1	0.0	10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32	37.1	24.2	29.5	9.2
	보통	84	28.6	36.9	22.6	11.9
	불만	28	28.6	35.7	32.1	3.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4	28.6	50.0	14.3	7.1
	중	137	36.5	30.7	24.1	8.7
	하	93	29.0	25.8	34.4	10.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6	16.7	33.3	50.0	0.0
	중	126	35.7	32.5	23.0	8.8
	하	112	31.3	26.8	31.3	1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9	15.8	57.9	26.3	0.0
	중	206	34.0	27.2	28.2	10.6
	하	19	42.1	31.6	21.1	5.2
이산가족 유무	있다	9	44.4	44.4	0.0	11.2
	없다	235	32.8	29.4	28.5	9.3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69.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로는, ‘있다’는 응답은 69.8%로 ‘없다’는 응답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2.3%), 종교별로는 기독교(73.1%)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71.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75.3%), 이산가족이 있을 때(79.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0】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표 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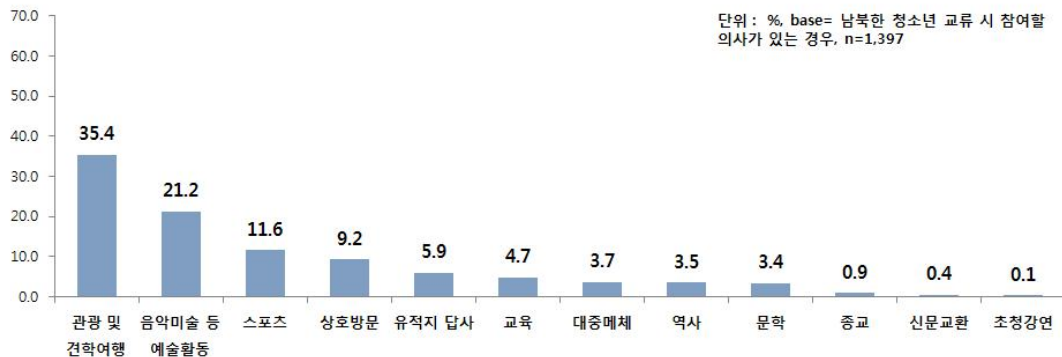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2,000	69.8	30.2
성별	남성	926	70.1	29.9
	여성	1,074	69.6	30.4
학교급	초등학교	564	72.3	27.7
	중학교	705	70.5	29.5
	고등학교	731	67.3	32.7
종교	기독교	535	73.1	26.9
	불교	200	67.5	32.5
	가톨릭	153	66.0	34.0
	무교	1,098	69.1	30.9
	기타	14	78.6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72.1	27.9
	보통	552	66.8	33.2
	불만	162	62.3	37.7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4.8	35.2
	중	1,177	71.1	28.9
	하	661	68.8	31.2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5.3	24.7
	중	1,053	69.6	30.4
	하	870	69.7	30.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70.8	29.2
	중	1,709	69.7	30.3
	하	154	70.8	29.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79.6	20.4
	없다	1,897	69.3	30.7

5)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관광 및 견학여행 35.4% >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 21.2%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가장 높고(35.4%)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21.2%), '스포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4.2%)이 여성(36.4%)보다 '관광 및 견학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6.0%)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 때(36.5%) '관광 및 견학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39.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표 II-65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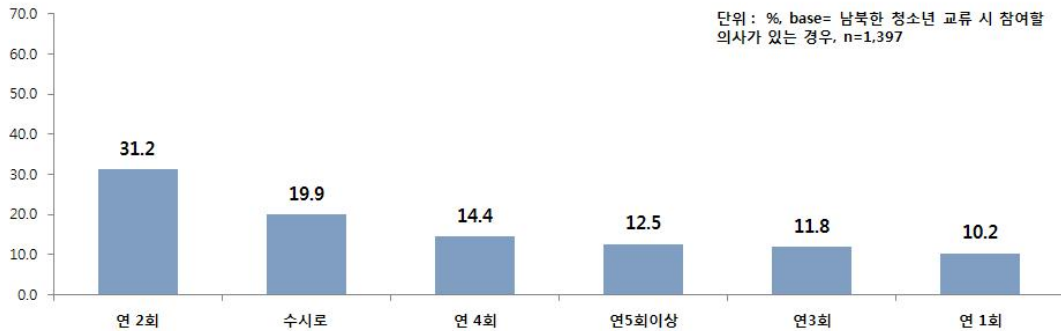
단위[%]		사 례 수 (명)	관광 및 견학 여행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	스 포 츠	상호 방문	유적 지 답사	교육	대중 매체	역사	문학	종교	신문 교환	초청 강연
전체		1,397	35.4	21.2	11.6	9.2	5.9	4.7	3.7	3.5	3.4	0.9	0.4	0.1
성별	남성	649	34.2	15.3	19.1	7.7	6.6	4.8	4.0	3.4	3.5	1.1	0.0	0.3
	여성	748	36.4	26.3	5.1	10.6	5.2	4.5	3.5	3.6	3.2	0.7	0.7	0.2
학교급	초등학교	408	36.0	18.1	15.0	7.8	8.1	4.7	1.5	3.4	4.2	0.7	0.2	0.3
	중학교	497	35.2	19.9	13.5	7.8	5.6	4.8	5.2	3.0	3.2	1.2	0.4	0.2
	고등학교	492	35.0	25.0	6.9	11.8	4.3	4.5	4.1	4.1	2.8	0.6	0.4	0.5
종교	기독교	391	33.2	23.3	11.3	8.7	4.1	4.9	4.9	3.6	3.3	2.6	0.1	0.0
	불교	135	35.6	25.2	8.1	8.9	6.7	5.2	1.5	4.4	3.7	0.0	0.0	0.7
	가톨릭	101	36.6	21.8	11.9	5.9	5.9	3.0	2.0	5.9	6.9	0.0	0.0	0.1
	무교	759	36.4	19.2	12.4	10.0	6.6	4.7	3.8	2.8	2.9	0.3	0.5	0.4
	기타	11	27.3	27.3	9.1	9.1	9.1	0.0	0.0	18.1	0.0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33.8	20.1	12.5	9.2	7.4	4.5	3.5	4.2	3.8	0.8	0.1	0.1
	보통	369	39.3	22.2	10.0	9.2	3.3	5.4	4.3	1.6	2.4	0.8	1.1	0.4
	불만	101	35.6	27.7	8.9	9.9	1.0	3.0	4.0	4.0	3.0	2.0	0.0	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6.7	21.0	13.3	11.4	5.7	3.8	3.8	7.6	3.8	2.9	0.0	0.0
	중	837	35.8	21.4	11.8	9.0	7.6	3.9	3.1	2.6	3.8	0.7	0.0	0.3
	하	455	36.5	20.9	10.8	9.2	2.6	6.2	4.8	4.2	2.4	0.7	1.1	0.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34.5	20.7	8.6	10.3	8.6	1.7	0.0	10.3	5.2	0.0	0.0	0.1
	중	733	34.8	19.9	13.0	8.2	8.5	4.8	2.9	2.6	4.2	1.1	0.0	0.0
	하	606	36.1	22.8	10.2	10.4	2.5	4.8	5.1	4.0	2.1	0.7	0.8	0.5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30.9	20.6	9.3	8.2	8.2	4.1	4.1	6.2	4.1	4.1	0.0	0.2
	중	1,191	35.3	20.8	12.2	9.0	6.0	4.9	3.8	3.4	3.4	0.7	0.4	0.1
	하	109	39.4	25.7	7.3	12.8	2.8	2.8	2.8	2.8	2.8	0.0	0.0	0.8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6.6	19.5	8.5	4.9	3.7	11.0	7.3	4.9	3.6	0.0	0.0	0.0
	없다	1,315	35.3	21.3	11.8	9.5	6.0	4.3	3.5	3.4	3.3	0.9	0.4	0.3

6)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연 2회 31.2% > 수시로 19.9%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1년 기준 적당한 횟수로는, '연 2회'가 가장 높고(31.2%) '수시로'(19.9%), '연 4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3.6%)이 여성(29.1%)보다 '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0.7%)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35.5%) '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43.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표 II-66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횟수(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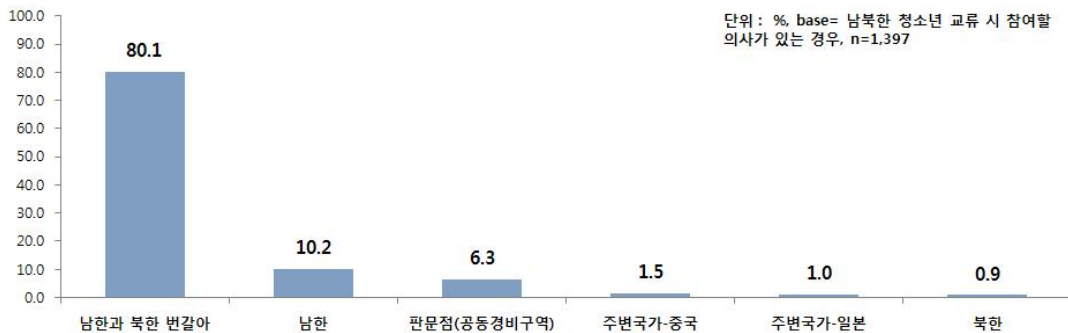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연 2회	수시로	연 4회	연 5회 이상	연 3회	연 1회
전체		1,397	31.2	19.9	14.4	12.5	11.8	10.2
성별	남성	649	33.6	18.3	15.4	9.6	11.9	11.2
	여성	748	29.1	21.3	13.5	15.0	11.8	9.3
학교급	초등학교	408	40.7	17.6	12.7	5.9	9.1	14.0
	중학교	497	28.0	18.1	14.9	13.9	14.3	10.8
	고등학교	492	26.6	23.6	15.2	16.5	11.6	6.5
종교	기독교	391	34.0	16.9	17.9	11.0	11.3	8.9
	불교	135	28.1	18.5	20.7	15.6	11.1	6.0
	가톨릭	101	38.6	15.8	8.9	10.9	14.9	10.9
	무교	759	29.8	22.0	12.0	12.9	11.9	11.4
	기타	11	0.0	36.4	27.3	9.1	9.1	18.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32.0	17.6	16.1	11.1	11.9	11.3
	보통	369	33.3	23.3	8.9	13.3	12.5	8.7
	불만	101	15.8	28.7	18.8	21.8	8.9	6.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9.5	20.0	15.2	7.6	13.3	14.4
	중	837	35.5	18.2	14.6	11.5	10.8	9.4
	하	455	23.7	23.1	13.8	15.4	13.4	10.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41.4	10.3	8.6	8.6	19.0	12.1
	중	733	34.0	19.1	14.9	9.5	10.6	11.9
	하	606	26.9	21.8	14.4	16.3	12.5	8.1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43.3	13.4	10.3	8.2	12.4	12.4
	중	1,191	30.7	19.7	14.4	13.0	11.7	10.5
	하	109	25.7	27.5	17.4	10.1	12.8	6.5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31.7	15.9	13.4	9.8	18.3	10.9
	없다	1,315	31.2	20.2	14.4	12.6	11.4	10.2

7)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남한과 북한 번갈아 80.1% > 남한 10.2%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가 가장 높고(80.1%) ‘남한’(10.2%), ‘판문점(공동경비구역)’(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80.4%)이 여성(79.8%)보다 ‘남한과 북한 번갈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2.8%)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82.4%) ‘남한과 북한 번갈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3.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3】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표 II-67 남북한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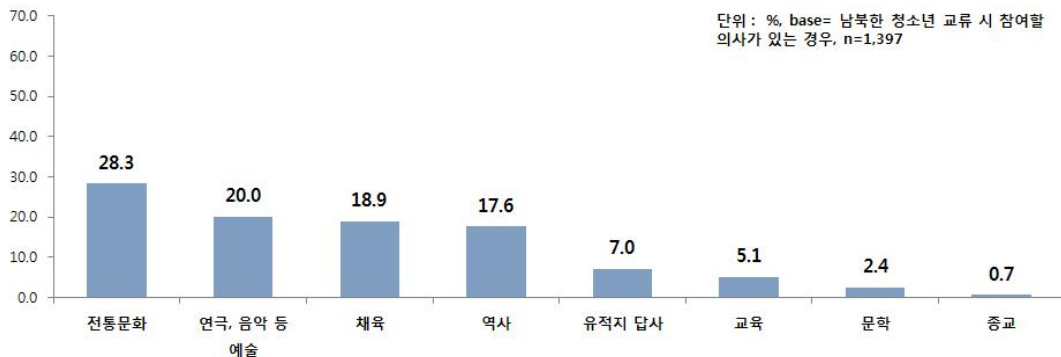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남한과 북한 번갈아	남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주변 국가 - 중국	주변 국가 - 일본	북한
전체		1,397	80.1	10.2	6.3	1.5	1.0	0.9
성별	남성	649	80.4	10.3	6.3	0.9	0.9	1.2
	여성	748	79.8	10.2	6.3	2.0	1.1	0.6
학교급	초등학교	408	82.8	10.3	3.7	0.7	1.0	1.5
	중학교	497	80.3	10.3	6.6	1.6	0.6	0.6
	고등학교	492	77.6	10.2	8.1	2.0	1.4	0.7
종교	기독교	391	78.0	10.5	7.4	1.3	1.0	1.8
	불교	135	80.7	10.4	5.9	0.7	2.2	0.1
	가톨릭	101	81.2	7.9	8.9	0.0	0.0	2.0
	무교	759	81.2	10.5	5.3	1.8	0.8	0.4
	기타	11	63.6	0.0	18.2	9.1	9.1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79.1	10.5	6.7	1.6	1.1	1.0
	보통	369	83.2	10.3	4.9	0.5	0.5	0.6
	불만	101	78.2	7.9	7.9	4.0	2.0	0.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79.0	9.5	8.6	1.0	0.0	1.9
	중	837	82.4	9.6	4.8	1.3	1.2	0.7
	하	455	76.0	11.6	8.6	2.0	0.9	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82.8	8.6	3.4	1.7	0.0	3.5
	중	733	81.4	9.8	5.5	1.4	1.1	0.8
	하	606	78.2	10.9	7.6	1.7	1.0	0.6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75.3	10.3	5.2	4.1	3.1	2.0
	중	1,191	80.2	10.6	6.3	1.3	0.8	0.8
	하	109	83.5	6.4	7.3	0.9	1.8	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82.9	9.8	2.4	1.2	0.0	3.7
	없다	1,315	79.9	10.3	6.5	1.5	1.1	0.7

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전통문화 28.3% > 연극, 음악 등 예술 20.0%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가 가장 높고(28.3%) '연극, 음악 등 예술'(20.0%), '체육'(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8.7%)이 여성(28.1%)보다 '전통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30.9%)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간일 때(30.7%) '전통문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29.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4】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표 II-68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사례수 (명)	전통 문화	연극, 음악 등 예술	체육	역사	유적지 답사	교육	문학	종교
전체		1,397	28.3	20.0	18.9	17.6	7.0	5.1	2.4	0.7
성별	남성	649	28.7	13.7	24.3	19.4	4.9	4.8	3.1	1.1
	여성	748	28.1	25.4	14.2	16.0	8.8	5.3	1.9	0.3
학교급	초등학교	408	30.9	17.6	21.6	13.7	6.4	7.1	2.2	0.5
	중학교	497	26.2	17.5	19.3	19.3	8.5	5.2	3.0	1.0
	고등학교	492	28.5	24.4	16.3	19.1	6.1	3.3	2.0	0.3
종교	기독교	391	31.7	19.9	16.4	14.6	5.4	6.6	4.6	0.8
	불교	135	27.4	20.0	14.8	16.3	11.9	5.9	2.2	1.5
	가톨릭	101	25.7	13.9	19.8	22.8	6.9	7.9	1.0	2.0
	무교	759	27.3	20.9	20.6	18.7	6.9	3.8	1.6	0.2
	기타	11	18.2	9.1	36.4	18.2	18.1	0.0	0.0	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927	29.3	17.8	20.5	16.8	6.8	5.6	2.4	0.8
	보통	369	26.6	24.9	14.9	19.0	8.1	4.3	1.9	0.3
	불만	101	25.7	21.8	18.8	19.8	5.0	3.0	5.0	0.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05	25.7	20.0	24.8	15.2	4.8	5.7	3.8	0.0
	중	837	30.7	16.7	18.8	17.0	7.8	6.2	2.0	0.8
	하	455	24.6	25.9	17.8	19.3	6.2	2.9	2.9	0.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58	22.4	20.7	24.1	10.3	10.3	6.9	5.1	0.2
	중	733	30.6	18.0	19.1	16.8	6.4	6.0	2.5	0.6
	하	606	26.2	22.3	18.2	19.3	7.4	3.8	2.1	0.7
가정의 경제수준	상	97	21.6	19.6	19.6	25.8	1.0	8.2	3.1	1.1
	중	1,191	29.1	19.8	18.4	16.8	7.5	5.1	2.6	0.7
	하	109	25.7	22.0	23.9	19.3	7.3	1.8	0.0	0.0
이산가족 유무	있다	82	25.6	20.7	14.6	23.2	4.9	3.7	7.3	0.0
	없다	1,315	28.5	19.9	19.2	17.3	7.1	5.2	2.1	0.7

5. 정서적 공감

4개 하위요인(5점)을 살펴보면, ‘불안’이 (3.76점) 가장 높고, ‘심적부담’(3.66점), ‘기쁨’(3.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64점)이 여성(3.85점)보다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81점)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69 정서적 공감

단위[%]		사례수(명)	기쁨	슬픔	불안	심적부담	전체평균
전체		2,000	3.52	3.43	3.76	3.66	3.59
성별	남성	926	3.45	3.28	3.64	3.56	3.48
	여성	1,074	3.58	3.55	3.85	3.75	3.69
학교급	초등학교	564	3.49	3.32	3.66	3.52	3.50
	중학교	705	3.53	3.42	3.78	3.64	3.59
	고등학교	731	3.53	3.51	3.81	3.80	3.66
종교	기독교	535	3.51	3.42	3.69	3.62	3.56
	불교	200	3.59	3.40	3.69	3.59	3.57
	가톨릭	153	3.59	3.45	3.82	3.61	3.62
	무교	1,098	3.50	3.42	3.79	3.71	3.60
	기타	14	3.56	3.83	3.80	3.49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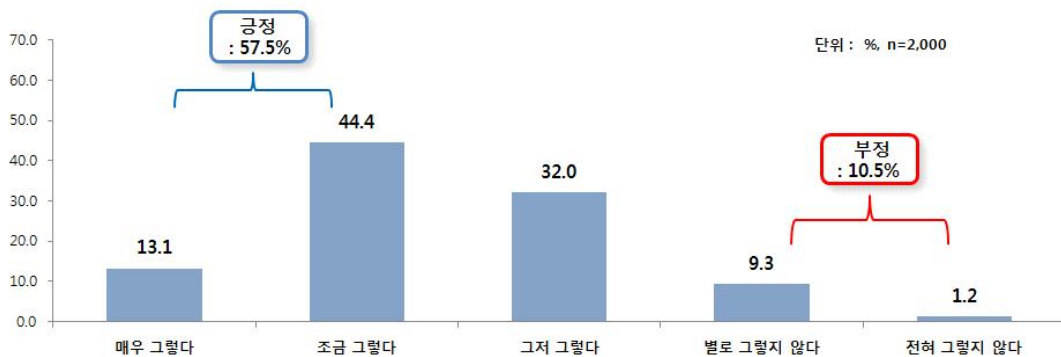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기쁨	슬픔	불안	심적부담	전체평균
전체		2,000	3.52	3.43	3.76	3.66	3.59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57	3.43	3.77	3.66	3.61
	보통	552	3.45	3.42	3.73	3.66	3.56
	불만	162	3.34	3.44	3.76	3.70	3.5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61	3.41	3.80	3.61	3.61
	중	1,177	3.51	3.37	3.70	3.61	3.55
	하	661	3.50	3.54	3.85	3.77	3.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59	3.35	3.78	3.61	3.58
	중	1,053	3.51	3.37	3.70	3.57	3.54
	하	870	3.52	3.51	3.82	3.77	3.6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55	3.38	3.66	3.68	3.57
	중	1,709	3.51	3.43	3.75	3.66	3.59
	하	154	3.55	3.46	3.86	3.72	3.6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43	3.32	3.65	3.63	3.51
	없다	1,897	3.52	3.43	3.76	3.66	3.59

1)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긍정 57.5% > 부정 10.5%

선물은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3.1% + 조금 그렇다: 44.4%)'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2.0%, '부정' 10.5%(별로 그렇지 않다: 9.3% + 전혀 그렇지 않다: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5.3%)이 여성(59.3%)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59.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2.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5.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2.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5】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표 II-70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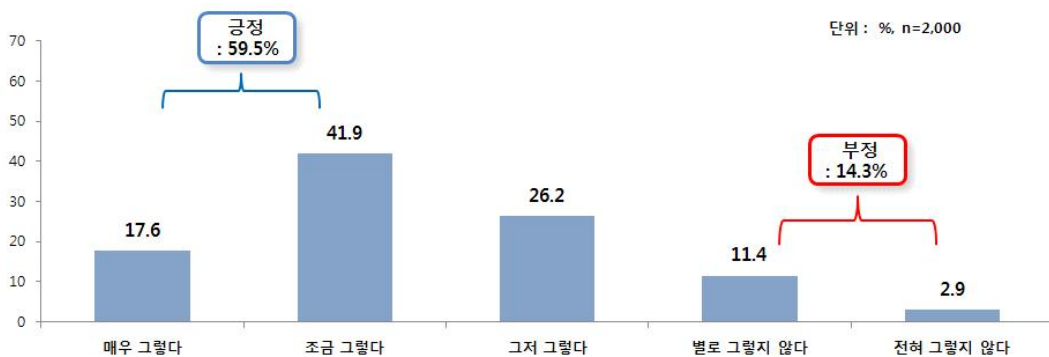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3.1	44.4	32.0	9.3	1.2	57.5	32.0	10.5
성별	남성	926	10.9	44.4	34.9	8.4	1.4	55.3	34.9	9.8
	여성	1,074	15.0	44.3	29.8	10.0	0.9	59.3	29.8	10.9
학교급	초등학교	564	7.4	51.8	30.7	9.6	0.5	59.2	30.7	10.1
	중학교	705	15.6	41.3	33.2	8.9	1.0	56.9	33.2	9.9
	고등학교	731	15.0	41.6	32.3	9.3	1.8	56.6	32.3	11.1
종교	기독교	535	11.6	46.4	29.3	12.1	0.6	58.0	29.3	12.7
	불교	200	16.0	48.5	28.5	5.5	1.5	64.5	28.5	7.0
	가톨릭	153	20.3	42.5	30.0	5.9	1.3	62.8	30.0	7.2
	무교	1,098	12.3	42.8	34.6	8.9	1.4	55.1	34.6	10.3
	기타	14	14.3	50.0	21.4	14.3	0.0	64.3	21.4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8	48.3	28.9	8.2	0.8	62.1	28.9	9.0
	보통	552	10.7	38.6	38.8	10.3	1.6	49.3	38.8	11.9
	불만	162	15.4	32.7	35.8	13.6	2.5	48.1	35.8	16.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7	48.8	25.3	8.6	0.6	65.5	25.3	9.2
	중	1,177	11.9	45.1	33.8	8.4	0.8	57.0	33.8	9.2
	하	661	14.4	41.9	31.0	10.9	1.8	56.3	31.0	12.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48.1	23.3	11.7	0.0	65.0	23.3	11.7
	중	1,053	11.1	46.8	32.3	9.2	0.6	57.9	32.3	9.8
	하	870	15.2	41.0	32.7	9.1	2.0	56.2	32.7	11.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46.0	29.1	8.8	0.0	62.1	29.1	8.8
	중	1,709	12.8	44.6	32.2	9.3	1.1	57.4	32.2	10.4
	하	154	14.3	40.3	33.7	9.1	2.6	54.6	33.7	11.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43.7	37.8	6.8	1.0	54.4	37.8	7.8
	없다	1,897	13.2	44.4	31.8	9.4	1.2	57.6	31.8	10.6

2)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긍정 59.5% > 부정 14.3%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7.6% + 조금 그렇다: 41.9%)'이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6.2%, '부정' 14.3%(별로 그렇지 않다: 11.4% + 전혀 그렇지 않다: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9.9%)이 여성(67.7%)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64.1%)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60.5%),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66.8%),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 (60.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6】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표 II-71 나는 가끔 TV에서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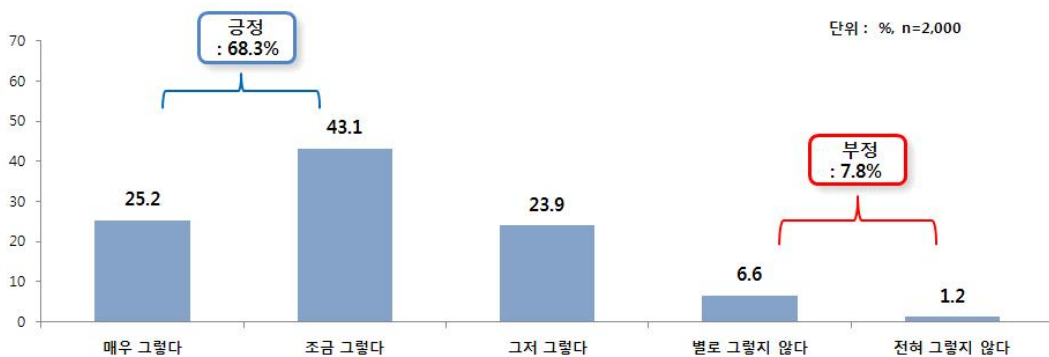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7.6	41.9	26.2	11.4	2.9	59.5	26.2	14.3
성별	남성	926	9.5	40.4	31.3	14.9	3.9	49.9	31.3	18.8
	여성	1,074	24.5	43.2	21.9	8.4	2.0	67.7	21.9	10.4
학교급	초등학교	564	9.9	43.6	28.9	15.1	2.5	53.5	28.9	17.6
	중학교	705	17.4	41.8	27.2	10.5	3.1	59.2	27.2	13.6
	고등학교	731	23.5	40.6	23.6	9.4	2.9	64.1	23.6	12.3
종교	기독교	535	16.6	39.8	27.9	13.1	2.6	56.4	27.9	15.7
	불교	200	19.5	38.5	29.5	7.5	5.0	58.0	29.5	12.5
	가톨릭	153	22.2	45.1	22.2	8.5	2.0	67.3	22.2	10.5
	무교	1,098	16.8	42.9	25.9	11.7	2.7	59.7	25.9	14.4
	기타	14	28.6	57.1	7.2	7.1	0.0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5	41.8	25.9	12.2	2.6	59.3	25.9	14.8
	보통	552	16.3	43.1	28.3	9.2	3.1	59.4	28.3	12.3
	불만	162	22.2	38.3	22.9	12.3	4.3	60.5	22.9	16.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6.0	34.6	34.0	11.7	3.7	50.6	34.0	15.4
	중	1,177	14.8	41.7	27.5	13.5	2.5	56.5	27.5	16.0
	하	661	22.8	44.0	22.3	7.6	3.3	66.8	22.3	10.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8.2	29.9	37.6	11.7	2.6	48.1	37.6	14.3
	중	1,053	13.7	42.1	28.4	13.3	2.5	55.8	28.4	15.8
	하	870	22.2	42.8	22.6	9.1	3.3	65.0	22.6	1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8.2	35.8	30.0	12.4	3.6	54.0	30.0	16.0
	중	1,709	16.9	43.4	26.2	10.9	2.6	60.3	26.2	13.5
	하	154	24.7	30.5	24.7	15.6	4.5	55.2	24.7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1.7	42.7	22.3	17.5	5.8	54.4	22.3	23.3
	없다	1,897	17.9	41.9	26.4	11.1	2.7	59.8	26.4	13.8

3)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긍정 68.3% > 부정 7.8%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25.2% + 조금 그렇다: 43.1%)이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3.9%, '부정' 7.8%(별로 그렇지 않다: 6.6% + 전혀 그렇지 않다: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3.0%)이 여성(72.8%)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8.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9.7%),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71.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74.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7】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표 II-72 나는 동물들이 다친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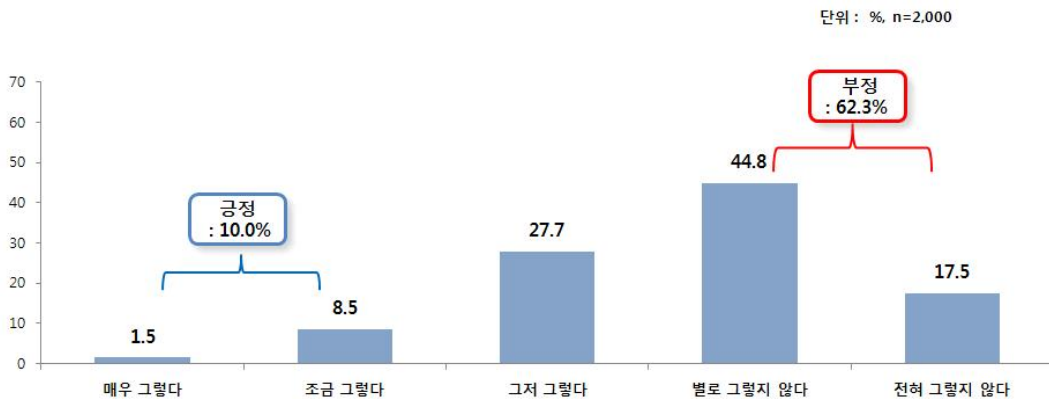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5.2	43.1	23.9	6.6	1.2	68.3	23.9	7.8
성별	남성	926	19.3	43.7	28.8	6.6	1.6	63.0	28.8	8.2
	여성	1,074	30.3	42.5	19.8	6.6	0.8	72.8	19.8	7.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9.1	49.5	21.3	8.9	1.2	68.6	21.3	10.1
	중학교	705	27.9	40.4	24.4	6.0	1.3	68.3	24.4	7.3
	고등학교	731	27.2	40.6	25.6	5.5	1.1	67.8	25.6	6.6
종교	기독교	535	22.8	42.1	23.3	10.7	1.1	64.9	23.3	11.8
	불교	200	29.5	33.5	25.5	8.0	3.5	63.0	25.5	11.5
	가톨릭	153	30.1	43.8	19.6	5.2	1.3	73.9	19.6	6.5
	무교	1,098	24.8	45.1	24.7	4.6	0.8	69.9	24.7	5.4
	기타	14	35.7	50.0	7.2	7.1	0.0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6.5	43.2	21.3	7.8	1.2	69.7	21.3	9.0
	보통	552	21.4	45.7	27.9	4.5	0.5	67.1	27.9	5.0
	불만	162	27.8	32.7	31.5	4.3	3.7	60.5	31.5	8.0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2.1	34.0	24.6	9.3	0.0	66.1	24.6	9.3
	중	1,177	22.5	44.0	24.6	7.5	1.4	66.5	24.6	8.9
	하	661	28.3	43.6	22.5	4.4	1.2	71.9	22.5	5.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0	45.5	20.7	7.8	0.0	71.5	20.7	7.8
	중	1,053	22.9	44.2	24.2	7.8	0.9	67.1	24.2	8.7
	하	870	27.9	41.5	23.9	5.1	1.6	69.4	23.9	6.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6	41.6	21.2	13.9	0.7	64.2	21.2	14.6
	중	1,709	24.5	43.6	24.9	6.0	1.0	68.1	24.9	7.0
	하	154	35.7	38.3	15.6	6.5	3.9	74.0	15.6	10.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0.5	20.3	11.7	3.9	64.1	20.3	15.6
	없다	1,897	25.8	42.6	24.2	6.3	1.1	68.4	24.2	7.4

4)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부정 62.3% > 긍정 10.0%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에서는, ‘부정’(별로 그렇지 않다: 44.8% + 전혀 그렇지 않다: 17.5%)이라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7.7%, ‘긍정’ 10.0%(매우 그렇다: 1.5% + 조금 그렇다: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0.7%)이 여성(63.6%)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64.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4.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3.6%),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67.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8】 친구가 울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표 II-73 친구가 올면 위로해주고 싶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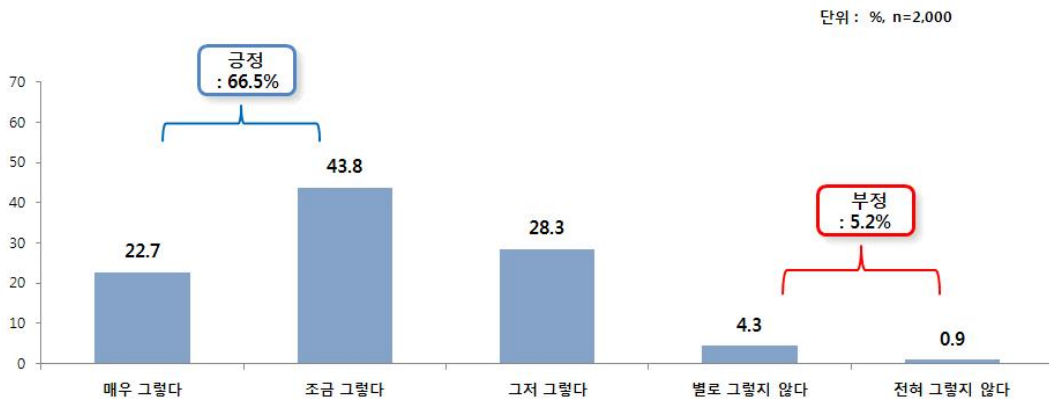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	8.5	27.7	44.8	17.5	10.0	27.7	62.3
성별	남성	926	1.4	10.3	27.6	46.8	13.9	11.7	27.6	60.7
	여성	1,074	1.6	6.9	27.9	43.0	20.6	8.5	27.9	63.6
학교급	초등학교	564	0.5	7.8	27.5	50.5	13.7	8.3	27.5	64.2
	중학교	705	2.1	10.4	28.2	42.4	16.9	12.5	28.2	59.3
	고등학교	731	1.6	7.1	27.7	42.5	21.1	8.7	27.7	63.6
종교	기독교	535	0.6	9.7	29.0	44.3	16.4	10.3	29.0	60.7
	불교	200	3.5	5.0	28.5	45.0	18.0	8.5	28.5	63.0
	가톨릭	153	2.0	8.5	28.7	47.1	13.7	10.5	28.7	60.8
	무교	1,098	1.5	8.3	27.1	44.7	18.4	9.8	27.1	63.1
	기타	14	7.1	21.4	14.4	35.7	21.4	28.5	14.4	5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	7.2	26.5	47.7	16.9	8.9	26.5	64.6
	보통	552	0.5	9.4	30.5	40.8	18.8	9.9	30.5	59.6
	불만	162	3.1	14.8	29.0	35.2	17.9	17.9	29.0	53.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9	6.2	25.3	45.1	18.5	11.1	25.3	63.6
	중	1,177	1.0	8.4	28.6	47.1	14.9	9.4	28.6	62.0
	하	661	1.5	9.1	27.0	40.5	21.9	10.6	27.0	62.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	9.1	29.8	48.1	10.4	11.7	29.8	58.5
	중	1,053	1.1	8.3	29.8	46.1	14.7	9.4	29.8	60.8
	하	870	1.8	8.6	25.2	42.9	21.5	10.4	25.2	64.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5	8.8	22.6	51.8	15.3	10.3	22.6	67.1
	중	1,709	1.3	8.6	28.0	44.8	17.3	9.9	28.0	62.1
	하	154	3.2	6.5	30.5	37.7	22.1	9.7	30.5	59.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8.7	20.5	49.5	19.4	10.6	20.5	68.9
	없다	1,897	1.5	8.4	28.2	44.5	17.4	9.9	28.2	61.9

5)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긍정 66.5% > 부정 5.2%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22.7% + 조금 그렇다: 43.8%)'이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8.3%, '부정' 5.2%(별로 그렇지 않다: 4.3% + 전혀 그렇지 않다: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9.9%)이 여성(72.2%)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8.4%)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 (69.4%),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9.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71.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9】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표 II-74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기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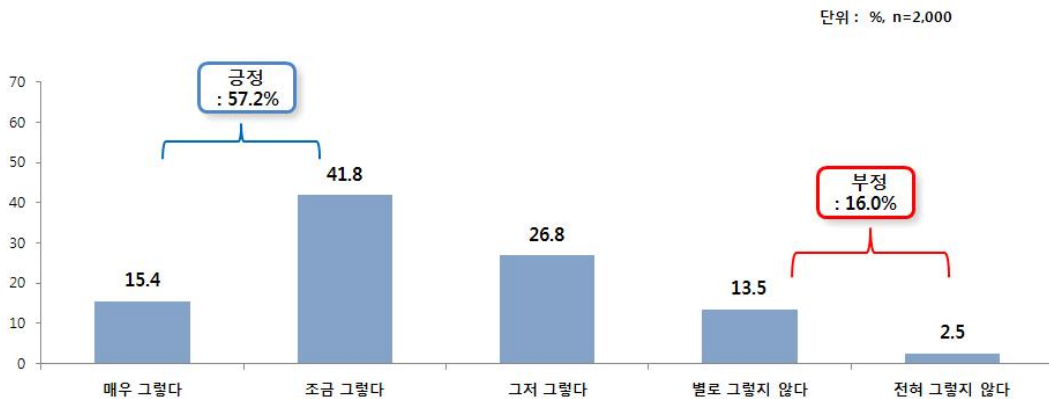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2.7	43.8	28.3	4.3	0.9	66.5	28.3	5.2
성별	남성	926	16.2	43.7	33.8	5.1	1.2	59.9	33.8	6.3
	여성	1,074	28.3	43.9	23.6	3.6	0.6	72.2	23.6	4.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3	48.6	29.1	5.1	0.9	64.9	29.1	6.0
	중학교	705	23.3	42.6	28.9	4.3	0.9	65.9	28.9	5.2
	고등학교	731	27.1	41.3	27.1	3.7	0.8	68.4	27.1	4.5
종교	기독교	535	22.2	42.8	27.7	6.4	0.9	65.0	27.7	7.3
	불교	200	20.0	47.0	26.5	5.0	1.5	67.0	26.5	6.5
	가톨릭	153	25.5	42.5	24.8	5.2	2.0	68.0	24.8	7.2
	무교	1,098	23.0	43.9	29.6	3.0	0.5	66.9	29.6	3.5
	기타	14	28.6	42.9	21.4	7.1	0.0	71.5	21.4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6	45.8	25.4	4.6	0.6	69.4	25.4	5.2
	보통	552	20.5	43.7	31.2	3.3	1.3	64.2	31.2	4.6
	불만	162	22.8	28.4	42.0	5.6	1.2	51.2	42.0	6.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8	46.3	26.0	4.9	0.0	69.1	26.0	4.9
	중	1,177	20.7	45.9	27.6	5.0	0.8	66.6	27.6	5.8
	하	661	26.2	39.5	30.3	2.9	1.1	65.7	30.3	4.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1.2	35.1	31.1	2.6	0.0	66.3	31.1	2.6
	중	1,053	19.0	47.6	27.6	5.0	0.8	66.6	27.6	5.8
	하	870	26.4	40.0	29.0	3.6	1.0	66.4	29.0	4.6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1	50.4	26.9	6.6	0.0	66.5	26.9	6.6
	중	1,709	22.6	43.5	28.7	4.3	0.9	66.1	28.7	5.2
	하	154	29.9	41.6	25.3	1.9	1.3	71.5	25.3	3.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6.2	35.0	29.1	6.8	2.9	61.2	29.1	9.7
	없다	1,897	22.5	44.3	28.3	4.2	0.7	66.8	28.3	4.9

6)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긍정 57.2% > 부정 16.0%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5.4% + 조금 그렇다: 41.8%)'이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6.8%, '부정' 16.0%(별로 그렇지 않다: 13.5% + 전혀 그렇지 않다: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7.7%)이 여성(65.3%)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5.4%)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이 보통일 때(61.2%),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65.4%),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8.9%)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0】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표 II-75 어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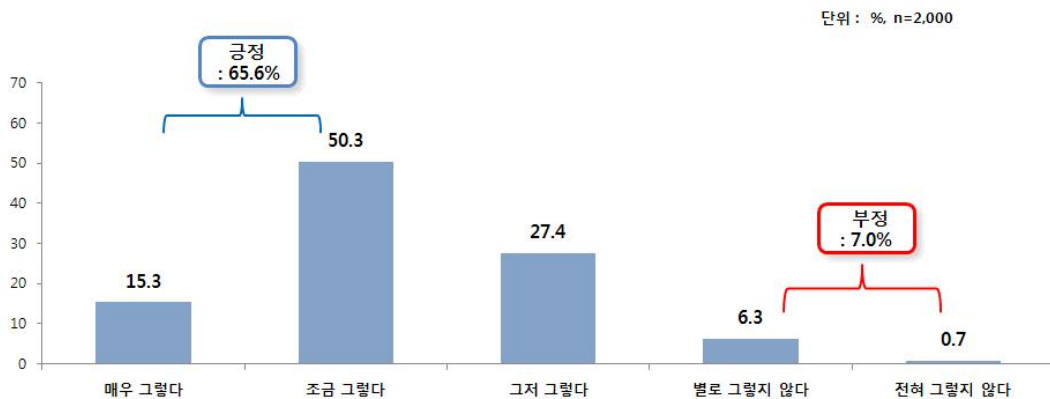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4	41.8	26.8	13.5	2.5	57.2	26.8	16.0
성별	남성	926	9.3	38.4	32.8	16.2	3.3	47.7	32.8	19.5
	여성	1,074	20.6	44.7	21.7	11.2	1.8	65.3	21.7	13.0
학교급	초등학교	564	5.1	39.0	35.1	18.1	2.7	44.1	35.1	20.8
	중학교	705	16.7	42.3	25.9	12.8	2.3	59.0	25.9	15.1
	고등학교	731	21.9	43.5	21.3	10.7	2.6	65.4	21.3	13.3
종교	기독교	535	15.7	38.7	30.1	14.0	1.5	54.4	30.1	15.5
	불교	200	16.0	38.0	24.0	17.0	5.0	54.0	24.0	22.0
	가톨릭	153	16.3	36.6	34.0	10.5	2.6	52.9	34.0	13.1
	무교	1,098	14.7	44.9	24.9	12.9	2.6	59.6	24.9	15.5
	기타	14	35.7	28.6	14.3	21.4	0.0	64.3	14.3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9	41.2	27.6	14.9	2.4	55.1	27.6	17.3
	보통	552	15.9	45.3	25.4	11.2	2.2	61.2	25.4	13.4
	불만	162	24.7	34.6	26.5	9.9	4.3	59.3	26.5	14.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5.4	35.8	35.2	11.7	1.9	51.2	35.2	13.6
	중	1,177	11.4	42.0	29.2	14.9	2.5	53.4	29.2	17.4
	하	661	22.4	43.0	20.5	11.5	2.6	65.4	20.5	14.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6.9	26.0	36.3	20.8	0.0	42.9	36.3	20.8
	중	1,053	10.5	42.5	30.7	14.0	2.3	53.0	30.7	16.3
	하	870	21.0	42.3	21.4	12.3	3.0	63.3	21.4	15.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3.9	39.4	29.2	15.3	2.2	53.3	29.2	17.5
	중	1,709	14.7	41.7	27.3	13.8	2.5	56.4	27.3	16.3
	하	154	23.4	45.5	18.8	9.1	3.2	68.9	18.8	12.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5.5	37.9	32.0	13.6	1.0	53.4	32.0	14.6
	없다	1,897	15.3	42.0	26.6	13.5	2.6	57.3	26.6	16.1

7)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긍정 65.6% > 부정 7.0%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5.3% + 조금 그렇다: 50.3%)’이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7.4%, ‘부정’ 7.0%(별로 그렇지 않다: 6.3% + 전혀 그렇지 않다: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0.1%)이 여성(70.2%)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67.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6.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9.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74.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1】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표 II-76 친구가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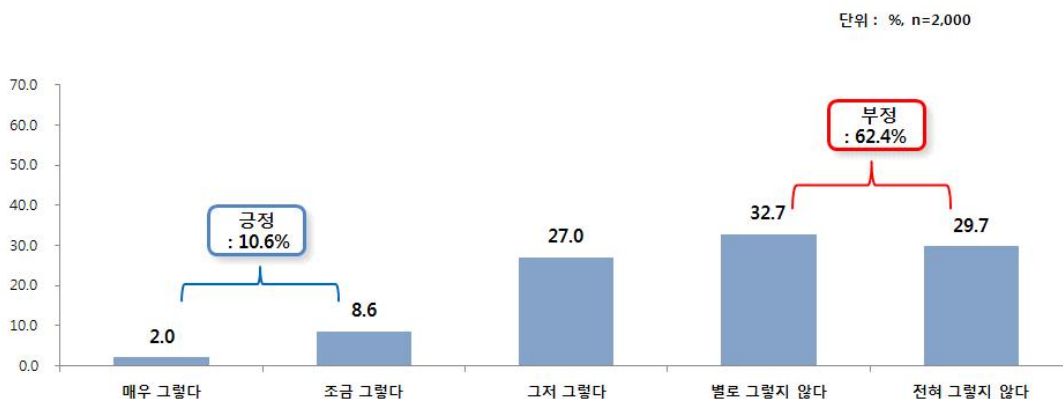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3	50.3	27.4	6.3	0.7	65.6	27.4	7.0
성별	남성	926	10.6	49.5	31.5	7.2	1.2	60.1	31.5	8.4
	여성	1,074	19.3	50.9	24.1	5.5	0.2	70.2	24.1	5.7
학교급	초등학교	564	7.3	55.7	29.9	6.4	0.7	63.0	29.9	7.1
	중학교	705	18.4	47.5	27.3	6.5	0.3	65.9	27.3	6.8
	고등학교	731	18.3	48.7	26.0	6.0	1.0	67.0	26.0	7.0
종교	기독교	535	12.3	50.1	27.7	9.2	0.7	62.4	27.7	9.9
	불교	200	16.0	45.5	31.5	6.0	1.0	61.5	31.5	7.0
	가톨릭	153	17.0	55.6	22.2	3.9	1.3	72.6	22.2	5.2
	무교	1,098	16.3	50.5	27.4	5.4	0.4	66.8	27.4	5.8
	기타	14	14.3	50.0	28.6	0.0	7.1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5.6	51.0	26.1	6.8	0.5	66.6	26.1	7.3
	보통	552	13.8	50.9	29.7	5.1	0.5	64.7	29.7	5.6
	불만	162	17.3	42.0	32.6	6.2	1.9	59.3	32.6	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2	46.9	26.0	4.3	0.6	69.1	26.0	4.9
	중	1,177	12.1	51.2	28.5	7.4	0.8	63.3	28.5	8.2
	하	661	19.1	49.3	26.3	4.8	0.5	68.4	26.3	5.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5.6	46.8	32.4	5.2	0.0	62.4	32.4	5.2
	중	1,053	12.5	52.4	27.3	7.3	0.5	64.9	27.3	7.8
	하	870	18.5	47.9	27.5	5.2	0.9	66.4	27.5	6.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4	46.7	33.6	7.3	0.0	59.1	33.6	7.3
	중	1,709	14.6	50.6	27.9	6.3	0.6	65.2	27.9	6.9
	하	154	24.7	49.4	18.8	5.2	1.9	74.1	18.8	7.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4.6	50.5	29.0	4.9	1.0	65.1	29.0	5.9
	없다	1,897	15.3	50.2	27.5	6.4	0.6	65.5	27.5	7.0

8)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 같다

부정 62.4% > 긍정 10.6%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 같다는데서는,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2.7% + 전혀 그렇지 않다: 29.7%)이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7.0%, ‘긍정’ 10.6%(매우 그렇다: 2.0% + 조금 그렇다: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7.3%)이 여성(66.8%)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9.0%)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66.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67.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4.9%)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2】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같다

표 II-77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듯이 다루는 것은 바보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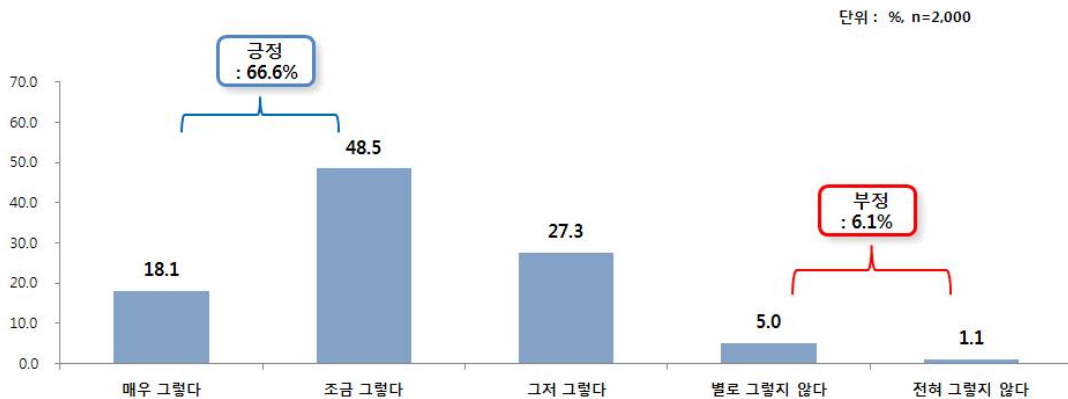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0	8.6	27.0	32.7	29.7	10.6	27.0	62.4
성별	남성	926	2.4	8.1	32.2	33.3	24.0	10.5	32.2	57.3
	여성	1,074	1.6	9.0	22.6	32.2	34.6	10.6	22.6	66.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11.5	32.9	38.8	15.6	12.7	32.9	54.4
	중학교	705	3.1	8.7	26.3	31.5	30.4	11.8	26.3	61.9
	고등학교	731	1.4	6.3	23.3	29.1	39.9	7.7	23.3	69.0
종교	기독교	535	3.0	10.8	27.7	34.4	24.1	13.8	27.7	58.5
	불교	200	3.5	8.0	24.0	37.5	27.0	11.5	24.0	64.5
	가톨릭	153	2.6	9.2	24.8	32.7	30.7	11.8	24.8	63.4
	무교	1,098	1.0	7.5	27.8	31.1	32.6	8.5	27.8	63.7
	기타	14	7.1	14.3	14.3	21.4	42.9	21.4	14.3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	9.4	27.2	34.1	27.6	11.1	27.2	61.7
	보통	552	2.2	8.0	27.0	31.5	31.3	10.2	27.0	62.8
	불만	162	3.1	4.3	26.0	25.9	40.7	7.4	26.0	66.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8.6	25.9	34.0	28.4	11.7	25.9	62.4
	중	1,177	1.6	10.5	28.6	33.6	25.7	12.1	28.6	59.3
	하	661	2.3	5.3	24.5	30.7	37.2	7.6	24.5	67.9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1.7	28.5	35.1	23.4	13.0	28.5	58.5
	중	1,053	1.4	10.7	29.2	35.9	22.8	12.1	29.2	58.7
	하	870	2.6	5.7	24.5	28.6	38.6	8.3	24.5	67.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2	8.0	27.8	36.5	25.5	10.2	27.8	62.0
	중	1,709	1.9	8.8	27.1	32.2	30.0	10.7	27.1	62.2
	하	154	1.9	7.1	26.1	34.4	30.5	9.0	26.1	64.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2.6	23.3	34.0	27.2	15.5	23.3	61.2
	없다	1,897	1.9	8.4	27.3	32.6	29.8	10.3	27.3	62.4

9)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흐뭇하다

긍정 66.6% > 부정 6.0%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흐뭇하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8.1% + 조금 그렇다: 48.5%)'이라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7.3%, '부정' 6.1%(별로 그렇지 않다: 5.0% + 전혀 그렇지 않다: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2.8%)이 여성(69.6%)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67.1%)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8.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72.8%),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8.2%)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3】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흐뭇하다

표 II-78 이사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친구를 보면 흐뭇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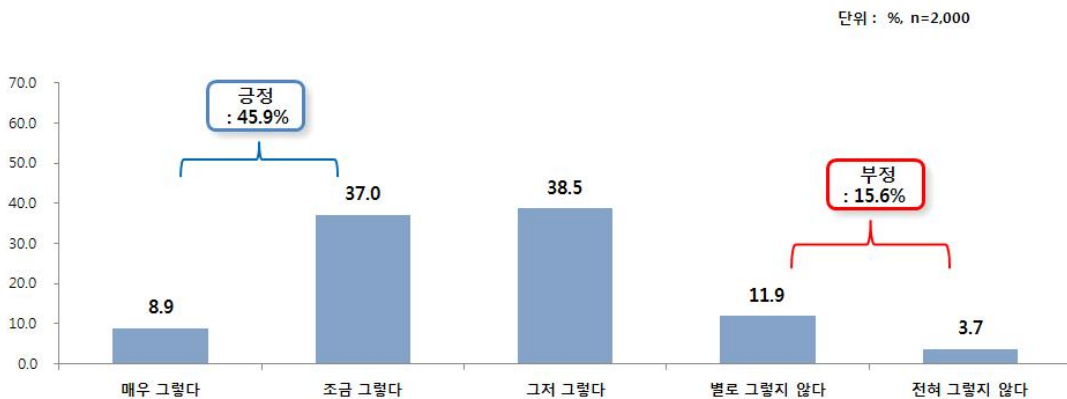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8.1	48.5	27.3	5.0	1.1	66.6	27.3	6.1
성별	남성	926	14.0	48.8	30.5	5.4	1.3	62.8	30.5	6.7
	여성	1,074	21.5	48.1	25.0	4.6	0.8	69.6	25.0	5.4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8	53.7	26.9	5.5	1.1	66.5	26.9	6.6
	중학교	705	20.1	47.0	26.1	5.7	1.1	67.1	26.1	6.8
	고등학교	731	20.1	45.8	29.3	3.8	1.0	65.9	29.3	4.8
종교	기독교	535	17.9	48.6	27.0	5.4	1.1	66.5	27.0	6.5
	불교	200	19.5	47.5	26.5	6.0	0.5	67.0	26.5	6.5
	가톨릭	153	23.5	46.4	23.6	5.2	1.3	69.9	23.6	6.5
	무교	1,098	17.0	48.7	28.7	4.5	1.1	65.7	28.7	5.6
	기타	14	21.4	57.1	14.4	7.1	0.0	78.5	14.4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8.6	49.5	25.9	5.1	0.9	68.1	25.9	6.0
	보통	552	16.3	50.0	29.2	3.8	0.7	66.3	29.2	4.5
	불만	162	19.8	35.2	34.5	7.4	3.1	55.0	34.5	10.5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22.2	50.6	21.0	6.2	0.0	72.8	21.0	6.2
	중	1,177	16.6	48.9	29.0	4.8	0.7	65.5	29.0	5.5
	하	661	19.7	47.2	26.3	4.8	2.0	66.9	26.3	6.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26.0	41.6	25.9	6.5	0.0	67.6	25.9	6.5
	중	1,053	16.3	48.6	28.5	5.7	0.9	64.9	28.5	6.6
	하	870	19.4	48.9	26.5	3.9	1.3	68.3	26.5	5.2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6.8	47.4	26.3	9.5	0.0	64.2	26.3	9.5
	중	1,709	17.6	49.0	27.6	4.7	1.1	66.6	27.6	5.8
	하	154	24.7	43.5	26.6	3.9	1.3	68.2	26.6	5.2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3.6	52.4	21.4	9.7	2.9	66.0	21.4	12.6
	없다	1,897	18.3	48.2	27.9	4.7	0.9	66.5	27.9	5.6

10)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

긍정 45.9% > 부정 15.6%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8.9% + 조금 그렇다: 37.0%)'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8.5%, '부정' 15.6%(별로 그렇지 않다: 11.9% + 전혀 그렇지 않다: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0.4%)이 여성(50.5%)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50.9%)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48.8%),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51.8%),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46.4%)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4】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울고 싶다

표 II-79 친구가 옳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옳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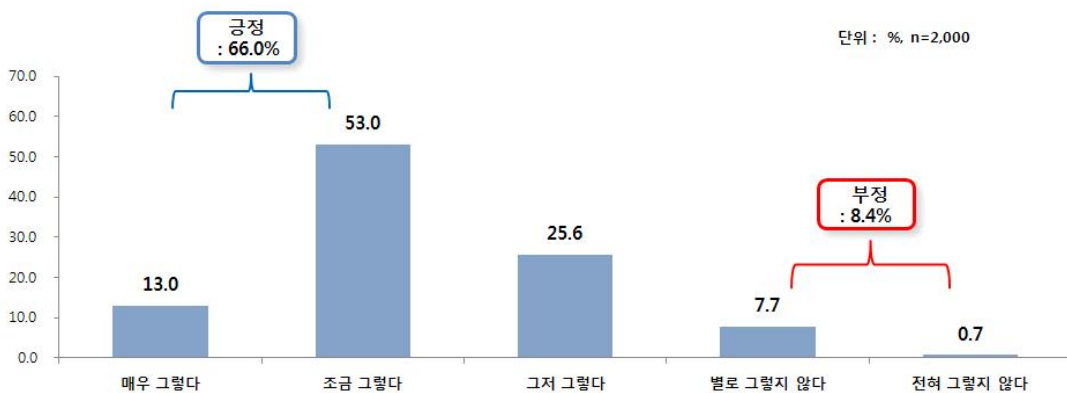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8.9	37.0	38.5	11.9	3.7	45.9	38.5	15.6
성별	남성	926	6.3	34.1	43.4	11.8	4.4	40.4	43.4	16.2
	여성	1,074	11.1	39.4	34.6	11.9	3.0	50.5	34.6	14.9
학교급	초등학교	564	6.6	44.3	38.0	10.6	0.5	50.9	38.0	11.1
	중학교	705	9.1	35.2	39.1	11.6	5.0	44.3	39.1	16.6
	고등학교	731	10.4	33.0	38.8	13.0	4.8	43.4	38.8	17.8
종교	기독교	535	10.1	38.5	38.3	11.2	1.9	48.6	38.3	13.1
	불교	200	12.5	31.0	39.5	13.5	3.5	43.5	39.5	17.0
	가톨릭	153	11.1	38.6	36.6	7.8	5.9	49.7	36.6	13.7
	무교	1,098	7.3	36.8	39.2	12.4	4.3	44.1	39.2	16.7
	기타	14	7.1	57.1	21.5	14.3	0.0	64.2	21.5	1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9.1	39.7	36.7	11.9	2.6	48.8	36.7	14.5
	보통	552	7.1	34.2	41.9	12.1	4.7	41.3	41.9	16.8
	불만	162	13.0	24.1	43.8	10.5	8.6	37.1	43.8	19.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5.4	36.4	37.0	9.3	1.9	51.8	37.0	11.2
	중	1,177	6.1	39.6	39.4	11.8	3.1	45.7	39.4	14.9
	하	661	12.1	32.4	37.9	12.6	5.0	44.5	37.9	17.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5.6	40.3	35.0	9.1	0.0	55.9	35.0	9.1
	중	1,053	6.9	39.4	39.8	11.1	2.8	46.3	39.8	13.9
	하	870	10.6	33.7	37.8	13.0	4.9	44.3	37.8	17.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0.9	30.7	40.2	15.3	2.9	41.6	40.2	18.2
	중	1,709	8.4	38.0	38.5	11.5	3.6	46.4	38.5	15.1
	하	154	11.7	31.2	40.3	12.3	4.5	42.9	40.3	16.8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9.7	34.0	35.0	18.4	2.9	43.7	35.0	21.3
	없다	1,897	8.8	37.1	38.9	11.5	3.7	45.9	38.9	15.2

11)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

긍정 66.0% > 부정 8.4%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3.0% + 조금 그렇다: 53.0%)이라는 응답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5.6%, ‘부정’ 8.4%(별로 그렇지 않다: 7.7% + 전혀 그렇지 않다: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64.5%)이 여성(67.0%)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68.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67.6%),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67.9%),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7.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5】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

표 II-80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것을 보면 나도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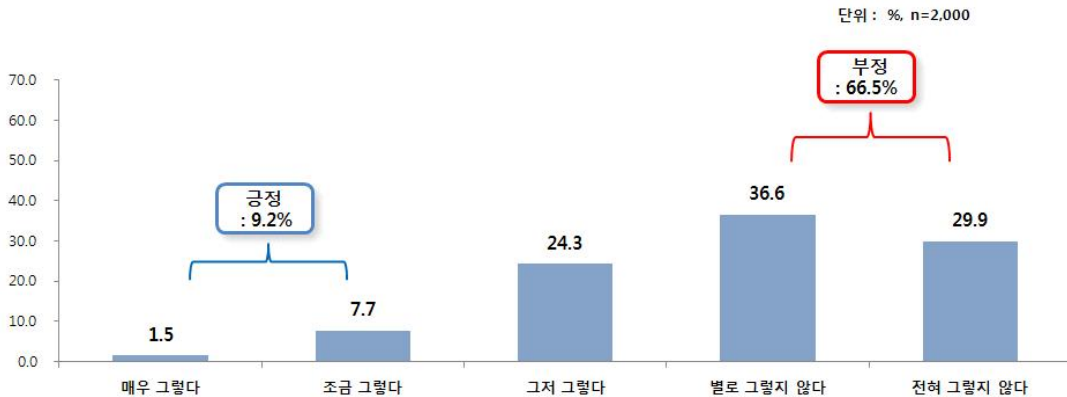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3.0	53.0	25.6	7.7	0.7	66.0	25.6	8.4
성별	남성	926	11.3	53.2	27.8	6.7	1.0	64.5	27.8	7.7
	여성	1,074	14.3	52.7	24.1	8.5	0.4	67.0	24.1	8.9
학교급	초등학교	564	8.3	59.9	25.1	6.2	0.5	68.2	25.1	6.7
	중학교	705	15.9	52.1	25.4	6.0	0.6	68.0	25.4	6.6
	고등학교	731	13.7	48.4	26.7	10.4	0.8	62.1	26.7	11.2
종교	기독교	535	13.8	50.5	25.0	10.5	0.2	64.3	25.0	10.7
	불교	200	12.0	51.5	32.0	4.0	0.5	63.5	32.0	4.5
	가톨릭	153	15.7	56.9	23.4	3.3	0.7	72.6	23.4	4.0
	무교	1,098	12.3	53.9	25.4	7.6	0.8	66.2	25.4	8.4
	기타	14	14.3	50.0	21.5	7.1	7.1	64.3	21.5	14.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3.1	54.5	24.4	7.2	0.8	67.6	24.4	8.0
	보통	552	10.9	52.0	28.5	8.2	0.4	62.9	28.5	8.6
	불만	162	19.1	43.8	27.2	9.3	0.6	62.9	27.2	9.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4.2	53.7	24.1	6.8	1.2	67.9	24.1	8.0
	중	1,177	10.3	56.4	25.9	6.9	0.5	66.7	25.9	7.4
	하	661	17.4	46.6	26.0	9.2	0.8	64.0	26.0	10.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0.4	59.7	28.6	1.3	0.0	70.1	28.6	1.3
	중	1,053	11.0	54.9	26.2	7.3	0.6	65.9	26.2	7.9
	하	870	15.5	50.0	25.1	8.6	0.8	65.5	25.1	9.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2.4	45.3	31.4	10.9	0.0	57.7	31.4	10.9
	중	1,709	12.1	54.3	25.6	7.3	0.7	66.4	25.6	8.0
	하	154	22.7	44.8	23.5	8.4	0.6	67.5	23.5	9.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59.2	19.4	10.7	0.0	69.9	19.4	10.7
	없다	1,897	13.1	52.6	26.1	7.5	0.7	65.7	26.1	8.2

12)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부정 66.5% > 긍정 9.2%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에서는,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6.6% + 전혀 그렇지 않다: 29.9%)이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4.3%, ‘긍정’ 9.2%(매우 그렇다: 1.5% + 조금 그렇다: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9.6%)이 여성(72.2%)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73.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72.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9.5%)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6】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표 II-81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 우는 건 우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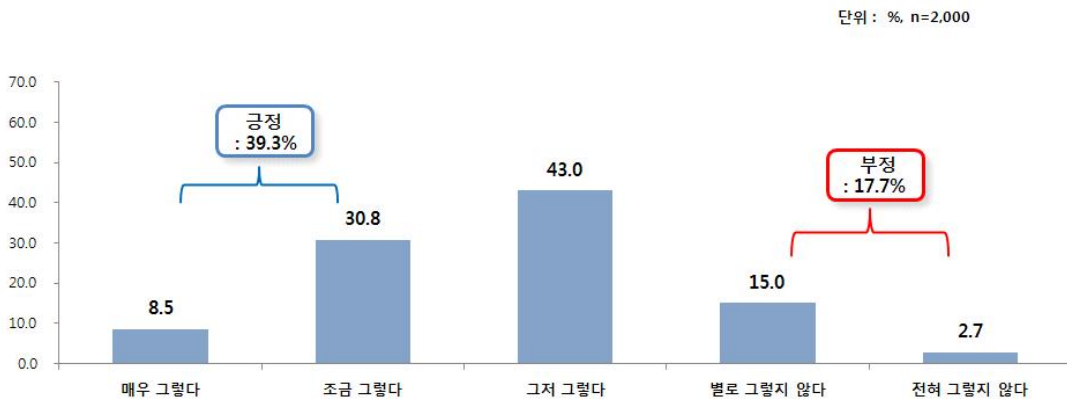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5	7.7	24.3	36.6	29.9	9.2	24.3	66.5
성별	남성	926	1.6	8.6	30.2	35.6	24.0	10.2	30.2	59.6
	여성	1,074	1.4	6.8	19.6	37.3	34.9	8.2	19.6	72.2
학교급	초등학교	564	1.1	9.8	32.9	42.7	13.5	10.9	32.9	56.2
	중학교	705	2.3	7.9	22.3	36.0	31.5	10.2	22.3	67.5
	고등학교	731	1.1	5.7	20.0	32.3	40.9	6.8	20.0	73.2
종교	기독교	535	0.9	8.6	26.0	38.3	26.2	9.5	26.0	64.5
	불교	200	4.0	8.0	26.0	35.0	27.0	12.0	26.0	62.0
	가톨릭	153	1.3	10.5	24.8	37.9	25.5	11.8	24.8	63.4
	무교	1,098	1.3	6.6	23.5	36.1	32.5	7.9	23.5	68.6
	기타	14	7.1	14.3	14.3	14.3	50.0	21.4	14.3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5	8.2	24.7	37.1	28.5	9.7	24.7	65.6
	보통	552	0.7	6.9	23.9	37.5	31.0	7.6	23.9	68.5
	불만	162	4.3	6.2	24.1	29.0	36.4	10.5	24.1	65.4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4.3	29.7	35.2	26.5	8.6	29.7	61.7
	중	1,177	1.2	8.8	26.2	39.8	24.0	10.0	26.2	63.8
	하	661	1.4	6.5	20.0	31.0	41.1	7.9	20.0	72.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5.2	31.1	40.3	22.1	6.5	31.1	62.4
	중	1,053	1.3	9.1	27.8	40.4	21.4	10.4	27.8	61.8
	하	870	1.7	6.1	19.8	31.6	40.8	7.8	19.8	72.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0.7	9.5	24.8	38.0	27.0	10.2	24.8	65.0
	중	1,709	1.6	7.7	24.5	36.6	29.6	9.3	24.5	66.2
	하	154	1.3	5.2	24.0	34.4	35.1	6.5	24.0	69.5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9	13.6	22.3	34.0	28.2	15.5	22.3	62.2
	없다	1,897	1.5	7.3	24.6	36.7	29.9	8.8	24.6	66.6

13)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긍정 39.3% > 부정 17.7%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 39.3%(매우 그렇다: 8.5% + 조금 그렇다: 30.8%), '부정' 17.7%(별로 그렇지 않다: 15.0% + 전혀 그렇지 않다: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6.7%)이 여성(41.5%)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43.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45.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45.2%)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7】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표 II-82 휴일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친구를 보면 내 마음도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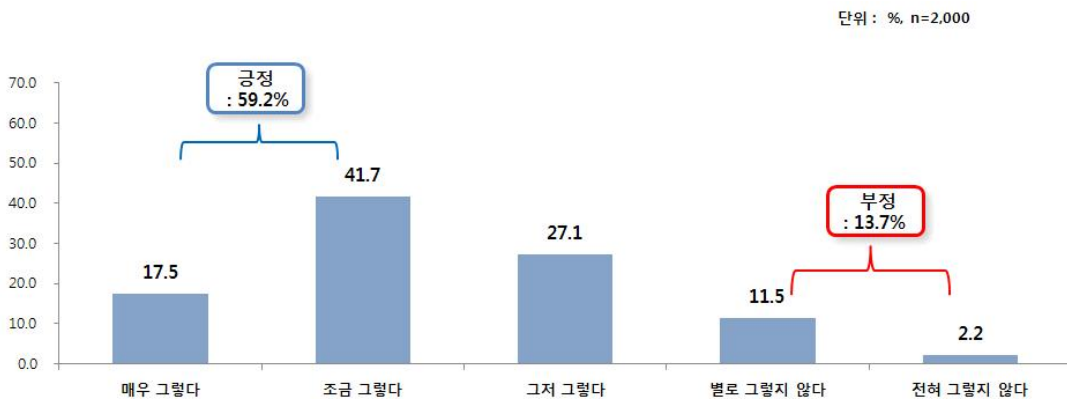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8.5	30.8	43.0	15.0	2.7	39.3	43.0	17.7
성별	남성	926	7.1	29.6	45.0	15.2	3.1	36.7	45.0	18.3
	여성	1,074	9.7	31.8	41.6	14.7	2.2	41.5	41.6	16.9
학교급	초등학교	564	6.7	36.7	40.6	14.0	2.0	43.4	40.6	16.0
	중학교	705	9.9	29.5	41.8	15.7	3.1	39.4	41.8	18.8
	고등학교	731	8.5	27.4	46.5	14.9	2.7	35.9	46.5	17.6
종교	기독교	535	8.2	33.8	40.4	14.6	3.0	42.0	40.4	17.6
	불교	200	11.0	35.5	36.0	16.0	1.5	46.5	36.0	17.5
	가톨릭	153	9.8	34.6	39.9	9.2	6.5	44.4	39.9	15.7
	무교	1,098	8.0	27.9	46.2	15.7	2.2	35.9	46.2	17.9
	기타	14	7.1	28.6	42.9	21.4	0.0	35.7	42.9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9.9	35.0	38.9	14.1	2.1	44.9	38.9	16.2
	보통	552	5.1	25.9	51.1	15.0	2.9	31.0	51.1	17.9
	불만	162	9.3	13.6	49.3	21.6	6.2	22.9	49.3	27.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6	36.4	42.1	12.3	0.6	45.0	42.1	12.9
	중	1,177	7.9	31.9	44.4	13.7	2.1	39.8	44.4	15.8
	하	661	9.5	27.4	41.1	17.9	4.1	36.9	41.1	22.0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3.4	50.6	14.3	0.0	35.1	50.6	14.3
	중	1,053	6.9	34.8	42.3	13.7	2.3	41.7	42.3	16.0
	하	870	10.1	26.6	43.4	16.6	3.3	36.7	43.4	19.9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37.2	35.8	16.8	2.2	45.2	35.8	19.0
	중	1,709	8.7	30.1	43.9	14.7	2.6	38.8	43.9	17.3
	하	154	6.5	32.5	40.9	16.2	3.9	39.0	40.9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6.8	23.3	52.4	10.7	6.8	30.1	52.4	17.5
	없다	1,897	8.6	31.2	42.6	15.2	2.4	39.8	42.6	17.6

14)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긍정 59.2% > 부정 13.7%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 17.5% + 조금 그렇다: 41.7%)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7.1%, '부정' 13.7%(별로 그렇지 않다: 11.5% +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8.6%)이 여성(68.3%)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66.6%)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불만족할 때(62.3%),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68.1%),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59.6%)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8】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표 II-83 나는 가끔 슬픈 영화나 책을 보고서 울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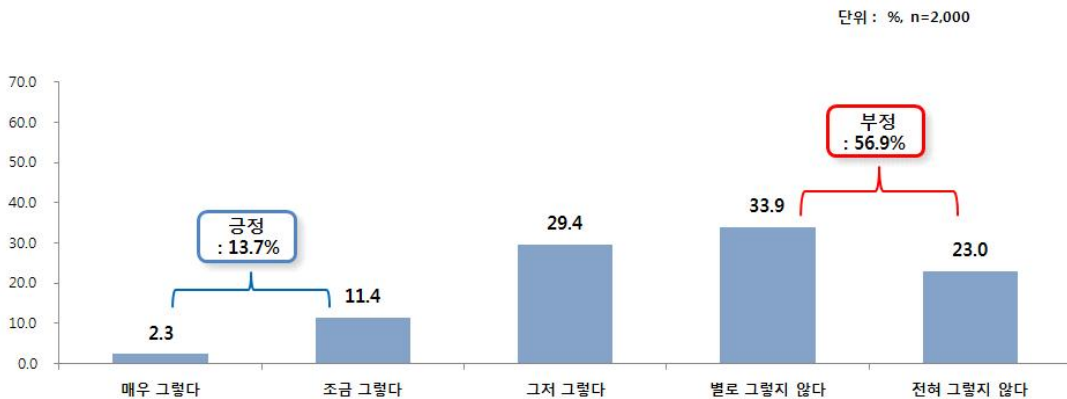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7.5	41.7	27.1	11.5	2.2	59.2	27.1	13.7
성별	남성	926	10.0	38.6	33.3	15.3	2.8	48.6	33.3	18.1
	여성	1,074	23.9	44.4	22.0	8.1	1.6	68.3	22.0	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6.6	42.9	32.3	16.1	2.1	49.5	32.3	18.2
	중학교	705	19.4	39.9	27.0	12.1	1.6	59.3	27.0	13.7
	고등학교	731	24.1	42.5	23.4	7.3	2.7	66.6	23.4	10.0
종교	기독교	535	17.8	40.4	25.7	15.0	1.1	58.2	25.7	16.1
	불교	200	17.5	42.5	23.0	12.0	5.0	60.0	23.0	17.0
	가톨릭	153	15.7	47.1	22.1	11.8	3.3	62.8	22.1	15.1
	무교	1,098	17.6	41.2	29.6	9.7	1.9	58.8	29.6	11.6
	기타	14	21.4	64.3	7.2	0.0	7.1	85.7	7.2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7.0	41.7	27.1	12.4	1.8	58.7	27.1	14.2
	보통	552	15.9	43.5	28.7	9.2	2.7	59.4	28.7	11.9
	불만	162	26.5	35.8	22.9	11.7	3.1	62.3	22.9	14.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17.3	37.0	29.0	13.0	3.7	54.3	29.0	16.7
	중	1,177	13.6	41.3	29.5	13.6	2.0	54.9	29.5	15.6
	하	661	24.5	43.6	22.6	7.3	2.0	68.1	22.6	9.3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1.7	28.6	33.7	26.0	0.0	40.3	33.7	26.0
	중	1,053	13.1	41.9	30.2	12.7	2.1	55.0	30.2	14.8
	하	870	23.3	42.6	23.1	8.6	2.4	65.9	23.1	11.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19.7	36.5	28.4	13.9	1.5	56.2	28.4	15.4
	중	1,709	16.4	43.2	27.0	11.4	2.0	59.6	27.0	13.4
	하	154	27.9	29.9	27.9	10.4	3.9	57.8	27.9	14.3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7	45.6	21.4	20.4	1.9	56.3	21.4	22.3
	없다	1,897	17.9	41.5	27.4	11.0	2.2	59.4	27.4	13.2

15)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부정 56.9% > 긍정 13.7%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는 응답에서는,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3.9% + 전혀 그렇지 않다: 23.0%)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9.4%, ‘긍정’ 13.7%(매우 그렇다: 2.3% + 조금 그렇다: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1.1%)이 여성(61.7%)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58.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60.8%),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59.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9】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표 II-84 길에서 큰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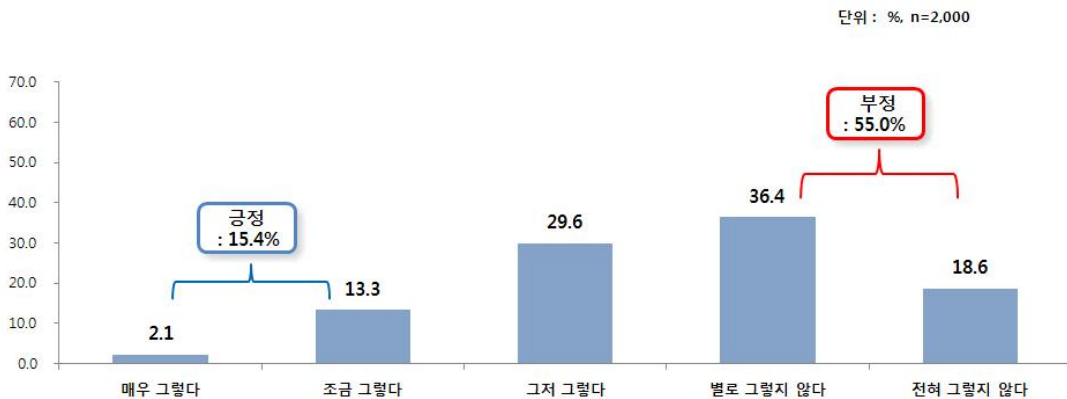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3	11.4	29.4	33.9	23.0	13.7	29.4	56.9
성별	남성	926	2.2	13.6	33.1	34.3	16.8	15.8	33.1	51.1
	여성	1,074	2.4	9.5	26.4	33.4	28.3	11.9	26.4	61.7
학교급	초등학교	564	1.2	11.0	32.0	39.7	16.1	12.2	32.0	55.8
	중학교	705	2.8	12.5	28.4	33.2	23.1	15.3	28.4	56.3
	고등학교	731	2.6	10.7	28.5	30.0	28.2	13.3	28.5	58.2
종교	기독교	535	1.7	12.1	29.6	37.2	19.4	13.8	29.6	56.6
	불교	200	5.5	15.5	28.5	22.5	28.0	21.0	28.5	50.5
	가톨릭	153	0.7	11.1	32.0	34.6	21.6	11.8	32.0	56.2
	무교	1,098	2.3	10.2	29.2	34.4	23.9	12.5	29.2	58.3
	기타	14	0.0	21.4	28.6	14.3	35.7	21.4	28.6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3	10.8	29.4	34.4	23.1	13.1	29.4	57.5
	보통	552	1.3	12.7	31.4	33.9	20.7	14.0	31.4	54.6
	불만	162	5.6	11.7	23.5	29.0	30.2	17.3	23.5	59.2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4.3	31.5	37.7	22.2	8.6	31.5	59.9
	중	1,177	2.1	12.3	31.4	34.9	19.3	14.4	31.4	54.2
	하	661	2.1	11.5	25.6	31.0	29.8	13.6	25.6	60.8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2.6	33.7	39.0	23.4	3.9	33.7	62.4
	중	1,053	2.6	12.3	30.2	36.0	18.9	14.9	30.2	54.9
	하	870	2.1	11.0	28.2	30.8	27.9	13.1	28.2	58.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9.5	38.0	32.1	16.8	13.1	38.0	48.9
	중	1,709	2.2	11.2	29.4	33.9	23.3	13.4	29.4	57.2
	하	154	2.6	14.9	23.4	34.4	24.7	17.5	23.4	59.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2.9	16.5	22.4	42.7	15.5	19.4	22.4	58.2
	없다	1,897	2.3	11.1	29.8	33.4	23.4	13.4	29.8	56.8

16)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부정 55.0% > 긍정 15.4%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에서는,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6.4% + 전혀 그렇지 않다: 18.6%)이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9.6%, '긍정' 15.4%(매우 그렇다: 2.1% + 조금 그렇다: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8.8%)이 여성(60.1%)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62.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58.4%),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61.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0】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표 II-85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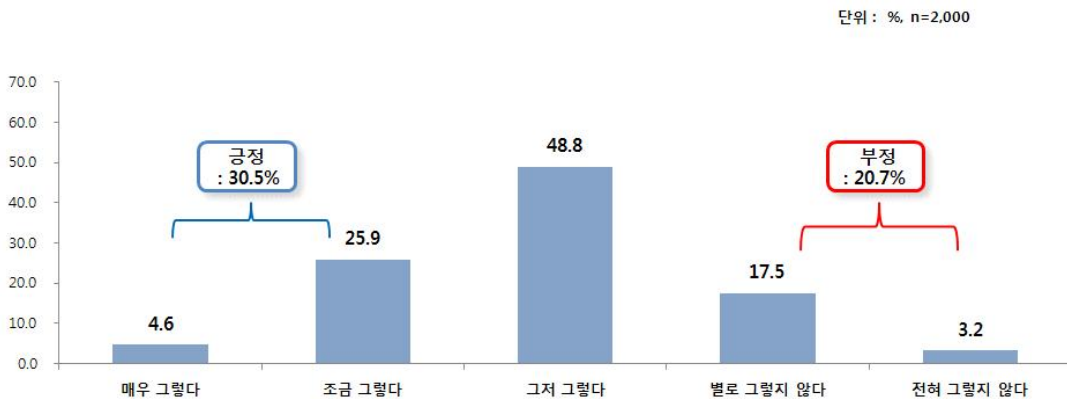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2.1	13.3	29.6	36.4	18.6	15.4	29.6	55.0
성별	남성	926	2.5	15.7	33.0	33.6	15.2	18.2	33.0	48.8
	여성	1,074	1.7	11.3	26.9	38.7	21.4	13.0	26.9	60.1
학교급	초등학교	564	1.6	16.0	35.6	35.6	11.2	17.6	35.6	46.8
	중학교	705	2.6	14.2	29.4	36.5	17.3	16.8	29.4	53.8
	고등학교	731	1.9	10.4	25.5	36.8	25.4	12.3	25.5	62.2
종교	기독교	535	2.1	15.0	28.9	35.1	18.9	17.1	28.9	54.0
	불교	200	4.5	13.0	29.0	35.5	18.0	17.5	29.0	53.5
	가톨릭	153	4.6	17.6	31.4	29.4	17.0	22.2	31.4	46.4
	무교	1,098	1.2	12.0	30.0	37.9	18.9	13.2	30.0	56.8
	기타	14	7.1	7.1	35.8	50.0	0.0	14.2	35.8	5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2.1	14.2	28.3	37.7	17.7	16.3	28.3	55.4
	보통	552	1.3	13.2	32.6	34.8	18.1	14.5	32.6	52.9
	불만	162	4.3	6.8	30.8	30.9	27.2	11.1	30.8	5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3	13.6	35.2	29.0	17.9	17.9	35.2	46.9
	중	1,177	2.0	14.4	29.5	39.1	15.0	16.4	29.5	54.1
	하	661	1.5	11.2	28.9	33.3	25.1	12.7	28.9	58.4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4.3	32.4	32.5	19.5	15.6	32.4	52.0
	중	1,053	2.0	15.2	32.1	36.5	14.2	17.2	32.1	50.7
	하	870	2.2	10.9	26.5	36.6	23.8	13.1	26.5	60.4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10.2	29.2	35.8	21.2	13.8	29.2	57.0
	중	1,709	1.9	13.5	30.4	36.8	17.4	15.4	30.4	54.2
	하	154	1.9	14.3	22.8	31.8	29.2	16.2	22.8	61.0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18.4	25.2	35.0	16.5	23.3	25.2	51.5
	없다	1,897	1.9	13.0	30.0	36.4	18.7	14.9	30.0	55.1

17)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긍정 30.5% > 부정 20.7%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 30.5%(매우 그렇다: 4.6% + 조금 그렇다: 25.9%), ‘부정’ 20.7%(별로 그렇지 않다: 17.5% + 전혀 그렇지 않다: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28.7%)이 여성(31.9%)보다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32.2%)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간인 경우(31.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37.0%)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1】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표 II-86 내가 상을 못 받았을 때에도 친구가 상을 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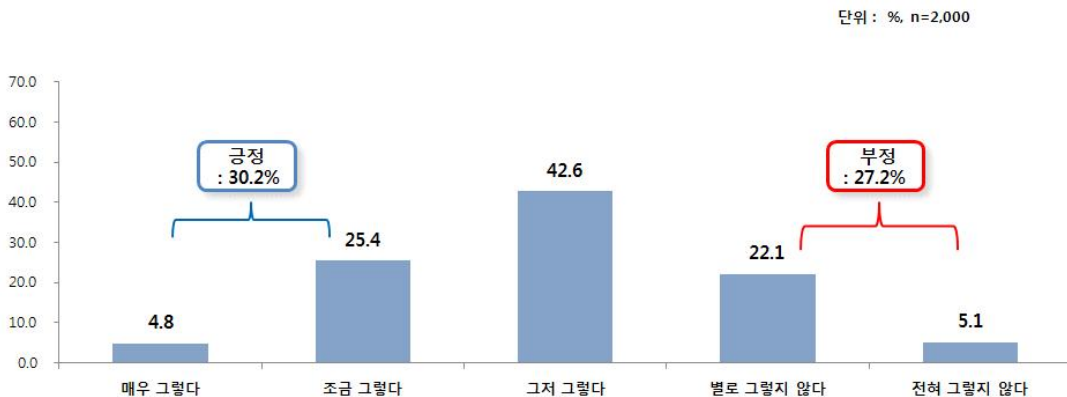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4.6	25.9	48.8	17.5	3.2	30.5	48.8	20.7
성별	남성	926	4.2	24.5	49.4	18.6	3.3	28.7	49.4	21.9
	여성	1,074	4.9	27.0	48.4	16.6	3.1	31.9	48.4	19.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1	27.8	51.1	17.6	1.4	29.9	51.1	19.0
	중학교	705	6.5	25.7	45.3	17.7	4.8	32.2	45.3	22.5
	고등학교	731	4.7	24.5	50.6	17.2	3.0	29.2	50.6	20.2
종교	기독교	535	4.9	26.4	47.4	19.1	2.2	31.3	47.4	21.3
	불교	200	8.0	28.0	48.5	12.0	3.5	36.0	48.5	15.5
	가톨릭	153	9.2	25.5	44.3	19.0	2.0	34.7	44.3	21.0
	무교	1,098	3.3	25.1	50.3	17.6	3.7	28.4	50.3	21.3
	기타	14	0.0	35.7	42.9	14.3	7.1	35.7	42.9	21.4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9	27.8	47.6	16.4	3.3	32.7	47.6	19.7
	보통	552	4.0	23.0	51.3	18.8	2.9	27.0	51.3	21.7
	불만	162	4.3	19.8	50.6	21.6	3.7	24.1	50.6	25.3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0	21.6	52.5	16.7	1.2	29.6	52.5	17.9
	중	1,177	3.3	27.8	48.3	17.6	3.0	31.1	48.3	20.6
	하	661	6.1	23.4	48.9	17.5	4.1	29.5	48.9	21.6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7.8	20.8	46.7	23.4	1.3	28.6	46.7	24.7
	중	1,053	3.4	26.8	49.6	17.5	2.7	30.2	49.6	20.2
	하	870	5.7	25.2	48.1	17.0	4.0	30.9	48.1	21.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8.0	28.5	45.3	17.5	0.7	36.5	45.3	18.2
	중	1,709	4.2	25.2	49.7	17.7	3.2	29.4	49.7	20.9
	하	154	6.5	30.5	42.9	14.9	5.2	37.0	42.9	20.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27.2	46.5	17.5	4.9	31.1	46.5	22.4
	없다	1,897	4.6	25.8	49.0	17.5	3.1	30.4	49.0	20.6

18)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긍정 30.2% > 부정 27.2%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 30.2%(매우 그렇다: 4.8% + 조금 그렇다: 25.4%), ‘부정’ 27.2%(별로 그렇지 않다: 22.1% + 전혀 그렇지 않다: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30.3%)과 여성(30.2%)의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동일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33.5%)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31.2%),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30.7%)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2】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표 II-87 어른들은 가끔씩 슬픈 일이 없어도 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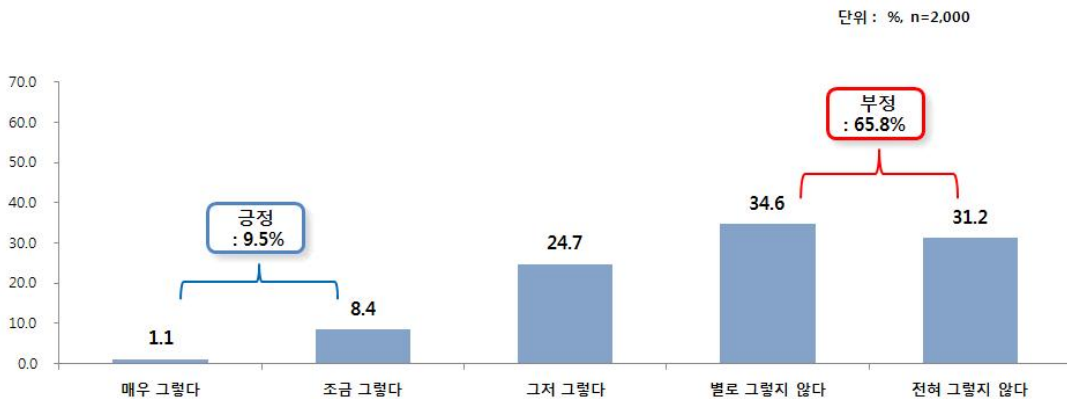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4.8	25.4	42.6	22.1	5.1	30.2	42.6	27.2
성별	남성	926	3.6	26.7	45.0	20.1	4.6	30.3	45.0	24.7
	여성	1,074	5.9	24.3	40.6	23.8	5.4	30.2	40.6	29.2
학교급	초등학교	564	2.5	31.0	42.3	20.7	3.5	33.5	42.3	24.2
	중학교	705	5.4	22.6	42.6	23.7	5.7	28.0	42.6	29.4
	고등학교	731	6.0	23.8	43.0	21.6	5.6	29.8	43.0	27.2
종교	기독교	535	5.4	25.0	39.9	24.3	5.4	30.4	39.9	29.7
	불교	200	7.5	21.5	45.0	22.0	4.0	29.0	45.0	26.0
	가톨릭	153	2.6	23.5	41.8	27.5	4.6	26.1	41.8	32.1
	무교	1,098	4.1	26.3	43.9	20.5	5.2	30.4	43.9	25.7
	기타	14	21.4	42.9	28.6	7.1	0.0	64.3	28.6	7.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4.5	26.0	43.1	22.0	4.4	30.5	43.1	26.4
	보통	552	4.2	25.4	42.1	22.5	5.8	29.6	42.1	28.3
	불만	162	9.3	21.0	40.1	21.6	8.0	30.3	40.1	29.6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4.9	23.5	45.1	19.1	7.4	28.4	45.1	26.5
	중	1,177	3.8	26.1	42.6	22.8	4.7	29.9	42.6	27.5
	하	661	6.5	24.7	42.1	21.6	5.1	31.2	42.1	26.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6.5	23.4	40.2	22.1	7.8	29.9	40.2	29.9
	중	1,053	3.2	25.7	43.5	21.9	5.7	28.9	43.5	27.6
	하	870	6.6	25.2	41.9	22.3	4.0	31.8	41.9	26.3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4.4	26.3	37.2	26.3	5.8	30.7	37.2	32.1
	중	1,709	4.7	25.5	43.3	21.8	4.7	30.2	43.3	26.5
	하	154	6.5	24.0	39.6	22.1	7.8	30.5	39.6	29.9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4.9	22.3	42.7	25.2	4.9	27.2	42.7	30.1
	없다	1,897	4.8	25.6	42.6	21.9	5.1	30.4	42.6	27.0

19)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부정 65.8% > 긍정 9.5%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는 질문에,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4.6% + 전혀 그렇지 않다: 31.2%)이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24.7%, '긍정' 9.5%(매우 그렇다: 1.1% + 조금 그렇다: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58.5%)이 여성(72.0%)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70.9%)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71.1%),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72.1%)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3】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표 II-88 귀신/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무서워하는 친구를 보면 바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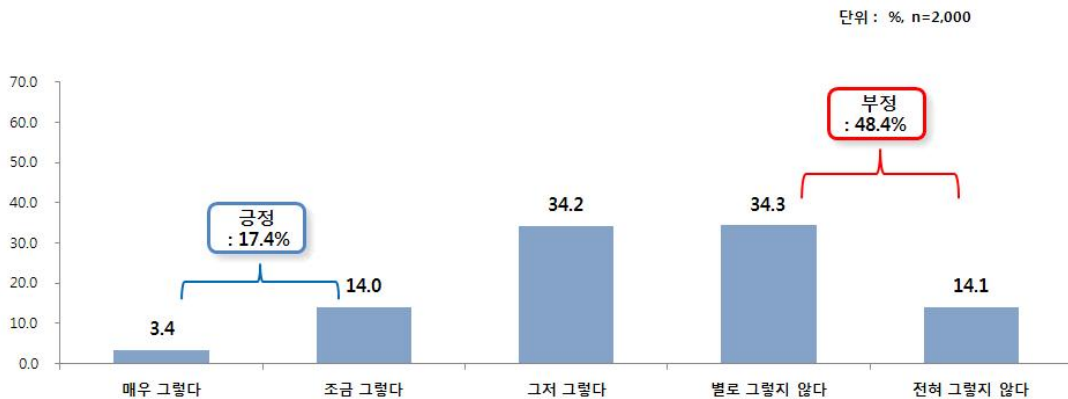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1.1	8.4	24.7	34.6	31.2	9.5	24.7	65.8
성별	남성	926	1.0	9.9	30.6	35.7	22.8	10.9	30.6	58.5
	여성	1,074	1.1	7.0	19.9	33.6	38.4	8.1	19.9	72.0
학교급	초등학교	564	0.9	9.8	31.5	42.2	15.6	10.7	31.5	57.8
	중학교	705	1.6	8.1	23.5	34.3	32.5	9.7	23.5	66.8
	고등학교	731	0.7	7.5	20.9	29.0	41.9	8.2	20.9	70.9
종교	기독교	535	1.5	9.9	25.4	34.0	29.2	11.4	25.4	63.2
	불교	200	3.0	11.5	25.5	28.5	31.5	14.5	25.5	60.0
	가톨릭	153	0.7	9.8	22.8	41.2	25.5	10.5	22.8	66.7
	무교	1,098	0.5	6.7	24.9	35.3	32.6	7.2	24.9	67.9
	기타	14	0.0	14.3	21.4	14.3	50.0	14.3	21.4	64.3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1.1	8.3	24.5	35.3	30.8	9.4	24.5	66.1
	보통	552	0.5	8.3	26.9	35.5	28.8	8.8	26.9	64.3
	불만	162	2.5	8.6	21.0	25.9	42.0	11.1	21.0	67.9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3.1	5.6	24.7	40.1	26.5	8.7	24.7	66.6
	중	1,177	0.8	9.5	27.0	36.4	26.3	10.3	27.0	62.7
	하	661	0.9	7.0	21.0	30.1	41.0	7.9	21.0	71.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11.7	24.6	32.5	27.3	15.6	24.6	59.8
	중	1,053	0.9	8.9	27.4	39.0	23.8	9.8	27.4	62.8
	하	870	1.0	7.4	21.9	29.4	40.3	8.4	21.9	69.7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2.9	7.3	21.9	36.5	31.4	10.2	21.9	67.9
	중	1,709	0.8	8.8	25.4	34.6	30.4	9.6	25.4	65.0
	하	154	2.6	3.9	21.4	32.5	39.6	6.5	21.4	72.1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1.0	11.7	24.2	38.8	24.3	12.7	24.2	63.1
	없다	1,897	1.1	8.2	24.8	34.4	31.5	9.3	24.8	65.9

20)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

부정 48.4% > 긍정 17.4%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에서는,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34.3% + 전혀 그렇지 않다: 14.1%)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 34.2%, ‘긍정’ 17.4%(매우 그렇다: 3.4% + 조금 그렇다: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43.1%)이 여성(52.8%)보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48.8%)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53.7%),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53.3%)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4】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

표 II-89 과자를 먹을 때, 먹고 싶어 보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을 수 있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전체		2,000	3.4	14.0	34.2	34.3	14.1	17.4	34.2	48.4
성별	남성	926	3.0	15.0	38.9	31.3	11.8	18.0	38.9	43.1
	여성	1,074	3.6	13.0	30.6	36.8	16.0	16.6	30.6	52.8
학교급	초등학교	564	1.8	14.0	36.9	38.1	9.2	15.8	36.9	47.3
	중학교	705	4.1	15.0	32.1	33.6	15.2	19.1	32.1	48.8
	고등학교	731	3.8	12.9	34.7	31.9	16.7	16.7	34.7	48.6
종교	기독교	535	2.8	13.5	35.3	33.3	15.1	16.3	35.3	48.4
	불교	200	7.5	14.5	33.0	33.5	11.5	22.0	33.0	45.0
	가톨릭	153	2.0	7.8	39.8	39.9	10.5	9.8	39.8	50.4
	무교	1,098	3.1	14.6	33.6	34.1	14.6	17.7	33.6	48.7
	기타	14	0.0	42.9	14.3	35.7	7.1	42.9	14.3	42.8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3.3	13.4	33.1	36.4	13.8	16.7	33.1	50.2
	보통	552	3.3	15.4	37.4	31.0	12.9	18.7	37.4	43.9
	불만	162	4.3	13.6	33.3	28.4	20.4	17.9	33.3	48.8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6.8	10.5	29.0	38.3	15.4	17.3	29.0	53.7
	중	1,177	2.7	13.8	36.7	34.2	12.6	16.5	36.7	46.8
	하	661	3.6	15.0	31.7	33.4	16.3	18.6	31.7	49.7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1.3	13.0	35.0	36.4	14.3	14.3	35.0	50.7
	중	1,053	3.5	14.1	35.5	35.2	11.7	17.6	35.5	46.9
	하	870	3.3	13.9	33.0	32.9	16.9	17.2	33.0	49.8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3.6	8.8	34.3	36.5	16.8	12.4	34.3	53.3
	중	1,709	3.2	14.3	34.7	34.1	13.7	17.5	34.7	47.8
	하	154	5.2	14.3	31.1	33.8	15.6	19.5	31.1	49.4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3.9	8.7	28.2	43.7	15.5	12.6	28.2	59.2
	없다	1,897	3.3	14.2	34.8	33.7	14.0	17.5	34.8	47.7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장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자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 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415-212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14-4 94330

979-11-5654-012-0 (세트)